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3-2

ISBN 979-11-92238-31-9

# 대전지역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실태 및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이계석
공동연구원	유호석
공동연구원	최선미
공동연구원	오재진
공동연구원	이순복
공동연구원	강만식
공동연구원	전혜수
보조연구원	하수연

2023. 12.

\*

본 연구는 2023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지역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실태 및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이계석
공동연구원	유호석
공동연구원	최선미
공동연구원	오재진
공동연구원	이순복
공동연구원	강만식
공동연구원	전혜수
보조연구원	하수연

2023. 12.



# 차 례

요 약	1
제1장 서론	4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4
제2절 선행연구 분석	7
1. 아동복지 관련 선행연구	10
2. 학교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14
3. 가정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18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1
제2장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지원 현황 및 정책 비교	24
제1절 사업 목적 및 근거	24
1. 사업 목적	24
2. 사업 근거	25
제2절 지원 방식과 내용	26
1. 지원 대상	26
2. 지원 체계	27
3. 지원 서비스	30
제3절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과 보완점	32
1. 운영 현황	32

2. 애로사항과 보완할 점.....	34
<b>제3장 복지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조사.....</b>	<b>36</b>
<b>제1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b>	<b>36</b>
1. 일반적 특성.....	36
2. 심리적 특성.....	44
3. 가정 내 생활 경험.....	54
4. 가정 밖 생활 경험.....	64
5. 아르바이트 및 근로 경험.....	72
6. 술, 담배, 약물 이용 경험.....	79
7. 성관계 경험.....	86
8. 돈내기 게임 및 재산 피해 경험.....	90
9. 온라인 피해 경험.....	97
10.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	104
11. 폭력 피해 경험.....	109
12. 폭력 가해 경험.....	116
13. 온라인 가해 경험.....	121
14. 자해, 자살 시도 경험.....	130
15.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방안.....	138
<b>제2절 설문조사 결과 종합.....</b>	<b>159</b>
1. 분석 종합.....	159
2. 소결.....	165

제4장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전문가 집담회 결과.....	167
1. 각 대상의 실태와 특성.....	168
2.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168
3. 각 복지 지원정책 비교.....	169
4. 대전지역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한 보완점 .....	170
제5장 결론.....	172
참고문헌.....	178
부 록 .....	184
1. 아동,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지.....	184
2.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205

## 표 차례

〈표 1-3-1〉 설문 조사 대상자 분포.....	22
〈표 2-1-1〉 사업목적.....	24
〈표 2-1-2〉 사업 근거.....	25
〈표 2-2-1〉 지원 대상.....	26
〈표 2-2-2〉 아동시설 현황.....	27
〈표 2-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7
〈표 2-2-4〉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7
〈표 2-2-5〉 전달체계.....	28
〈표 2-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29
〈표 2-2-7〉 지원서비스.....	30
〈표 2-2-8〉 대전시의 각 구별 청소년 사업 중 복지사업.....	31
〈표 2-3-1〉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실적.....	32
〈표 2-3-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1년).....	32
〈표 2-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2년).....	33
〈표 2-3-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3년10월 기준).....	33
〈표 2-3-5〉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0년~2022년,3년).....	33
〈표 2-3-6〉 애로사항 및 보완할 점.....	34
〈표 3-1-1〉 성별.....	37
〈표 3-1-2〉 평균연령.....	38
〈표 3-1-3〉 재학 여부.....	39

〈표 3-1-4〉 학교 중단 이유.....	41
〈표 3-1-5〉 진로 계획.....	42
〈표 3-1-6〉 건강검진.....	44
〈표 3-1-7〉 자존감.....	45
〈표 3-1-8〉 타인에 대한 이해.....	46
〈표 3-1-9〉 자기통제력.....	47
〈표 3-1-10〉 갈등해결 능력.....	48
〈표 3-1-11〉 삶에 대한 인식.....	49
〈표 3-1-12〉 신체적 건강.....	50
〈표 3-1-13〉 정서적 건강.....	51
〈표 3-1-14〉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	52
〈표 3-1-15〉 우울증 증상.....	53
〈표 3-1-16〉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54
〈표 3-1-17〉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느낌.....	55
〈표 3-1-18〉 부모님의 관심.....	56
〈표 3-1-19〉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57
〈표 3-1-20〉 부모님의 학교 결석에 대한 방임 방치.....	58
〈표 3-1-21〉 부모님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방임 방치.....	59
〈표 3-1-22〉 부모님의 돌봄 방치.....	60
〈표 3-1-23〉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61
〈표 3-1-24〉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	62
〈표 3-1-25〉 부모님으로부터 성학대나 추행을 당한 경험.....	63
〈표 3-1-26〉 최근 1년 이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방치한 경험.....	64

〈표 3-1-27〉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65
〈표 3-1-28〉 평생 가출 경험.....	66
〈표 3-1-29〉 첫 가출 경험 나이.....	67
〈표 3-1-30〉 가출한 이유.....	69
〈표 3-1-31〉 집을 나와 지낸 곳.....	71
〈표 3-1-32〉 아르바이트 경험.....	72
〈표 3-1-33〉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74
〈표 3-1-34〉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	76
〈표 3-1-35〉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77
〈표 3-1-36〉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경험.....	78
〈표 3-1-37〉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이유 .....	78
〈표 3-1-38〉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79
〈표 3-1-39〉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	80
〈표 3-1-40〉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81
〈표 3-1-41〉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82
〈표 3-1-42〉 술을 구하기 위한 신분 위조 경험.....	83
〈표 3-1-43〉 담배를 대리구매해 본 경험.....	84
〈표 3-1-44〉 술을 대리구매해 본 경험.....	85
〈표 3-1-45〉 음주로 인한 비행 경험.....	85
〈표 3-1-46〉 음주운전(자전거,오토바이) 경험.....	86
〈표 3-1-47〉 성관계 경험.....	87
〈표 3-1-48〉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	88
〈표 3-1-49〉 성 관계시 피임 경험.....	89

〈표 3-1-50〉 돈내기 게임 경험.....	90
〈표 3-1-51〉 최근 6개월 내의 돈내기 게임 경험.....	91
〈표 3-1-52〉 돈내기 게임을 하게 된 이유.....	92
〈표 3-1-5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절도를 한 경험.....	93
〈표 3-1-54〉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사기를 친 경험.....	94
〈표 3-1-55〉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경험.....	94
〈표 3-1-56〉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린 경험.....	95
〈표 3-1-57〉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95
〈표 3-1-58〉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려 어려움을 겪은 경험.....	96
〈표 3-1-59〉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빌린 돈의 액수.....	96
〈표 3-1-60〉 온라인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옴.....	98
〈표 3-1-61〉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경험.....	99
〈표 3-1-62〉 노출사진이나 음란물에 나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경험.....	99
〈표 3-1-63〉 동의없이 나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	100
〈표 3-1-64〉 내 신체의 일부를 찍어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101
〈표 3-1-65〉 내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는 협박 경험.....	101
〈표 3-1-66〉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험.....	102
〈표 3-1-67〉 금품을 미끼로 내 영상물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	102
〈표 3-1-68〉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경험.....	103
〈표 3-1-69〉 온라인에서 내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경험.....	104
〈표 3-1-7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105
〈표 3-1-71〉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관련 사기 당한 경험.....	
〈표 3-1-72〉 휴대폰 명의 대여 경험.....	107

〈표 3-1-73〉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빚이 생긴 경험	108
〈표 3-1-74〉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경험	108
〈표 3-1-75〉 인터넷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경험	109
〈표 3-1-76〉 폭언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110
〈표 3-1-77〉 폭력 피해 경험	110
〈표 3-1-7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111
〈표 3-1-79〉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112
〈표 3-1-80〉 왕따를 당한 경험	113
〈표 3-1-81〉 강제 심부름을 당한 경험	113
〈표 3-1-82〉 온라인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	114
〈표 3-1-83〉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	114
〈표 3-1-84〉 말이나 몸짓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	115
〈표 3-1-85〉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	115
〈표 3-1-86〉 강제적 성추행 피해 경험	116
〈표 3-1-87〉 다른사람 놀리거나 조롱하기 경험	116
〈표 3-1-88〉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117
〈표 3-1-89〉 패싸움 경험	117
〈표 3-1-90〉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경험	118
〈표 3-1-91〉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경험	118
〈표 3-1-92〉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 경험	119
〈표 3-1-9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	119
〈표 3-1-94〉 성폭행이나 성희롱 경험	120
〈표 3-1-95〉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경험	121

〈표 3-1-96〉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122
〈표 3-1-97〉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욕을 퍼뜨린 경험.....	122
〈표 3-1-98〉 온라인 상에서 스토킹을 한 경험.....	123
〈표 3-1-99〉 당사자가 원치 않는 엽기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경험.....	123
〈표 3-1-100〉 온라인 상에서 다른사람 계정을 도용한 경험.....	124
〈표 3-1-101〉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경험.....	124
〈표 3-1-102〉 온라인에서 게임 머니나 아이템 등을 뺏은 경험.....	125
〈표 3-1-103〉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셔틀을 시킨 경험.....	125
〈표 3-1-104〉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험.....	126
〈표 3-1-105〉 인터넷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퇴장하지 못하게 한 경험.....	126
〈표 3-1-106〉 온라인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문제 있어 보이게 한 경험.....	127
〈표 3-1-107〉 스마트폰으로 가스라이팅 또는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킨 경우.....	127
〈표 3-1-108〉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린 경험.....	128
〈표 3-1-109〉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 공격한 경험.....	128
〈표 3-1-110〉 온라인 대화방에서 일부로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험.....	129
〈표 3-1-111〉 최근 1년간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130
〈표 3-1-112〉 최근 1년간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	131
〈표 3-1-113〉 자해를 시도하게 된 이유.....	113
〈표 3-1-114〉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134
〈표 3-1-115〉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135
〈표 3-1-116〉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136
〈표 3-1-117〉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139
〈표 3-1-11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학습, 진로 멘토.....	141

〈표 3-1-11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진학 정보 제공	142
〈표 3-12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진로 탐색 체험	143
〈표 3-12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직업교육훈련	144
〈표 3-12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청소년에게 편한 일자리 제공	145
〈표 3-12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146
〈표 3-12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자산관리 관련 정보 제공	147
〈표 3-12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경제적 지원	148
〈표 3-12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	149
〈표 3-12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건강검진	150
〈표 3-12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각종 질병 치료	151
〈표 3-12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성 교육 제공	152
〈표 3-13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각종 고민 상담	153
〈표 3-13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154
〈표 3-13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족 간 갈등 해결 또는 가정 폭력 해소 프로그램	155
〈표 3-13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인터넷중독 치료 지원	156
〈표 3-13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지역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157
〈표 3-13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다양한 청소년 활동	158
〈표 3-136〉 기타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158
〈표 5-1〉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	172

## 그림 차례

[ 그림 3-1 ] 성별.....	36
[ 그림 3-2 ] 평균연령.....	37
[ 그림 3-3 ] 재학 여부.....	39
[ 그림 3-4 ] 학교 중단 이유.....	40
[ 그림 3-5 ] 진로계획.....	42
[ 그림 3-6 ] 건강검진.....	43
[ 그림 3-7 ] 자존감.....	44
[ 그림 3-8 ] 타인에 대한 이해.....	45
[ 그림 3-9 ] 자기 통제력.....	46
[ 그림 3-10 ] 갈등해결능력.....	47
[ 그림 3-11 ] 삶에 대한 인식.....	48
[ 그림 3-12 ] 신체적 건강.....	49
[ 그림 3-13 ] 정서적 건강.....	50
[ 그림 3-14 ]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	51
[ 그림 3-15 ] 우울증 증상.....	52
[ 그림 3-16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53
[ 그림 3-17 ]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느낌.....	55
[ 그림 3-18 ] 부모님의 관심.....	56
[ 그림 3-19 ]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57
[ 그림 3-20 ] 부모님의 학교 결석에 대한 방임 방치.....	58

[ 그림 3-21 ] 부모님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방임 방치.....	59
[ 그림 3-22 ] 부모님의 돌봄 방치.....	60
[ 그림 3-23 ]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61
[ 그림 3-24 ]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	62
[ 그림 3-25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65
[ 그림 3-26 ] 평생 가출 경험.....	66
[ 그림 3-27 ] 첫 가출 경험 나이.....	67
[ 그림 3-28 ] 가출한 이유.....	68
[ 그림 3-29 ] 집을 나와 지낸 곳.....	70
[ 그림 3-34 ] 아르바이트 경험.....	72
[ 그림 3-35 ]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73
[ 그림 3-36 ] 아르바이트 경험(3)-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	75
[ 그림 3-37 ] 아르바이트 경험(4)-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77
[ 그림 3-38 ]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79
[ 그림 3-39 ]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	80
[ 그림 3-40 ]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81
[ 그림 3-41 ] 술을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82
[ 그림 3-42 ] 담배를 대리 구매해 본 경험.....	83
[ 그림 3-43 ] 술을 대리 구매해 본 경험.....	84
[ 그림 3-44 ] 성관계 경험.....	86
[ 그림 3-45 ]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	87
[ 그림 3-46 ] 성 관계시 피임 경험.....	89
[ 그림 3-47 ] 돈내기 게임 경험.....	90

[ 그림 3-48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절도를 한 경험.....	93
[ 그림 3-30 ]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옴.....	97
[ 그림 3-31 ] 동의없이 알မ်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	98
[ 그림 3-32 ] 신체의 일부를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100
[ 그림 3-33 ] 온라인에서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험.....	103
[ 그림 3-49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104
[ 그림 3-50 ]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관련 사기 당한 경험.....	105
[ 그림 3-51 ] 휴대폰 명의 대여 경험.....	106
[ 그림 3-52 ]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빚이 생긴 경험.....	107
[ 그림 3-53 ] 폭언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109
[ 그림 3-54 ]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111
[ 그림 3-55 ] 왕따를 당한 경험.....	112
[ 그림 3-56 ]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경험.....	120
[ 그림 3-57 ]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121
[ 그림 3-58 ] 최근 1년간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130
[ 그림 3-59 ] 최근 1년간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	131
[ 그림 3-60 ] 자해를 시도하게 된 이유.....	132
[ 그림 3-61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134
[ 그림 3-62 ]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135
[ 그림 3-63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136
[ 그림 3-64 ]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138
[ 그림 3-65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학습, 진로 멘토.....	140
[ 그림 3-66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학 정보.....	141

[ 그림 3-67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로 탐색 체험.....	142
[ 그림 3-68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직업교육훈련.....	143
[ 그림 3-69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청소년에게 편한 일자리 .....	144
[ 그림 3-70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 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145
[ 그림 3-71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	146
[ 그림 3-72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경제적 지원.....	147
[ 그림 3-73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 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	148
[ 그림 3-74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건강검진.....	149
[ 그림 3-75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질병 치료.....	150
[ 그림 3-76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성 교육.....	151
[ 그림 3-77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고민 상담.....	152
[ 그림 3-78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 한 치료나 치유.....	153
[ 그림 3-79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가족 간 갈등 해결 또는 가정 폭력 해소 프로그램.....	154
[ 그림 3-80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인터넷중독 치료.....	155
[ 그림 3-81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지역 청소년 지원기관 에 대한 정보.....	156
[ 그림 3-82 ]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	157

## 요 약

본 논문의 취지는 대전에서 지역의 위기아동과 가정 밖, 학교밖 청소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상 간 지원 격차나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복지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전 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각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이후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전지역의 위기 아동과 학교밖 및 가정밖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복지 수요와 필요한 복지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충실한 정책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다음으로 각각의 복지 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상대적 정체성과 특성을 구조화함으로써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양 복지 체계 내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동일 대상에 대한 이중적 복지체계의 병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의도치 않은 사각지대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 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제반 문제를 인식할 때의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생애주기적 관점인데 이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상호 연계 확대를 통한 안전망 강화와 성장 후의 사회적 역할까지 고려한 자립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역복지의 객관적인 현황 및 특수성을 고려한 대전형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보다 전향적인 조사 연구 - 정책 개발 및 수립 - 시행 및 보완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전달체계는 달리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상호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면,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가 탈 가정의 주요 원인인 가족과의 갈등과 부모의 방임 방치 문제이고, 둘째는 경계선 장애를 포함한 지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대전이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게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들의 자해·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가 많은 점이며, 넷째로는 디지털 시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상의 가·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아동과 청소년들이 탈 가정화하기 전에 위기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가족과의 갈등 해소 프로그램 및 부모의 방임 방치,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 방안 개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지적, 정신적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임상심리사의 적극 배치와 디딤센터와 같은 전문 치료시설이 설립되어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자해 자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온라인 가·피해 및 범죄 예방교육이 대전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 토대를 갖추는 의미에서 우선 대전형 아동, 청소년 복지시스템이 개발·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제기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지원 정책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실무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복지조직이 소규모인 관계로 정책생산과 같은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연령 차원에서 같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이나 전달체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지체계는 분리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할 중간 지원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 복지 조직 간의 상호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교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기본안을 수립한 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구 단위의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는 곳의 시설 구축과 기존의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모두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에서 야간 상담원이 1명만 배치됨으로 인해

사고 대응이나 응급처치가 어려우므로 인력 증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외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에 대한 이용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뛰어난 디지털 접근성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에서 강조하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특성을 탐색하여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 이를 위해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갖춰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는 바,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및 자치구에 정책 대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실천적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대전형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망을 올바르게 세우고,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대상이 상당수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원래 관련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 있어, 9세에서 17세까지 대상이 중복되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은 18세 이후에도 본인이 받고 있는 보호조치의 연장을 원하면 25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영유아를 제외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복지 수혜자로서의 대상이 중복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그 동안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는 가족의 해체로부터 비롯된 보육과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의 빈곤, 입양, 학대, 보육, 장애 등의 문제가 중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의 중간 연령으로 사회문제로의 연결까지 고려한 가운데 육성과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는 가족정책과 교육정책 등의 미시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면, 청소년복지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사회 복지정책 등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 또 각각의 복지가 이런 차이들로 인해 개별화되면서 다르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는 물론 학문적 영역까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대상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와 그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차이만이 아니라 양 복지체계의 접점을 이루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경계선 상에서 서비스의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근래의 동향을 보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 복지 체계의 대상 연령이 실질적으로 같아지면서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복지전달체계 상의 구분을 뛰어넘는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양 복지 지원체계의 융·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양 복지체계 간의 연령과 형성 배경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연계 가능성이

점점 확산을 뛰어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의 융·복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 속에서도 양 복지체계의 특성과 영역, 그리고 장점들을 어떻게 계속 살려나갈 것인가의 고민 또한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저출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 수요의 확대는 인구 감소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다 확장된 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양육’을 청소년복지는 ‘육성’과 ‘발달’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전통적인 이론과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양 복지체계의 상호 연관성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복지정책 및 실천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혁신적으로 모색하려는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전 또한 대전지역의 위기아동과 가정 밖, 학교밖 청소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상 간 지원 격차나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복지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대전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각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이후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앞서 밝혔듯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확립하는 한편 양 복지체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복지정책 및 실천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혁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의 위기 아동과 학교밖 및 가정밖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복지 수요와 필요한 복지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충실한 정책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한다.

둘째, 각각의 복지 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상대적 정체성과 특성을 구조화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양 복지 체계 내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다.

셋째, 동일 대상에 대한 이중적 복지체계의 병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의도치 않은 사각지대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 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다.

넷째, 대전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통합 모델과 발전 전망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적 토대로서의 조례 제정 등을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들을 통해 대전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대, 방임, 자살, 자해, 비행 등과 같은 위기 요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한편,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선행 문헌 연구는 크게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비교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관련법 상 대상이 중복되고, 시간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아동과 청소년임에도 같이 묶어서 조사하거나 비교 분석을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특히 본 논문의 취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공통적 또는 개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으므로, 취지에 맞는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주무부처도 다르고, 복지 현장은 대부분 민간에서 수탁 받아 운영되어 공공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며, 학계의 연구 풍토 또한 독자적인 영역을 강조해 왔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서 연구를 진행한 곳은 공적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위기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주제만을 다룬 논문이 많은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지 외(2015)<sup>1)</sup>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 이종원 외(2016)<sup>2)</sup> 등이 있다. 위기청소년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논문으로는 황여정 외(2020)<sup>3)</sup>이 있는데 위기를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빈곤, 가출, 가정폭력·학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유해 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중독, 범죄 가·피해, 심리·정서적 위기로 나누어 총 8개 대영역, 14개 세부주제에 대해 123개의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 연구한 논문들은 성이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두상(2021)<sup>4)</sup>, 엄하나 외(2021)<sup>5)</sup>, 장명선(2018)<sup>6)</sup>, 송문호 외(2017)<sup>7)</sup> 등이 있고,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로는 배은경(2017, 2015)<sup>8)</sup>, 배화옥(2017)<sup>9)</sup>, 이은영 외(2016)<sup>10)</sup> 등

---

1) 김영지 외(20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Ⅷ』,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이종원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황여정; 이정민(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김두상(2021),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Vol.29 No1,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5) 엄하나 외(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No3.

6) 장명선(2018),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여대 젠더법학』 Vol.10 No3,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7) 송문호 외(2017),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이 있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의 꿈과 직업의 의미와 가정환경에 따른 꿈의 양상 등에 대한 연구로 박재연 외(2020)<sup>11)</sup>가 있고, 아동 청소년의 낙인 효과 연구로 이화성(2019)<sup>12)</sup>, 외상 경험이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주소희(2016)<sup>13)</sup> 등이 있다.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 중에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들로는 자립지원 관련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격차를 연구한 이상정(2021)<sup>14)</sup>이 있으며, 기초 자차단체의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지출이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김미숙 외(2020)<sup>15)</sup>의 연구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이중구조유형분석을 통하여 정책4 방향을 연구한 김선애(2019)<sup>16)</sup>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복지 조직의 협력 관리 활동이 조직간 협력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우정자(2008)<sup>17)</sup>와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 공공성의 미흡으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불연속성과 파편화, 그리고 중복서비스와 사각지대의 발생,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등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한 김형수(2011)<sup>18)</sup>, 그리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연계성을 검토한 김선애(2011)<sup>19)</sup>의 연구 등이 있다.

앞서 논의했지만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째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해 개념적으로 연속성과 분절성,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등의 특성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객관적

- 
- 8) 배은경(201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문제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No56, 2017. ; 「한국 공공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 변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3 No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9) 배화옥(2017), 「빈곤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상태 인식: 방임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Vol.21 No4.
  - 10) 이은영 외(2016),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42.
  - 11) 박재연 외(2020), 「아동청소년의 꿈에 관한 합리적 질적 연구 -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의 꿈은 다른가?」, 『한국가족복지학』 67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12) 이화성(2019), 「국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낙인 연구 동향분석」, 『청소년학연구』 Vol.26 No10.
  - 13) 주소희(2016), 「외상경험 아동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9 No2.
  - 14) 이상정(202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지원 격차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 296.
  - 15) 김미숙(2020) 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Vol.36 No3,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6) 김선애(2019),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의 이중구조유형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 문화와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 인간자본형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26 No3, 한국청소년학회.
  - 17) 우정자(2008),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조직의 조직영역별 협력관리활동이 조직간 협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1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18) 김형수(2011),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재편방안」, 『광신논단』 Vol.20, 2011. 광신대학교.
  - 19) 김선애(2011),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의 연계방향 연구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 사회, 인적자본의 전략적 연결고리 형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론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로 아동 복지정책과 청소년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볼 때 통합적인 관점에서 상보적인 면과 독자적인 면의 양 측면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와 더불어 문제점들을 잘 짚어줘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안적인 정책으로서의 타당한 방향성은 물론이고 실효성까지 입증된 연구라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연속선상에 있음에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비교한 연구는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전체를 묶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령대를 나누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진취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sup>20)</sup> 물론 이러한 시도는 학문적이건, 실천적이건 서로의 공고한 독자적인 영역을 넘나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저출산, 가족구조의 변화, MZ세대의 등장, 다문화가정의 확대 등에도 기후변화,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등이 예고하는 현실 사회의 변화 속에는 복지 수요의 증가와 다변화는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는 아동과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복지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져야 하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앞서 연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색을 제기하고자 하며 모든 예상되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개선점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중에서도 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새터민 가정 등의 청소년도 있고, 아동복지도 기관이나 시설이 13개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복지전달체계가 가족복지의 하부구조로 편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복지시설 가운데 대상자 및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높아 상호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비교할 필요가 좀 더 많다는 점과, 직접 아동이나 청소년을 데리고 있어야 조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 조사 편의상 주로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학교밖

---

20)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선애(2022), 김선애(2019), 김선애(2011), 김형수(2011), 우정자(2008)와 남미애(2004) 등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실태와 특성, 그리고 지원정책을 비교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특히 아동복지 중에서 적극적인 필요에 의해 최근에 새로 개소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하여는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의 구분에 대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의 구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 논문에서의 구분 방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보통 학교밖 청소년은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가정밖 청소년 중에는 학교 안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 대상을 각 시설 이용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밖 청소년은 시설 이용자로 대부분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하여,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 보다는 가정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안 청소년이건 학교밖 청소년이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전부 가정밖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했음을 밝힌다.

다음은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위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가정밖 청소년 분야 별로 참고할만한 선행 연구를 분석 정리한 내용이다.

## 1. 아동복지 관련 선행 연구

위기아동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보호아동으로 국한되어 대부분 진행되어왔다. 아동양육시설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를 위해 계속 고군분투중이고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으로 종사자들의 어려운 처우에도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장기보호시설이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단기보호시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적극적인 필요에 의해 개소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대상인 학대피해아동과 결손·해체가정의 위기아동 등 긴급보호아동을 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 친부모로부터 원하던 원치 않던 강제로 분리되면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는 매우 중요한 대리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출산저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인구감소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의 욕구로 인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기관들이 생겨남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입소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시설보호는 중요한 대리적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유호석, 2018)<sup>21)</sup>. 따라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결손가정 및 해체가정으로 인하여 양육자로부터 긴급 분리조치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가정을 대리하여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보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설보호의 기능이 단순히 수용·보호 기능이었지만 최근에는 위기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폭력 및 학대피해 등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아동들을 적극 개입하고 심리·정서적 상담 및 치료제공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원가정 복귀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의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에게 더욱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위기아동·청소년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할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 중 심리(정신)장애 분류에 따른 자폐성·언어·학습장애 등에 의한 초기 발달장애 아동들과 품행장애, ADHD, 감정조절 부적응, 사회성결핍 등에 의한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들의 40%이상이 긴급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다(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편 출산감소 및 새로운 아동복지시설의 개소 등의 이유로 위기의 요보호아동들이 기존의 아동양육시설로의 유입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시설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은 시설다기능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각 시설의 고유한 목적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별로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이 충족될 경우 학대피해아동보호, 아동전문상담, 공동생활 가정, 아동주간보호, 방과후 아동지도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설형태는 소속사형태로 권장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보호형태를 변경하고있으며 심리치료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

21) 유호석(2018), 「시설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2015. 08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1년 3월 30일부터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발생의 우려가 높으면 경찰과 지자체(학대전담공무원)는 즉시 원가정과 긴급분리 후에 긴급보호시설에 일시보호하는 제도이다.

공공성이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판단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수립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김미숙 이은주 고윤정의 연구에서는 매뉴얼과 업무 지침의 내용이 모호하여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구슬이, 2023)<sup>22)</sup>.

물론 즉각분리제도 실시이전에도 아동학대피해로 신고접수 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의 경중도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각분리조치를 해왔지만 가해자의 완강한 반대는 물론 아동학대를 인정하지않으면서 끝없는 민원을 통해 기존의 아동학대보호체계를 힘들게 하여왔었다. 즉각분리제도를 강력히 뒷받침하기위해서는 즉각분리한 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은 문제의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야만 정책의 창이 열렸다(박지영, 2022)<sup>23)</sup>. 또한 최근 코로나사태로 늘어나는 실업과 이혼의 증가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를 입은 긴급 요보호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속에서 생활하며 심리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쉼터에서 긴급보호하는 아동의 정원을 넘어서까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된다면, 이미 쉼터에서 긴급보호를 받고있는 아동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긴급아동들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은 학대피해를 입은 긴급아동들을 보호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이며 또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부재도 원인일 수 있다.

---

22) 구슬이(2023),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 입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3) 박지영(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현재 진행되는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체계를 보면, 학대신고접수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긴급입소 연락을 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긴급보호를 하며 대상아동에 대한 사전심리검사,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상담 등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입소 아동들은 대부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동반하기때문에 입소와 동시에 내과,외과,정신과 등 종합적인 병원진료가 적극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이전에는 학대피해를 입은 위기의 아동들의 조치는 시설입소를 한 후, 일정기간 시설보호 후에 장기보호나 원가정복귀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학대피해로 인해 가정의 보호된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을 돕기 위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의 감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봉주 외, 2017)<sup>24</sup>). 따라서 어려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긴급 위기아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 심리치료를 제때에 받지못하였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개소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는 물론 사전심리검사를 통한 심리치료가 입소대상자 모두에게 이루어질수 있게 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일시보호의 역할을 현재 충실히 하고있으며 쉼터의 역할에 일시보호의 역할도 중요한부분이기에 향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존재 목적에도 좀 더 다가가지않을까 생각된다. 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아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긴급일시보호를 하고있으며 입소 후, 사전심리검사와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긴급일시보호시설(1년내외)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장기보호시설이다(유호석, 2018)<sup>25</sup>).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은 좀 더 심도있고 신중하게 다뤄져야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이 입소하는 절차와 입소 후, 아동들에 대한 관리 등 각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따라 운영방법이 모두 다르다. 또한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가정외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보호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필요시 중장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는

---

24) 이봉주 외(2020), 「아동보호서비스 특성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25) 유호석(2018), 같은 책.

시설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윤수경, 2020)<sup>26)</sup>.

이러한 상황속에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개소하여도 표준화된 운영메뉴얼이 없어 운영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도기의 혼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메뉴얼이 제작되어야 하며 향후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방향에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후 성과와 원가정복귀의 적절한 시기 그리고 장기 시설보호를 위한 전원의 결정의 신중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학대피해를 입은 긴급위기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2. 학교밖 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

### 1) 선행연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정부의 예산으로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진행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들은 크게 학업중단예방, 학업 지원정책, 진로(취업)지원 정책, 건강지원 정책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신정란, 2020)<sup>27)</sup>.

학업중단 예방정책 제안은 학업중단 조기 예방정책으로 강진령외 (2013), 배영태(2014), 윤철경 외(2013), 정제영(2013), 오승걸(2013)과 대안교실 학교 설치 및 운영으로 정규석 2014, 정제영 2013, 윤철경 외(2013) 등이 있다.

학업지원정책 제안으로 검정고시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교통비 지원,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습 멘토 및 학습 동기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멘토 지원의 필요에 대한 제안이다(윤철경 외, 2013; 김보기, 2014; 허미경, 2013).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진로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질수 밖에 없으므로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취업 인턴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청소년을 인턴으로 활용하는 방안(김보기, 2014; 조규필,

---

26) 윤수경(2020), 「가정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학교.

27) 신정란(2020),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Vol.06 No3, pp.1~27.

2013), 기업 내 직업체험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인과의 심층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체험비를 지원(김보기, 2014)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요구된다.

다음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상태 파악 방법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의 광범위한 건강상태조사가 필요하다(백혜정 외, 2014, 이준형, 2008, 황순길 외, 2014).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에 의거하여 연령을 만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정신건강문제 추세를 감안하여 정신건강 관련 세부 검사 항목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28)</sup>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만 9세이상 18세이하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이 직접 찾아가는出張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이면(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본인 부담 없이 전국 1,000여 개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밖 청소년은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진행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정책분석보고서(2020-1)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sup>29)</sup>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수를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정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에서 시행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확충을 통한 다양하고 심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 협력 및 통합의 관점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통권 308호, 2019)에서는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꿈이음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이 하향화 되고있는 시점에서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 인정 지원정책과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

28) 신정란(2020), 같은 책.

29) 허민숙(2020),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통권 제151호.

30)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 통권 308호, 2019.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연구 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2022)에서는 핵심 정책제언으로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 지원과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원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sup>31)</sup>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는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심체계로써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2) 학교밖 청소년 연구에 대한 제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2000년대 초반 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는 학교 자퇴원인 또는 학교 중도 탈락에 관한 심리적인 측면들이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 생각에 미치는 영향(구자경, 2003),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김민정, 김혜영, 2001),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금명자, 2008) 등에서 보듯이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연구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학교밖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연구(강진령, 노기호, 김범구, 윤소민, 2013), 학업 중단 후 청소년의 삶과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모형(김동일, 김선옥, 2012), 학교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방안(김민, 2014) 등으로 주로 지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sup>32)</sup>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에 나타났듯이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의 주된 사유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더불어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 방안에 관

---

31) 김희진 외(202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3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1.

한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관한 모형들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전국에 221개소가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운영 현황과 더불어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각기 다른 처우와 고용 형태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221개 센터가 개소되었지만 운영형태, 고용형태, 인력운영 현황 등에 있어 센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 지원 체계, 지원정책의 현장 투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가 행해질 필요성이 있다.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복수 응답)' 질문 문항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어려움으로 선입견, 편견, 무시(26.1%)였다. 이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실천 현장에서도 종사자들이 지역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담당 부서 공무원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들조차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청소년들의 실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도구 등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3. 가정밖 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

가정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앞서 우선 용어의 변천을 살펴보자면, 가출청소년이란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 상쇄를 위해 학계와 현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밖청소년으로의 용어변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밖'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해 온 것을 바탕으로 2021년 2월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가출청소년' 대신 '가정밖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에 가정밖청소년의 선행연구는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가정밖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연구에 사용됨에 따라 세 가지의 용어를 한 대상으로 상정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2010년~2020년까지의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경우 가출이라는 용어에 중점이 맞추어져 대부분 가출의 현상학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가정밖청소년의

용어로 개정된 이후의 연구 동향은 가정밖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에 대한 주제로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가정밖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논의,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등으로 살펴보았다.

## 1)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 (1) 가출청소년에서 가정밖청소년으로의 인식의 전환

2015년 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가정밖청소년 모니터링 결과에서 살펴보면 가출을 반사회적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여 경찰의 단속이나 언론보도에서 가출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1.24.)<sup>33)</sup>

실제로 가출청소년으로 정의되는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가정 내 학대나 폭력등의 문제로 쫓겨나거나 가정해체등의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183`185;백혜정 외, 2015:163) 또한 청소년쉼터나 양육시설등에서 나오거나 퇴소연령이 되어 퇴소하고 갈곳이 없는 일부청소년의 경우(전민경, 2016:46)의 경우 가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출청소년 범주로 묶이기도 한다.

따라서 비행이나 일탈로 대표되는 가출청소년으로 무조건적인 가정복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폭력/방임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으로 가정복귀 또는 자립을 목표로 하는 ‘가정밖청소년’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가정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 (1) 가정밖 청소년 현황

가정밖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그 규모파악이 쉽지 않고 그들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아 상황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조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는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전체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지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전지역 안의 명확한

---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 2017.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 청소년쉼터 내 지원건 수와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출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거라는 추정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 (2) 가정밖청소년의 특성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가족내 문제로 인해 가족 내에서 이탈되었음이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김은정 외, 2019; 김희진 외 2019; 정혜원, 2014; 육혜련, 2017; 백혜정 외, 2009)<sup>34)</sup>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선택이었지만 준비없는 가출인 경우가 많아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가정밖청소년들은 가정문제를 비롯하여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19)<sup>35)</sup>

## 3)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청소년의 자립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된 상태를 의미하며,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춘경 외(2006)은 가정밖 청소년들 입장에서 눈여겨보면 대다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심리, 정서, 학업 단절과 환경적응에 지지층이 없어 가출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제도권에서 벗어난 청소년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제공받지 못하며, 가족 친지의 온정속에서 지도편달 과정을 거치며 자립준비를 할 수 없다.(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sup>36)</sup>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자립은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사실 가정밖청소년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된다고 추측만 될 뿐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어려우리만큼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찾아보기 힘들고 지역별로 시도한 곳이 있지만 이를 전체적인 실태로서 적용하기 힘든 만큼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실태조

---

34) 김은정 외(2019),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지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2(4), pp.195-240.

35) 김희진 외(2019), 『가정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6) 배주미 외(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가출 청소년이 비행이나 일탈을 대표하는 용어였던 만큼 가정밖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도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대상의 상당수가 연령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급주체가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지원이 중복되거나, 또는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많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다음으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의 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지만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묻고 더 나아가 향후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다.

우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특성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집 방법은 대전지역 내의 위기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선택을 하고 각 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선표집을 하였다. 다만 연구 관련 인력과 재정 등의 여건이 여유 있지 않은 편이어서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sup>37)</sup> 조사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상의 총 13개 유형 중 대전지역에 있는 시설 가운데 직접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독자적인 법체계하에서의 유일한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가정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4개 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대전에 없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 수가 들쭉날쭉한 가운데 많지가 않아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각 시설과 연령 별로 조사된 각각의 표본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3-1〉 설문 조사 대상자 분포

---

37) 인력의 측면에서는 본 사업의 연구진이 전문 연구진이 아니라 현장 인력 가운데 연구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 업무와 연구가 병행되다 보니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재정의 측면에서도 설문 조사도 보다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200명의 표본 밖에 수집할 수 없었다.

구 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계
총 수		70명	70명	60명	200명
연령 별 구분	13세 미만	16	6	1	23
	14세~16세	26	16	14	56
	17세~19세	25	38	37	100
	20세 이상	3	10	6	19
주 이용 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주 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개 세부주제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는 바, 7개 영역은 147문항에 걸쳐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일상생활 경험, 폭력 및 학대피해 경험, 심리, 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비행경험 등에 대해 물었고 거기에 덧붙여 정책적 수요와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서비스 내용 및 비교 분석은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의 목적과 목표, 사업 근거, 지원 대상, 지원체계 및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주요 시사점 및 보완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 별 지원 정책의 차이점과 보완해야 될 점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분석 내용과 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분야 별 대상자들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지원 정책의 차이점들을 종합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각각의 정체성 정립과 앞으로의 역할 가능성 및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하였지만, 연구 조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서로 다른 복지 분야의 연구진이 모여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의도했던 대로 연구가 충실하지 못하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우선은 설문조사의 표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표본이 분야 당 최소 100~150명 이상이어야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연구진이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었으며, 충분한 연구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3개 분야를 전부 합쳐 2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약 70년의 역사가 있는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정책과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연구 자원과 환경에 맞춰 연구와 조사를 하려다보니 다양한 아동복지 시설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사 내용에 포함하여 아동복지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본 연구는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면 문제이기에 연구 주제를 잡게 되었지만, 이 연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의 규모 있게 연구 조사되어야 할 중요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공급 주체가 서로 다른 가운데 현재 여성가족부의 존재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주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떠밀리듯 담당부처와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사전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청소년 자살률, 세대 갈등,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들을 볼 때 우리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아동 청소년의 복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장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지원 현황

# 및 정책 비교

## 제 1절 사업 목적 및 근거

### 1. 사업 목적

《표 2-1-1》 사업목적

구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li> <li>- 요보호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환경 및 생활 양식 제공</li> <li>-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li> </ul> </li> <li>○ 학대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행위자와 분리된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li> <li>-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li> <li>- 가정과 학교로 복귀 노력</li> <li>-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지원</li> <li>○ 교육지원</li> <li>○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li> <li>○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li> <li>○ 생활보호(의·식·주)</li> <li>○ 정서적지지 및 심 리상담</li> <li>○ 의료지원</li> <li>○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제공</li> <li>○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li> </ul>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의 2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사업안내』

※ 아동 쪽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중심으로 정리.

각 시설을 비교해 보면 궁극적 목적은 공통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상담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시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위기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 시설은 24시간 숙식 가능한 생활시설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 시설은 이용시설이라는 점이 다르고, 위기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 시설은 사업목적에 가정 복귀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 2. 사업 근거

〈표 2-1-2〉 사업 근거

구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특례법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보호법 등
자치조례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가정밖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
보완점	○ 그동안 대전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조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부 한정되어 제정. ○ 향후에는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심리치유를 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과 개선안 등에 초점을 맞춰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효과적인 조례 제정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제정된 중구와 동구의 조례 제정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 안된 3개구의 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함	○ 대전시의회에서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던 '대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대전 청소년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가정밖청소년 복지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현장조사(2023) 등과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이하 모든 표의 내용 근거는 같음)

어렵게 조례 제정은 이루어졌으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남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로 가정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실태조사’가 명문화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조례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 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제2절 지원 방식과 내용

## 1. 지원 대상

〈표 2—2-1〉 지원 대상

구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li> <li>○ 희망자에 한해 25세까지 계속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세이상~24세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세 이상 ~ 24세이하</li> </ul>
성장 환경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해체가정의 요보호아동</li> <li>-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해당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li> </ul> </li> <li>○ 학대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로부터 학대피해를 받은 후 긴급 분리조치 된 아동</li> </ul> </li> <li>○ 아동보호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행위나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 신청</li> <li>- 소년법에 의해 보호위탁된 19세 미만 아동</li> <li>-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아동</li> </ul> </li> <li>○ 아동자립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이거나 24세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li> <li>○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li> <li>○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밖 청소년</li> <li>○ 갈등가정 청소년</li> <li>○ 노숙청소년</li> <li>○ 배회청소년</li> <li>○ 가출, 귀가 반복위기청소년</li> <li>○ 해체가정 청소년</li> <li>○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갈 곳 없는 청소년</li> </ul>

비교하면 정서행동 장애, 학대 피해, 탈학교 등의 위기 상황은 모든 위기 아동, 청소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중요하게 나타나는 차이는 위기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이다.

아동시설과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이 분명한 편이다. 각 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차이가 없어도 대상의 연령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동 시설 입소는 18세 미만, 청소년 시설 입소는 15세 ~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2021년도에 희망자는 2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점차 줄어들거나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 2. 지원체계

### 1) 시설 규모

#### (1) 아동시설

《표 2-2-2》 아동시설 현황 (2023.10 기준)<sup>38)</sup>

(단위:개소)

현황	계	*아동양육 시설	*학대피해 아동쉼터	공동생활가 정	일시보호	보호치료	자립지원
전국	392	231	135	520	8	10	8
대전	19	11	6	15	<u>개소준비중</u>	1	1

#### (2) 학교밖 청소년

《표 2-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23.10 기준)

(단위:개소)

현황	계	비 고
전국	2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광역센터 1곳, 각 시군구센터 1곳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대전은 현재광역센터와 시군구 2곳만 배치되어 비율로 볼 때,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배치되어 있다.
대전	3	

#### (3) 가정밖 청소년

《표 2-2-4》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23.10 기준)

(단위:개소)

현황	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전국	144	32	64	38	10
대전	7	2	2	<u>2</u>	1

(단위:개소)

38)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2023.

## 2) 전달체계

〈표 2-2-5〉 전달체계

구 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유 형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sup>39)</sup>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회관,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일시청소년쉼터(아동형)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유형 수	13	1	5
광역 지원체계	없음	있음	없음

현재 대전지역에는 각 복지 분야의 유형 별 시설 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하다. 지역차원에서 연구 조사, 정책 생산,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갖춘 곳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불과하며 아동과 청소년은 없다.

각 분야 별로 나누어 보면 아동 복지시설의 경우 유형은 13개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대전에는 없는 유형이 많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sup>40)</sup>은 아래 표와 같으나 각 센터의 시설과 접근성 등의 여건은 지역과 센터의 현황에 따라 상이하다. 운영 인력 또한 시·도 센터는 6~8명 이상, 시·군·구 센터는 2~6명 이상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 채용 가능 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예산 지원액의 상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정밖 청소년 시설의 경우도 지적, 정신적 장애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없다.

〈표 2-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구분	세부 기준
----	-------

39) 아동복지법 52조 및 53조 2 참조

40)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매뉴얼

<b>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명 이상(시·도 센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li> <li>• 2명 이상(시·군·구 센터) (가형: 4명 이상, 나형: 3명 이상, 다형: 2명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 채용 및 조정 가능</li> </ul>
<b>면적</b>		• 시·도 센터 250㎡ 이상, 시·군·구 센터 150㎡ 이상
<b>시설 공간</b>	<b>사무실</b>	<b>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공간 -칸막이가 없어도 전용 공간으로 인정</li> </ul>
	<b>상담실</b>	<b>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원활한 상담과 개인 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현재 공용상담실을 사용하는 센터에서는 전용상담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li> </ul>
	<b>교육실</b>	<b>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마련</li> </ul>
	<b>상담대기실 및 휴게실</b>	<b>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대기실과 휴게실의 공동 사용 가능</li> </ul>
<b>기타</b>	<b>위치</b>	•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
	<b>설비</b>	•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필요시) 취사 설비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할 경우, 인력 기준에 센터장 미포함

또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기능과 역할이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한 기관 안에서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의 여건에 따른 규모의 유형이 정해져 있을 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징, 이행경로, 시기, 주위 환경, 건강 등의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한 곳에서 지원서비스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비스 별 다양한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학교밖지원센터는 광역지원체계로서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광역센터로서 시·군·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구센터 종사자교육, 시·군·구센터 컨설팅,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 시·도 단위 정책 수요 조사·분석 및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의 기능과 더불어 광역 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청소년안전망 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및 직업 훈련, 시·도 단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등이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개소된 자치구 센터(3개소)의 직접서비스 기능을 수행에 많은 비중을 편성함에 따라 광역 기능 수행의 한계가 있다.

### 3. 지원 서비스

《표 2-2-7》 지원서비스

구분	위기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발굴	아동학대피해로 112신고 후, 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과 경찰 현장 투입 후 긴급 분리조치 결정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가정법원 등과 의 연계, 마취학장기결석 관리 점담기구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거리상담 전문요원의 아웃리치 활동(사이버 아웃리치 포함) 타키퍼, 1388, 경찰서,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보호	의·식·주 제공,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치료,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무상급식, 무료 건강검진, 경제지원, 신체적·정서적 발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수당 지원 등	의·식·주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과 사회 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상담	정서함양, 자존감, 사회성 등 정신건강지원 상담	심리·정서검사 등 정신건강 지원, 보호자 상담	위기 개입 상담, 심리·정서 상담, 사례관리
치료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치료인력배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예정 - 임상심리사 배치	전문 치료기관 연계
교육	생활기술교육, 학대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경제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검정고시 지원, 문화·예술·체육·봉사활동 등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교육, 독립생활기술교육, 성교육, 노동인권교육, 경제교육, 학업지원, 문화예술 교육 등
자립지원	진로교육, 디딤씨앗(CDA) 사업, 자립 정착금 지원,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적성검사,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진로 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	진로지도, 자립생활 점검, 독립 주거 연계, 일자리 알선 등

각 분야의 발굴, 보호,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은 대상 별 특성의 차이로 인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피해아동과 은둔형 외톨이 등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학교밖 청소년쉼터는 임상심리사를 배치<sup>41)</sup>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쉼터의 경우 정서·행동장애 또는

41) 아동양육시설에도 임상심리사가 필요한데 배치가 의무는 아님

경계선 장애 청소년이 입소생 중 최소 30%에 달하는데도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42)

학교밖 청소년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은 가정밖의 아동, 청소년에게도 지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의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을 대비해 볼 때 청소년복지의 지원은 비슷한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구분에 상관없이 학교밖·가정안, 학교안·가정밖, 학교밖·가정밖으로 세분하여 복지 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2-2-8》 대전시의 각 구별 청소년 사업 중 복지사업<sup>43)</sup>

구분	청소년 사업 수	청소년 복지사업 수	청소년 복지사업 내용
동구	24건	5건	청소년증 신규 및 재발급,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중구	14건	2건	청소년증, 청소년 특별지원,
서구	15건	3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증 발급
유성구	31건	3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대덕구	55건	2건	청소년증, 청소년 특별지원,

자치구 별로 진행되는 청소년 사업 중 복지사업의 비율이 현저하게 적으며 대전시 전역에 대한 아웃리치 경험으로 볼 때 가정밖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복지사업이 적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제3절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과 보완점

42) 김범구(2018), 「가정밖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 수준과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43) 대전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2020.에서 재구성

## 1. 운영 현황

### 1) 위기 아동

《표 2-3-1》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실적(※1일평균보호아동수): 대전지역<sup>44)</sup>

(단위:건,

쉼터 / 년도 (※1일평균보호아동수)	2020		2021		2022	
	연인원	※1일평균	연인원	※1일평균	연인원	※1일평균
기쁜우리아동쉼터(남)	2,547	7.0	2,527	6.9	1,322	3.6
좋은아웃쉼터(여)	2,488	6.8	2,300	6.3	1,993	5.5
민들레쉼터(남)	2,258	6.2	2,067	5.7	1,039	2.9
민들레플러스쉼터(여)	2,260	6.2	2,280	6.3	1,543	4.2
대전희망쉼터(남)	*2022.05 개소				870	3.7
푸르니쉼터(여)	*2022.12 개소				29	1
계(평균)	9,553	6.6	9,174	6.3	6,796	3.9

명)

### 2) 학교밖 청소년

《표 2-3-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1년)<sup>45)</sup>

(단위: 명)

구분	발굴 인원	사례 관리	성과 인원				성과비율 (%)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향상	실인원	
대전시	416	387	104	85	14	160	41.3%
서 구	350	425	189	43	17	211	49.6%
유성구	251	510	173	65	23	231	45.3%
합 계	1,017	1,322	466	193	54	602	45.5%

44)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2023.

45) 청소년안전망(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표 2-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2년)

(단위: 명)

구분	발굴 인원	사례 관리	성과 인원				성과비율 (%)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	총인원	
대전시	398	425	169	61	17	247	58.1%
서 구	399	424	157	54	17	228	53.8%
유성구	296	545	162	68	21	251	46.1%
합 계	1,093	1,394	488	183	55	726	52.1%

《표 2-3-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3년10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발굴 인원	사례 관리	성과 인원				성과비율 (%)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	총인원	
대전시	515	472	141	34	1	176	37.3%
서 구	419	362	174	34	22	230	63.5%
유성구	425	393	149	2	6	157	39.9%
합계	1,359	1,227	464	70	29	563	45.9%

### 3) 가정밖 청소년

《표 2-3-5》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 현황(2020년~2022년,3년)

(단위:건, 명)

쉼터 / 년도 (※1일평균보호청소년수)	2020		2021		2022	
	연인원	※1일평균	연인원	※1일평균	연인원	※1일평균
일시이동형쉼터	1,906	5.2	6,047	16.6	7,212	19.8
일시고정형쉼터	7,651	21	6,202	17	12,517	35
남자단기쉼터	3,683	10	2,421	7	2,237	6
여자단기쉼터	2,219	6	2,220	6	2,570	7
남자중장기쉼터	1,870	5.1	1,790	4.9	1,744	4.8
여자중장기쉼터	2,537	6.9	2,675	7.3	2,102	5.7
자립지원관	*2022. 7월부터 사업 개시				1,421	7.7
계(평균)	19,866	55	21,355	59	29,803	82

## 2. 애로사항 및 보완할 점

〈표 2-3-6〉 애로사항 및 보완할 점

구 분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	있음	없음	없음
광역 지원체계	없음	있음	없음
종사자 증원	아간보호 인력 1명 추가 증원	추가 인력 배치 없이 공모사업의 증가로 업무 과중 타개를 위해 인력 증원 필요	아간보호 인력 1명 추가 증원, 아웃리치 인력 확대, 자립 전담요원 배치
실태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비정기적 진행	대전에서 조사된 적 없음
발굴 강화	아동학대피해 적극신고 홍보 및 학대예방교육 강화	예상 학교밖청소년 수 대비 센터 등록인원은 17% 정도 수준. 발굴 노력 필요	아웃리치 거점 활동은 현재 대전에서 4곳, 나머지 지역은 패트roller 활동, 거점활동 확대 필요
예산 확대	호봉100% 적용(복지부기준) 및 명절수당, 시간외 수당 현실화.	시간외수당, 교통비, 자격 수당 전무함에 따른 종사자 처우의 현실화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명절 수당 현실화
기 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이 아닌 설립목적에 맞는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시설이 되어야 함. *대전지역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시급히 설치되어야 함.	구 센터가 없는 3곳에 신속한 설치 필요. 급조되지 않은 중장기적인 지원정책 개발 필요. 청소년들의 탈학교 과정에서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발.	청소년쉼터의 역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중심의 유형 개편 필요. 지적, 정신적 장애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쉼터 설치 필요. 종사자 인권보호 확대. 주요 정책 개발 시 사전 논의구조에 현장 전문가 참여 필요.

현재 청소년복지 전담 공무원은 없으며, 아동의 경우 전담공무원은 있으나 전문성 강화, 역할 조정과 협업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분야 별 광역단위 지원체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만 있고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 시설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대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자치구 중 구 센터가 없는 곳이 3곳이나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 센터는 구 센터가 없는 지역의 현장을 같이 보느라 지원 역할이 축소된 점이 있는데, 구 센터가 완비되면 시 센터 본영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쉼터의 경우 현재 야간보호 상담원이 1명 뿐인데, 2명으로 늘려야 비상시(긴급 의료, 폭력 등의 범죄 발생 등) 상황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보호 인력이 필요 없다.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에서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2019년 전국 기준으로 244,191명으로 추정되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인원은 39,293명에 불과<sup>46)</sup>하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현재 대전에서 아웃리치 거점 활동을 1곳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간헐적으로 패트roller를 돌고 있는 수준으로 거점 활동을 보다 확대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그밖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의 개발 및 주요 정책 결정 시 사전 논의단계에서 부처 현장 전문가의 참여 보장, 그리고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쉼터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각 분야 별 특수성은 인정되나 특수성이 대상에 대한 지원의 차별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위기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지원 내용의 격차가 크므로 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

46) 하형석(2020), 「학교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P.11.

# 제3장 복지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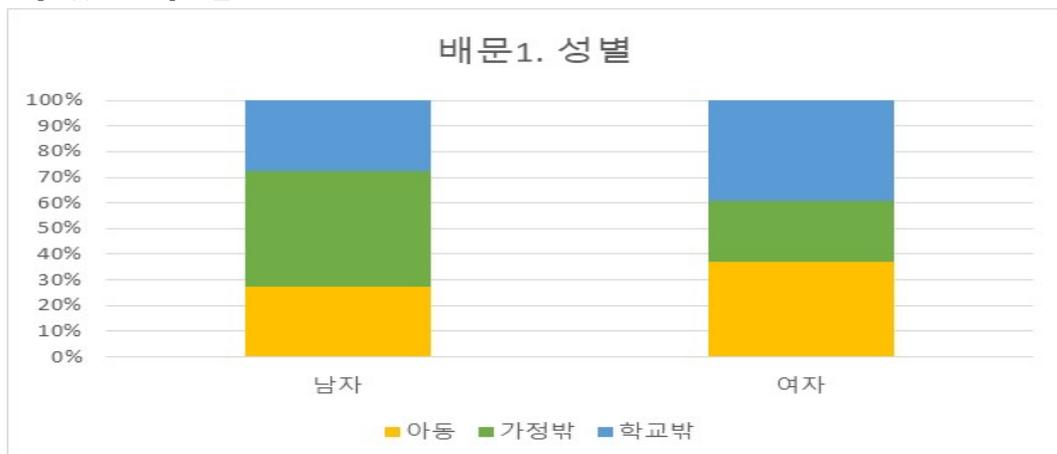
다음의 설문조사 내용은 위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가정밖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7개 영역, 18개 세부주제로 나누어 147문항에 걸쳐 조사하였다. 7개 영역은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일상생활 경험,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비행 경험 등에 덧붙여 정책적 수요와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sup>47)</sup>의 설문지를 기초로 대전지역의 특성과 폭력가해 경험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제1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일반적 특성

#### 1) 성별

[그림 3-1-1] 성별



47) 황여정 외(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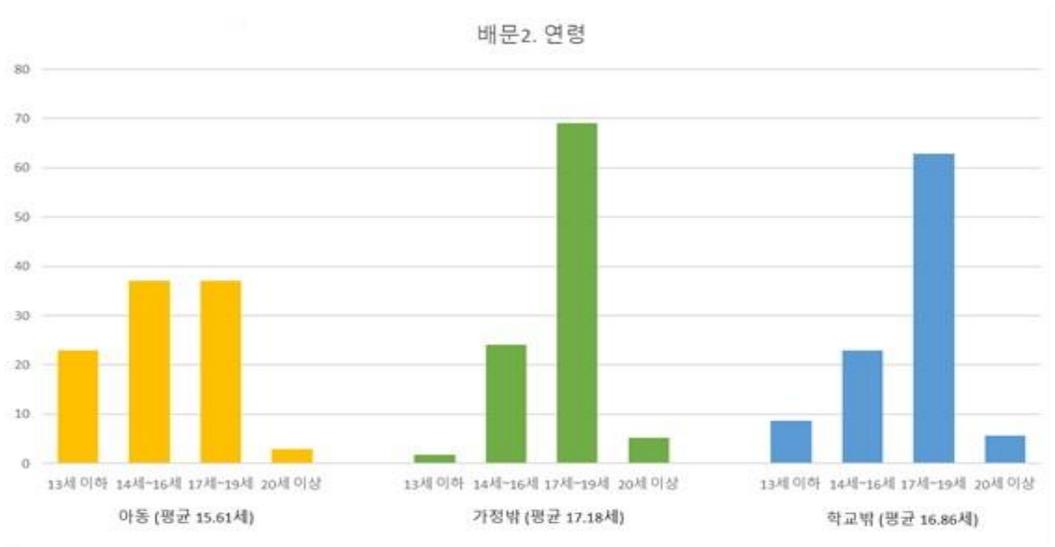
〈표 3-1-1〉 성별

배문1. 성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합계	87	44.6%	108	55.4%	195
아동	26	37.1%	42	60.0%	68
가정밖	35	60.3%	22	37.9%	57
학교밖	26	37.1%	44	62.9%	70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대한 응답은 여자가 108명(55%)으로 남자 87명(45%)보다 10%가 더 많이 응답하였다. 아동의 경우 여자가 42명(62%)으로 남자 26명(38%) 보다 16명이 많고, 가정밖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가 35명(61%)이고 여자가 22명(39%)으로 남자가 13명이 더 많으며, 학교밖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가 44명(63%)에 남자 26(37%)명으로 여자가 18명이 더 많다.

## 2) 평균연령

[그림 3-1-3] 평균연령



〈표 3-1-2〉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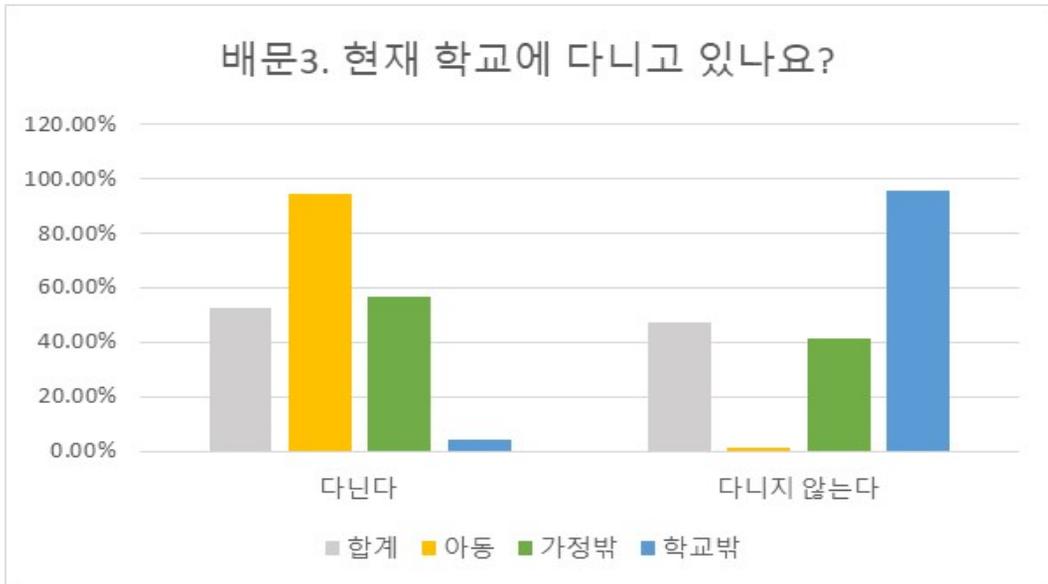
배문2. 연령			
분류	연령범주	빈도	%
전체 (평균16.55세)	13세 이하	23	11.6
	14세~16세	56	28.3
	17세~19세	110	55.6
	20세 이상	9	4.5
	전체	198	100.0
아동 (평균15.61세)	13세 이하	16	22.9
	14세~16세	26	37.1
	17세~19세	26	37.1
	20세 이상	2	2.9
	전체	70	100.0
가정밖 (평균17.18세)	13세 이하	1	1.7
	14세~16세	14	24.1
	17세~19세	40	69.0
	20세 이상	3	5.2
	전체	58	100.0
학교밖 (평균16.86세)	13세 이하	6	8.6
	14세~16세	16	22.9
	17세~19세	44	62.9
	20세 이상	4	5.7
	전체	70	100.0

유효한 설문 대상자 198명을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13세 미만이 23명으로 11.6%이고, 14~16세가 56명으로 28.3%이었으며, 17~19세가 110명으로 55.6%로 과반이 넘었고, 20세 이상이 9명으로 4.5%였다. 이중 14~19세까지가 166명으로 84%에 달한다. 이는 분야별로 나누어 봐도 대상자 중 14~19세 사이가 아동이 52명으로 74.2%, 가정밖 청소년이 54명으로 93.1%, 학교밖 청소년이 60명으로 85.8%였다.

분야별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아동이 15.61세, 가정밖 청소년이 17.18세, 학교밖 청소년은 16.86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체 평균은 16.55세였다.

### 3) 재학여부

#### [그림 3-3] 재학 여부



〈표 3-1-3〉 재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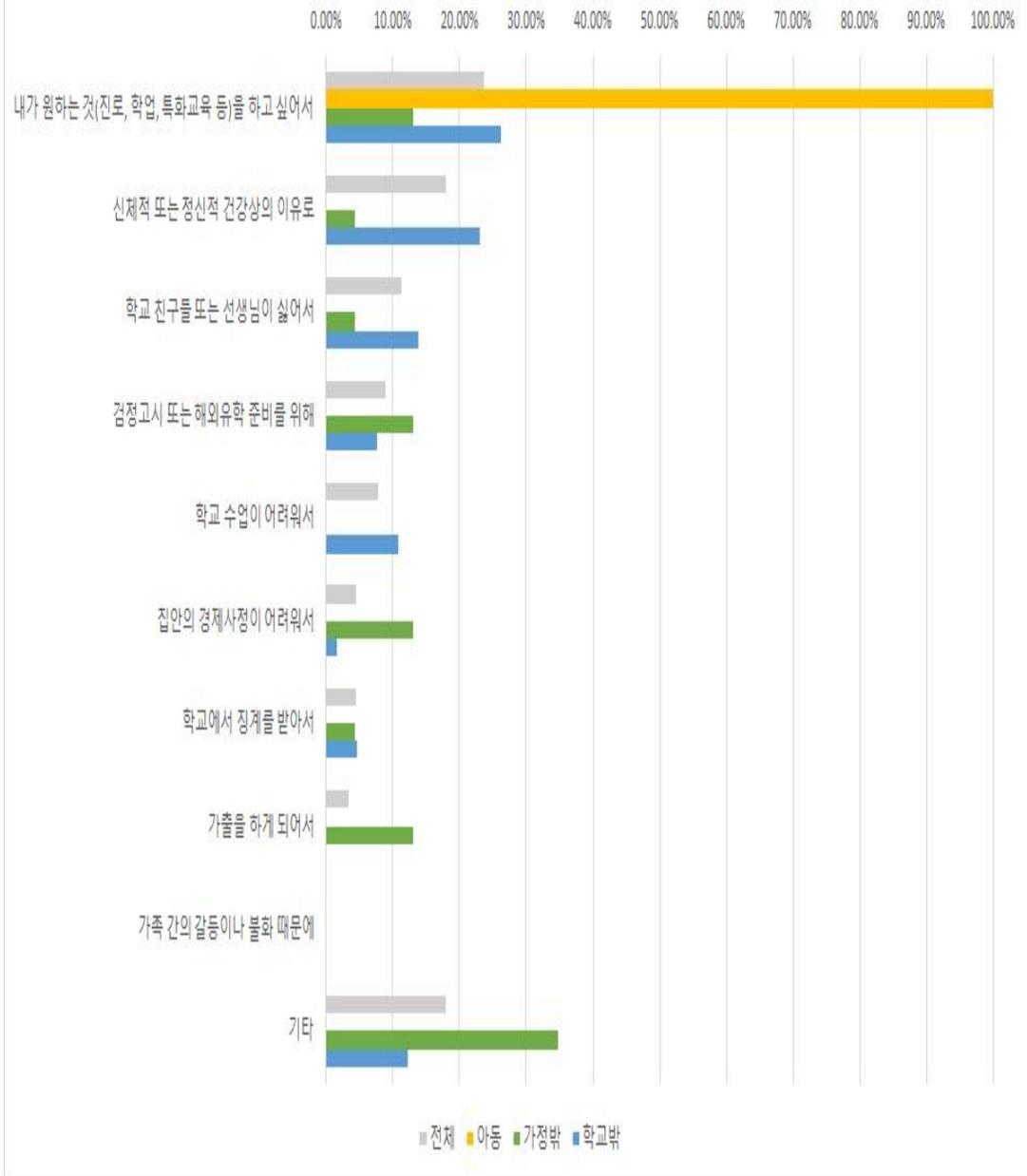
배문3.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02	52.6%	92	47.4%	194
아동	66	94.3%	1	1.4%	67
가정밖	33	56.9%	24	41.4%	57
학교밖	3	4.3%	67	95.7%	70

조사대상자의 재학 여부는 아동의 경우 1명 빼고 모두 66명(99%)이 재학생이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33명(58%)이 재학생이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3명(5%)만이 재학생이다.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이 67명(9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밖청소년이 24명(43%)이며, 아동은 대부분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학업 중단 이유

[그림 3-4] 학교 중단 이유

### 배문3-1. 학업중단이유



〈표 3-1-4〉 학교 중단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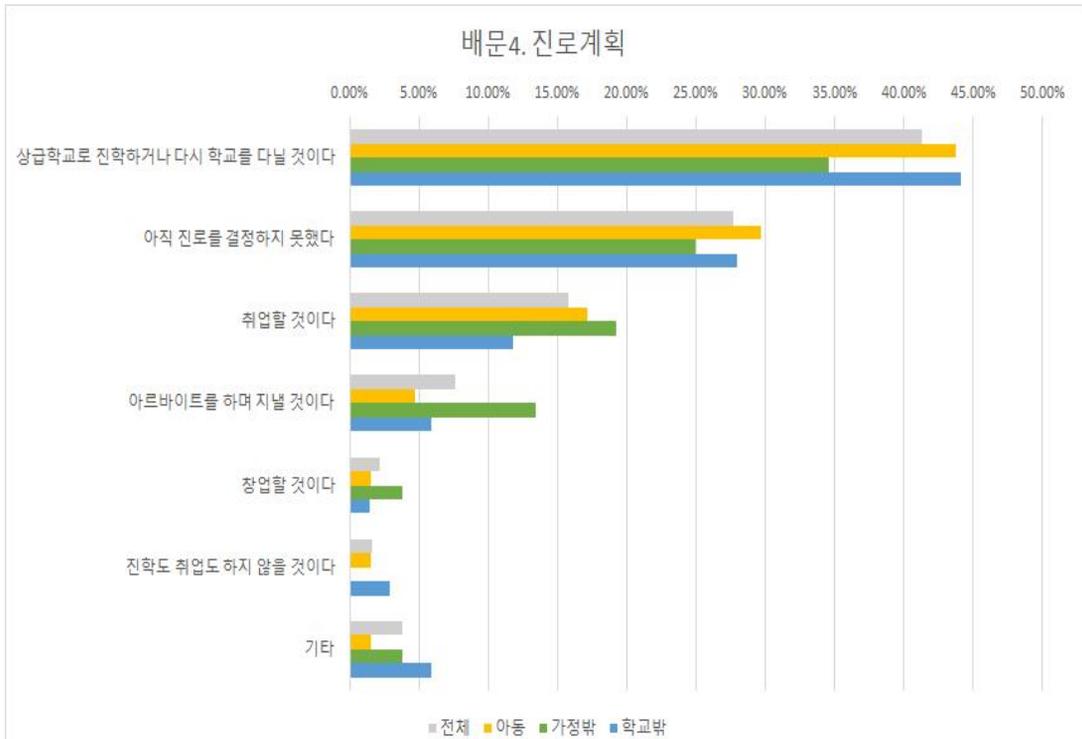
배문3-1. 학업중단이유				
	합계	아동	가정박	학교박

내가 원하는 것(진로, 학업, 특화교육 등)을 하고 싶어서	빈도	21	1	3	17
	%	23.60%	100%	13.04%	26.15%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빈도	16	0	1	15
	%	17.98%	0%	4.35%	23.08%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	빈도	10	0	1	9
	%	11.24%	0%	4.35%	13.85%
검정고시 또는 해외유학 준비를위해	빈도	8	0	3	5
	%	8.99%	0%	13.04%	7.96%
학교 수업이 어려워서	빈도	7	0	0	7
	%	7.87%	0%	0%	10.77%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빈도	4	0	3	1
	%	4.49%	0%	13.04%	1.54%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빈도	4	0	1	3
	%	4.49%	0%	4.35%	4.62%
가출을 하게 되어서	빈도	3	0	3	0
	%	3.37%	0%	13.04%	0%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 때문에	빈도	0	0	0	0
	%	0%	0%	0%	0%
기타	빈도	16	0	8	8
	%	17.88%	0%	34.78%	12.31%
전체	빈도	89	1	23	65

조사대상자의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17명(27%)로 가장 높으며, 15명(23%)는 건강상의 이유가 두 번째이며, 친구나 선생님이 싫어서가 9명(14%)이고, 기타가 8명(13%)이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집안 경제문제가 3명(13%)이고, 검정고시와 해외유학준비가 3명(13%), 그리고 가출을 해서 3명(13%)이고 기타가 8명(35%)이다. 아동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1명(100%)임.

## 5) 진로계획

[그림3-5] 진로계획



배문4. 진로계획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시 교를 다닐 것이다 (복학, 진학, 검정고시 등)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취업할 것이다(부모 님이 하는 일을 도우며 돈을 받는 것 포함)		아르바이트 를 하며 지낼 것이다		창업할 것이다(사업 , 자영업 등)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기타		전 체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합계	76	41.30	51	27.72	29	15.76	14	7.61	4	2.17	3	1.63	7	3.80	184
아동	28	43.75	19	29.69	11	17.19	3	4.69	1	1.56	1	1.56	1	1.56	64
가정 밖	18	34.62	13	25.00	10	19.23	7	13.46	2	3.85	0	0.00	2	3.85	52
학교 밖	30	44.12	19	27.94	8	11.76	4	5.88	1	1.47	2	2.94	4	5.88	68

《표 3-1-5》 진로 계획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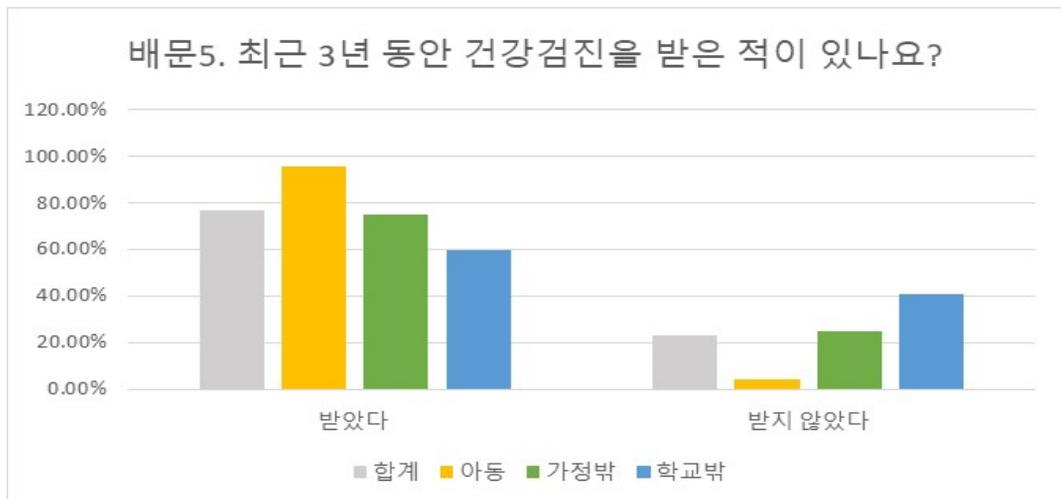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대상자 중 진학 계획이 가장 많은 76명으로 41.3%였고 다음이 진로 미결정이 51명(27.72%), 취업이 29명(15.76%), 아르바이트 14명(7.61%)의 순이었다.

분야 별로 나누어 보아도 순위는 똑같은데 진학 계획은 아동의 경우 28명(44%)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제일 많은 30명(45%)이었으며,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제일 적은 18명(35%)이었다. 취업, 아르바이트, 창업 등의 일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전체가 47명(25.54)인데, 아동이 14명(23.44%), 가정밖 청소년이 19명(36.54), 학교밖 청소년이 13명(19.11)이었다. 진학에 대한 관심은 학교밖 청소년이 제일 높았고 일할 계획은 가정밖 청소년이 제일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 진학이나 일할 계획 등의 진로를 설정한 경우는 전체 123명(66.84%)이었으나,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경우도 전체 54명(29.35%)이 되었으며, 아동이 20명(31.25%), 학교밖 청소년이 21명(30.88%), 가정밖 청소년 13명(25%)의 순이었다.

## 6) 건강검진

[그림3-6] 건강검진



《표 3-1-6》 건강검진

배문5.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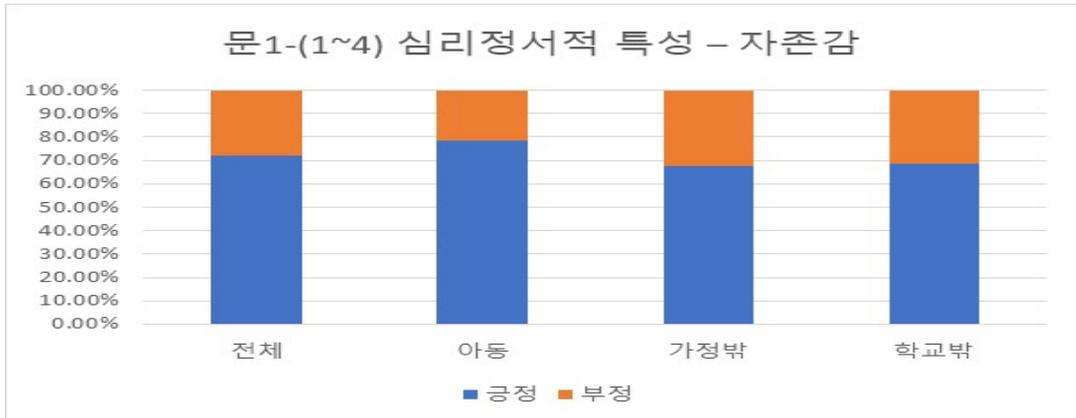
	빈도	%	빈도	%	빈도
합계	148	76.7%	45	23.3%	193
아동	65	95.6%	3	4.4%	68
가정밖	42	75.0%	14	25.0%	56
학교밖	41	59.4%	28	40.6%	69

조사대상자의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의 응답이 148명(76.0%)이고 받지 않은 경우도 45명(23.0%)이 된다. 아동의 경우, 65명(96.0%)으로 거의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았고,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42명(75%)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41명(60%)으로 낮은 편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28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14명(25%)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특성

### 1) 자존감

[그림 3-7] 자존감



〈표 3-1-7〉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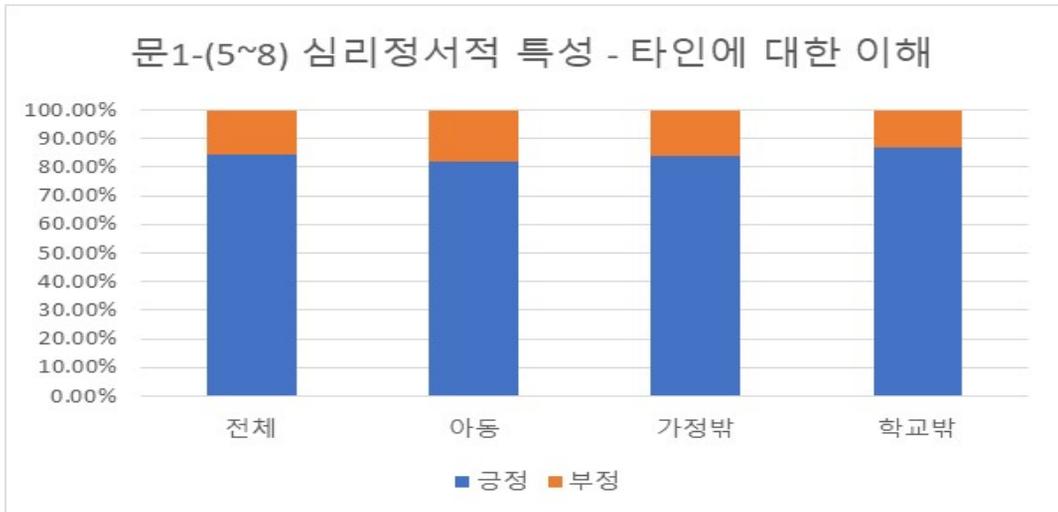
문1-(1~4)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					
	긍정응답 평균빈도	%	부정응답 평균빈도	%	합계
전체	142.25	71.84%	55.75	28.16%	198

아동	55	78.57%	15	21.43%	70
가정밖	39.25	67.67%	18.75	32.33%	58
학교밖	48	68.57%	22	31.43%	70

심리적 특성 중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등의 자존감을 묻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보면 아동이 평균 55명(78.57%)으로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평균 48명(68.57%)이고, 가정밖 청소년은 평균 39.25명(67.67%)으로 청소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 2)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림 3-8] 타인에 대한 이해



〈표 3-1-8〉 타인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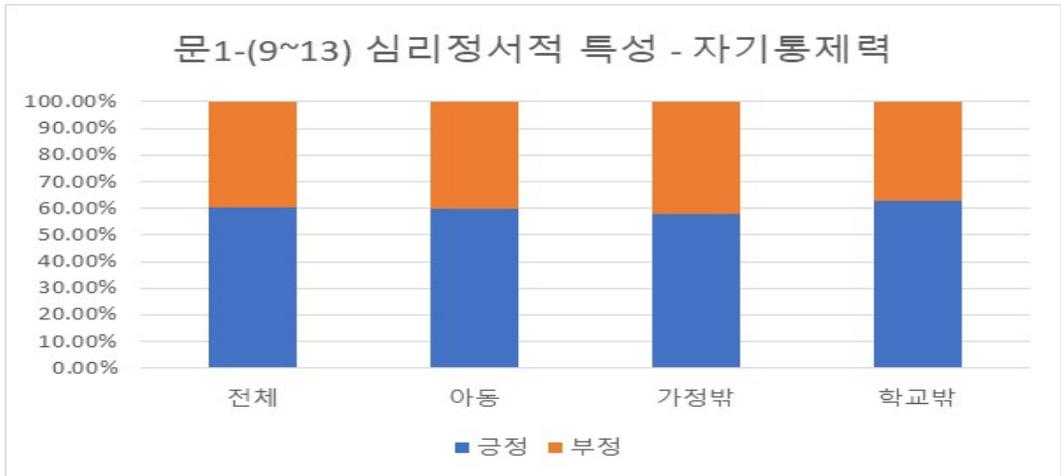
	긍정응답 평균빈도	%	부정응답 평균빈도	%	합계
전체	167	84.34%	31	15.66%	198
아동	57.25	81.79%	12.75	18.21%	70

가정밖	48.75	84.05%	9.25	15.95%	58
학교밖	61	87.14%	9	12.86%	70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등의 타인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아동과 청소년들 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학교밖 청소년은 평균 61명(87.14%)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가정밖 청소년이 평균 48.75명(84.05%), 아동이 평균 57.25명(81.79%)의 순이었다.

### 3) 자기 통제력

[그림 3-9] 자기 통제력



〈표 3-1-9〉 자기통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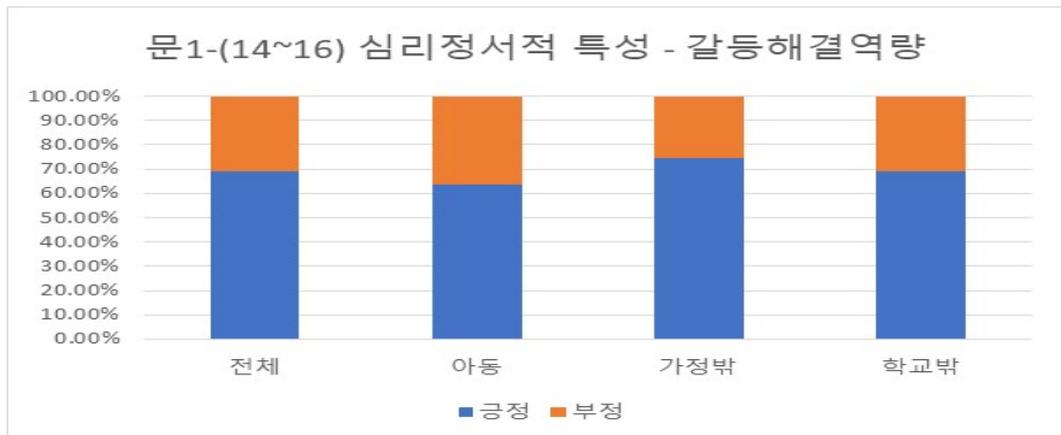
문1-(9~13) 심리정서적 특성 - 자기통제력					
	긍정응답 평균빈도	%	부정응답 평균빈도	%	합계
전체	119	60.22%	78.6	39.78%	197.6
아동	41.6	59.77%	28	40.23%	69.6

가정밖	33.6	57.93%	24.4	42.07%	58
학교밖	43.8	62.57%	26.2	37.43%	70

“나는 무슨 일이든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용 나중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  
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나는 화가 나  
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등의 자기 통제력을 묻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답 역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밖 청소년이 평균 43.8명(62.5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이 평균 41.6  
명(59.77%)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이 평균 33.6명(57.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 4) 갈등해결능력

[그림 3-10] 갈등해결능력



〈표 3-1-10〉 갈등해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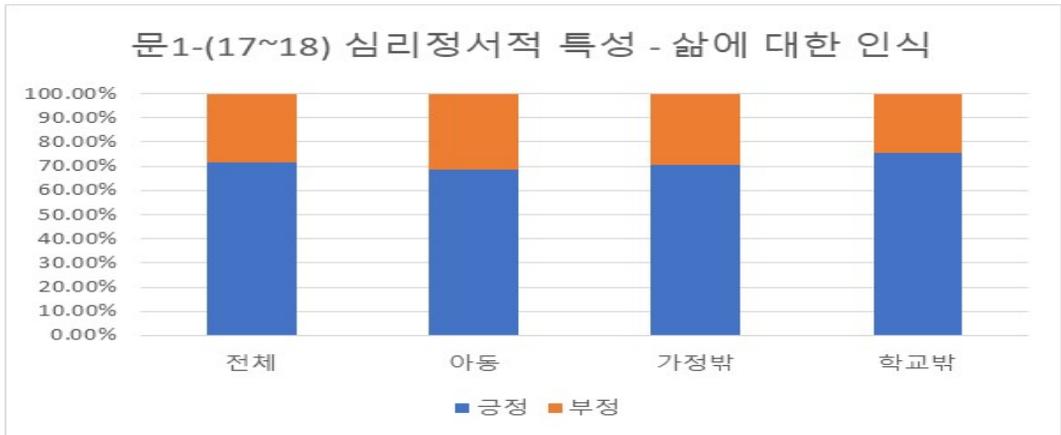
문1-(14~16) 심리정서적 특성 - 갈등해결역량					
	긍정응답 평균빈도	%	부정응답 평균빈도	%	합계
전 체	136.33	68.86%	61.67	31.14%	198
아 동	44.67	63.81%	25.33	36.19%	70

가정밖	43.33	74.71%	14.67	25.29%	58
학교밖	48.33	69.05%	21.67	30.95%	70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들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갈등해결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은 가정밖 청소년이 평균 43.33(74.71%)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평균 48.33명(69.05%)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이 평균 44.67명(63.81%)이었다. 가정밖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접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5) 삶에 대한 인식

[그림 3-11] 삶에 대한 인식



〈표 3-1-11〉 삶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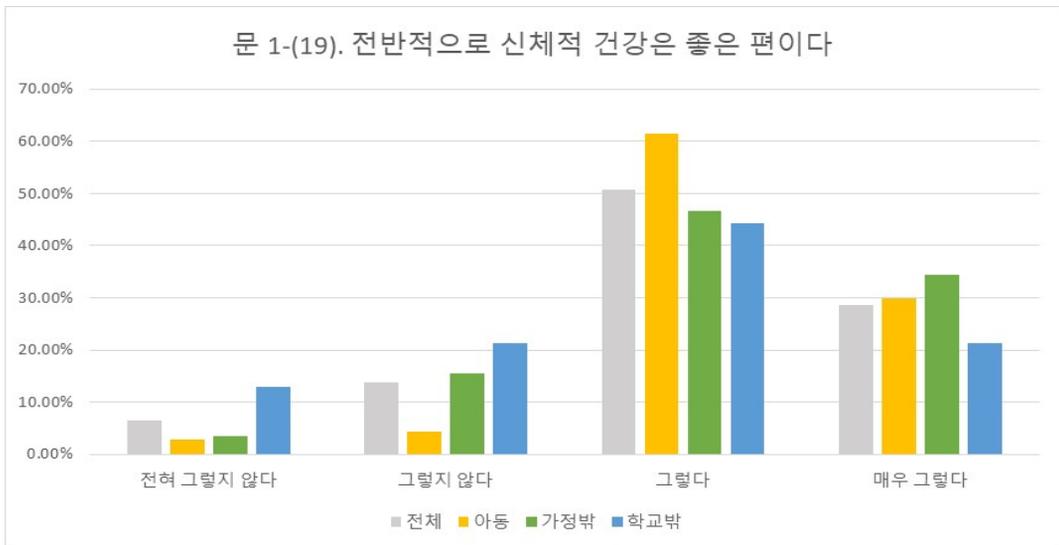
문1-(17~18) 심리정서적 특성 - 삶에 대한 인식					
	긍정응답 평균빈도	%	부정응답 평균빈도	%	합계
전체	142.00	71.72%	56.00	28.28%	198
아동	48.00	68.57%	22.00	31.43%	70
가정밖	41.00	70.69%	17.00	29.31%	58

학교밖	53.00	75.71%	17.00	24.29%	70
-----	-------	--------	-------	--------	----

“나는 열심히 일하면 항상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의 삶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큰 차이는 없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한 순서대로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 평균 53명(7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밖 청소년이 평균 41명(70.69%), 아동이 평균 48명(68.57%)의 순이었다.

## 6) 신체적 건강

[그림 3-12] 신체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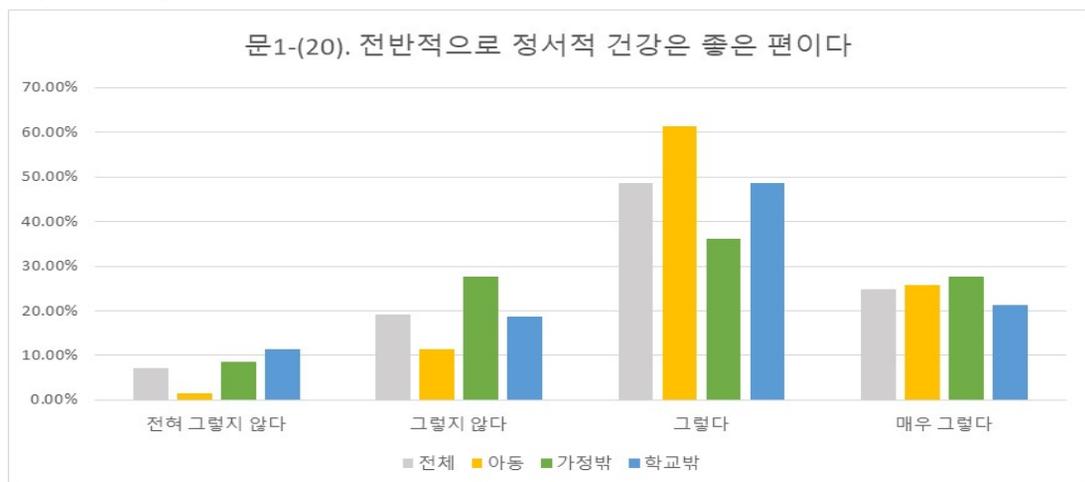
〈표 3-1-12〉 신체적 건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3	6.4%	27	13.7%	101	50.8%	56	28.6%	197
아동	2	2.9%	3	4.3%	43	61.4%	21	30.0%	69
가정밖	2	3.4%	9	15.5%	27	46.6%	20	34.5%	58
학교밖	9	12.9%	15	21.4%	31	44.3%	15	21.4%	70

신체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이 전체적으로 157명(79.4%)으로 나타났고, 분야 별로 나누어 보면 아동은 92.4%, 가정밖 청소년은 81.1%, 학교밖 청소년은 65.7%로 나타났다. 아동의 긍정적인 답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은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상태와 원인에 대해 추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7) 정서적 건강

[그림 3-13] 정서적 건강



〈표 3-1-13〉 정서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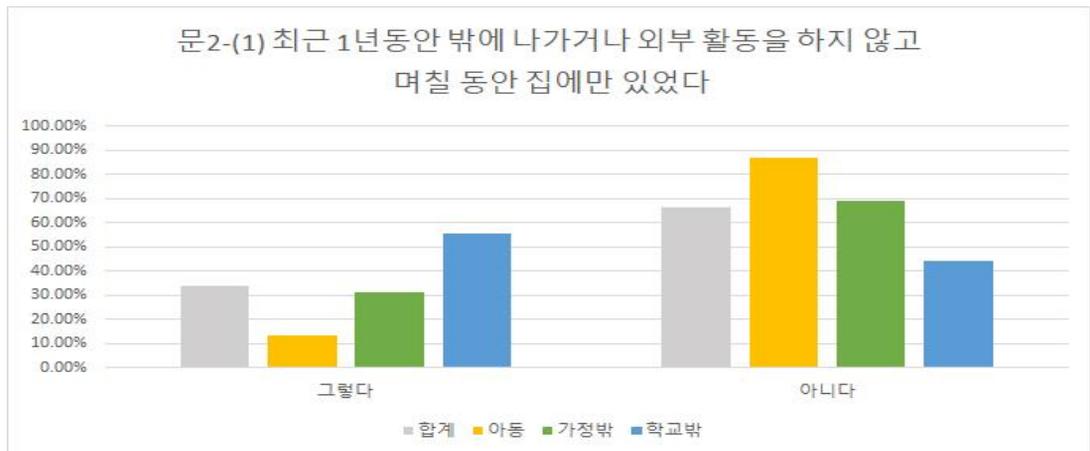
문1-(20).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4	7.2%	37	19.2%	98	48.7%	49	24.9%	198
아동	1	1.4%	8	11.4%	43	61.4%	18	25.7%	70
가정밖	5	8.6%	16	27.6%	21	36.2%	16	27.6%	58
학교밖	8	11.4%	13	18.6%	34	48.6%	15	21.4%	70

정서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이 전체 147명(73.6)으로 나타났으며, 분야 별로 아동은 61명(87.14%), 가정밖 청소년은 37명(63.8%), 학교밖 청소년은 49명(70%)로 나타났다.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의 36.2%가 정서적 건강이 안 좋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지적 장애와 정서적 장애로 약을 먹는 것을 볼 때 이는 이미 예상되는 문제이다. 다만 빈도수와 상관없이 정서적 건강이 안 좋다고 답을 한 경우가 조사한 모든 아동 청소년 가운데 평균 26%로 아동·청소년 가운데 4명 중 1명이 정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심리 상담과 치료에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8)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

[그림 3-14]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



〈표 3-1-14〉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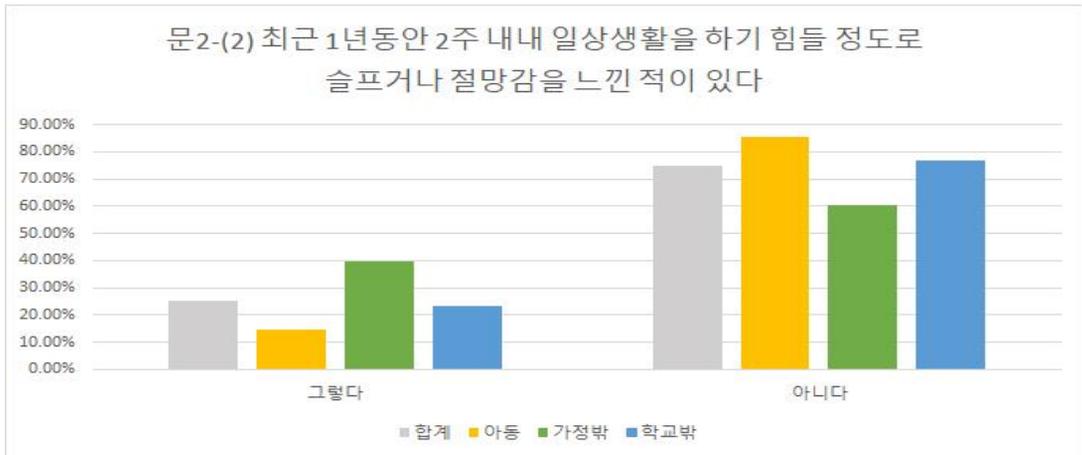
문2-(1) 최근 1년동안 밖에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66	33.67%	130	66.33%	196
아동	9	13.20%	59	86.80%	68
가정밖	18	31.00%	40	69.00%	58

학교밖	39	55.70%	31	44.30%	70
-----	----	--------	----	--------	----

외부 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던 경우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전체의 3분의 1 선인 66명(33.67%)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분야 별로는 아동이 9명(13.2%), 가정밖 청소년이 18명(31%), 학교밖 청소년이 39명(55.7%)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의 경우 시설 이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외부활동 없이 칩거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시설 이용자이지만 일부의 경우 독립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며칠 간 외부활동이 없었던 빈도가 55.7%나 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9) 우울증 증상

[그림 3-15] 우울증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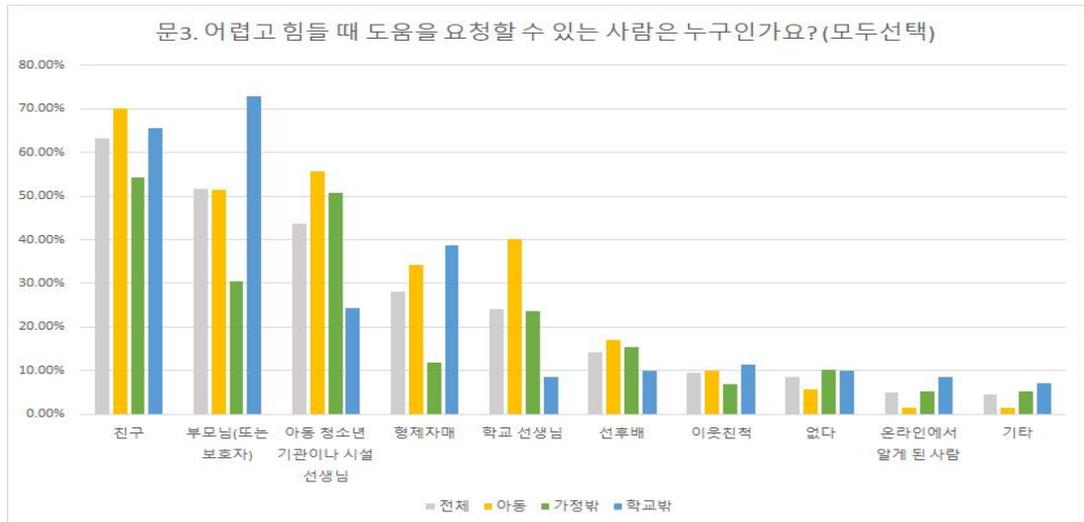
〈표 3-1-15〉 우울증 증상

문2-(2) 최근 1년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49	25.13%	146	74.87%	195
아동	10	14.70%	58	85.30%	68
가정밖	23	39.70%	35	60.30%	58
학교밖	16	23.20%	53	76.80%	69

조사 대상자 중 1년 내 2주 정도의 우울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전체가 49명 (25.13%)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가정밖 청소년이 23명(39.7%)로 제일 심하고, 다음이 학교밖 청소년 16명(23.2%), 아동 10명(14.7%)의 순이다. 우울증 증상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25% 이상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0%에 달하는 것은 가정밖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 10)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림 3-16]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표 3-1-16〉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친구		부모님 (또는 보호자)		아동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		형제자매		학교 선생님		선후배		이웃 친척		없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기타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27	63.3	105	51.6	86	43.6	58	28.2	48	24.1	28	14.1	19	9.4	17	8.6	10	5.0	9	4.6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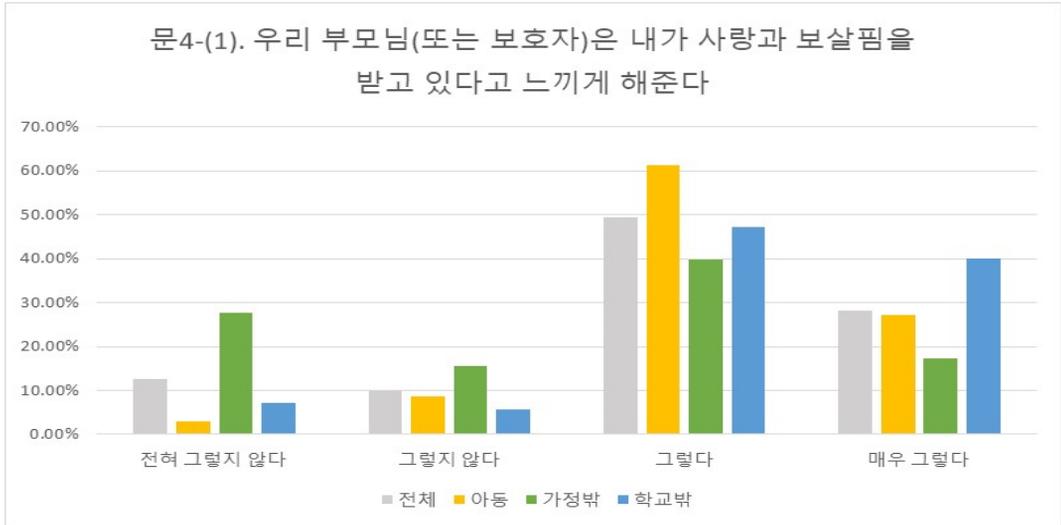
		%		%		%		%		%		%									
아 동	49	70.00%	36	51.40%	39	55.70%	24	34.30%	28	40.00%	12	17.10%	7	10.00%	4	5.70%	1	1.40%	1	1.40%	20.1
가 정 밖	32	54.20%	18	30.50%	30	50.80%	7	11.90%	14	23.70%	9	15.30%	4	6.80%	6	10.20%	3	5.10%	3	5.10%	12.6
학 교 밖	46	65.70%	51	72.90%	17	24.30%	27	38.60%	6	8.60%	7	10.00%	8	11.40%	7	10.00%	6	8.60%	5	7.10%	18.0

아동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보면 전체 1순위는 친구로 127명(63.3%)에 달한다. 그 중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3순위까지의 도와 줄 사람이 같았는데, 1순위로 아동 49명(70.0%), 가정밖 청소년 32명(54.2%)을 들었으며, 2순위로는 아동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이 아동 39명(55.7%), 가정밖 청소년 30명(58.0%), 그리고 3순위로 부모님 또는 보호자를 아동 36명(51.4%), 가정밖 청소년 18명(30.5%)을 들었다. 이에 반해 학교밖 청소년은 1순위로 부모님 또는 보호자 51명(72.9%), 2순위로 친구 46명(65.7%), 3순위로 형제 자매 27명(38.6%)을 들었다. 즉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친구 > 복지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 >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순이었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 > 친구 > 형제 자매의 순이었고 복지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은 4위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대부분 가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가정 내 생활 경험

#### 1)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느낌

[그림 3-17]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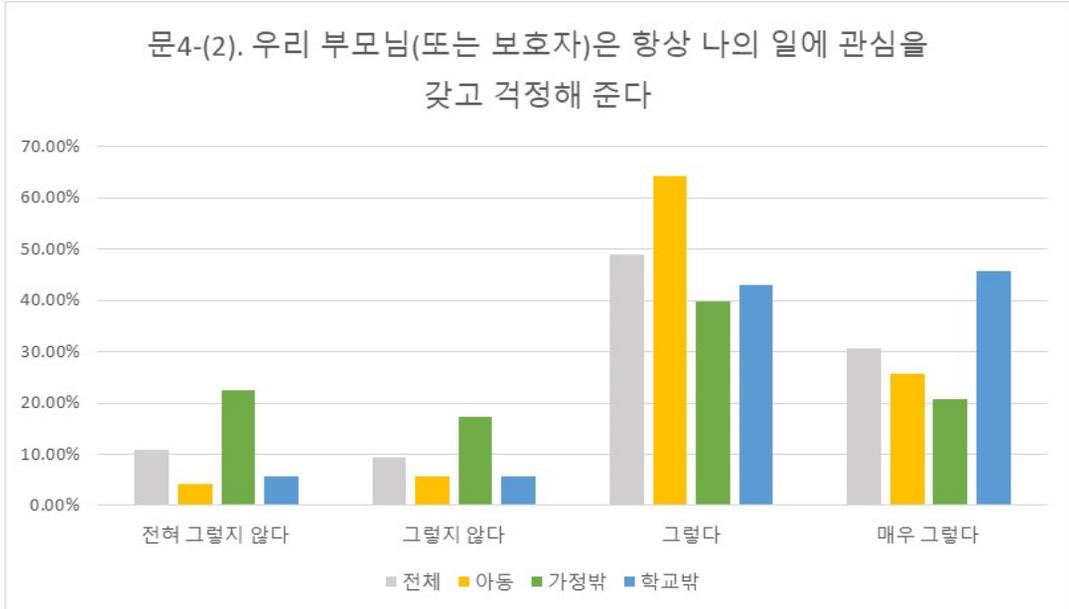
〈표 3-1-17〉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느낌

문4-(1).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3	12.5%	19	9.9%	99	49.4%	57	28.1%	198
아동	2	2.90%	6	8.60%	43	61.40%	19	27.10%	70
가정밖	16	27.60%	9	15.50%	23	39.70%	10	17.20%	58
학교밖	5	7.10%	4	5.70%	33	47.10%	28	40.00%	70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이 전체적으로는 156명(77.5%)이며, 분야 별로는 아동은 62명(88.5%), 학교밖 청소년은 61명(87.1%)으로 비교적 높게 나오는데 반해, 가정밖 청소년은 33명(56.9%)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정밖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로부터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 2) 부모님의 관심

[그림 3-18] 부모님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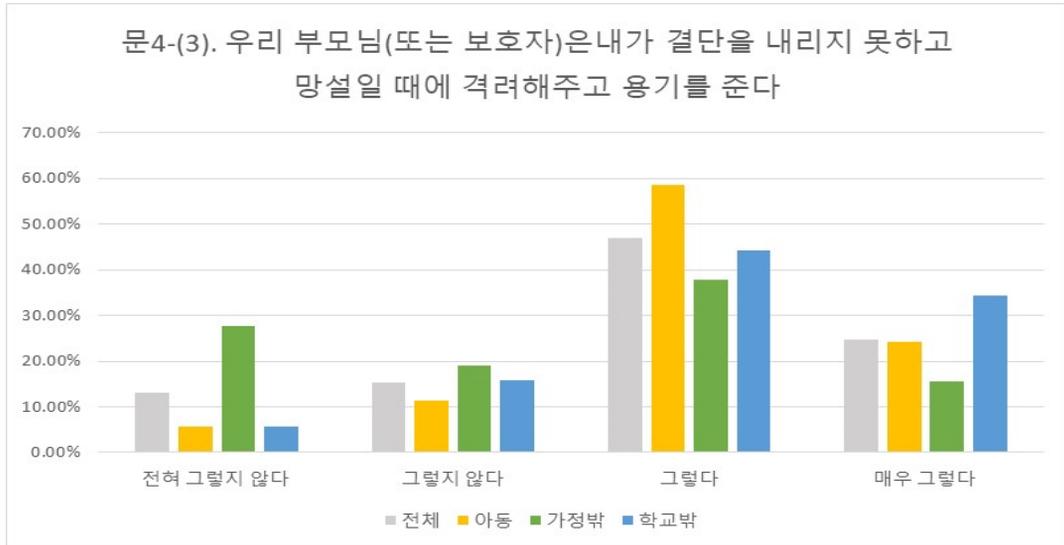
〈표 3-1-18〉 부모님의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0	10.8%	18	9.5%	98	49.0%	62	30.7%	198
아동	3	4.30%	4	5.70%	45	64.30%	18	25.70%	70
가정밖	13	22.40%	10	17.20%	23	39.70%	12	20.70%	58
학교밖	4	5.70%	4	5.70%	30	42.90%	32	45.70%	70

부모의 관심도와 관련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이 전체적으로는 160명(79.7%)인 가운데, 아동은 63명(90%), 가정밖 청소년은 35명(60.4%), 학교밖 청소년은 62명(88.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가정밖 청소년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3)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그림 3-19]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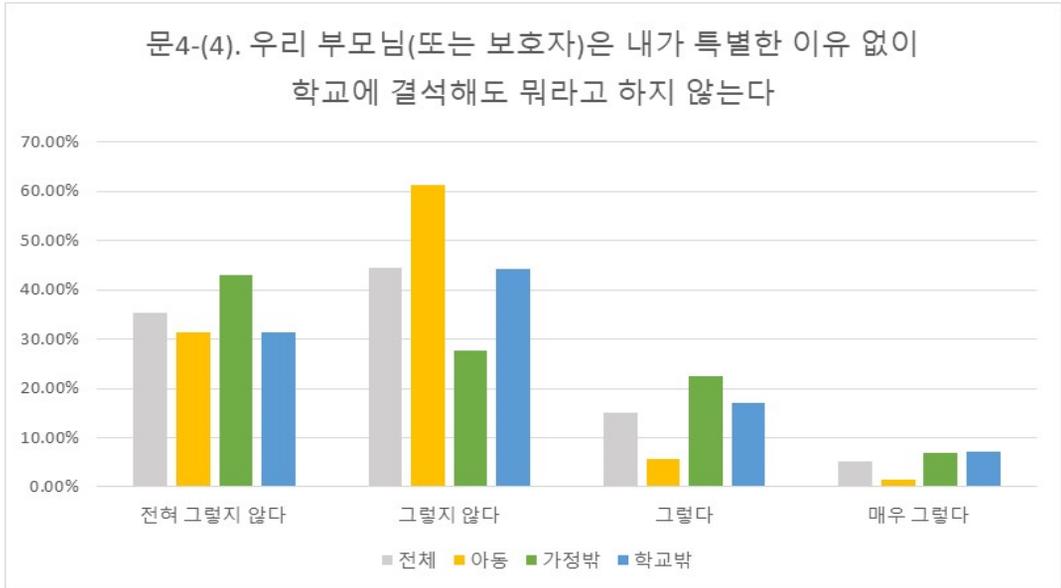
〈표 3-1-19〉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

문4-(3).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4	13.0%	30	15.4%	94	46.9%	50	24.7%	198
아동	4	5.70%	8	11.40%	41	58.60%	17	24.30%	70
가정밖	16	27.60%	11	19.00%	22	37.90%	9	15.50%	58
학교밖	4	5.70%	11	15.70%	31	44.30%	24	34.30%	70

부모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이 전체적으로는 144명(71.6%)인데, 그 중 아동은 58명(82.9%), 가정밖 청소년은 31명(53.4%), 학교밖 청소년은 55명(78.6%)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가정밖 청소년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 4) 부모님의 학교 결석에 대한 방임 방치

[그림 3-20] 부모님의 학교 결석에 대한 방임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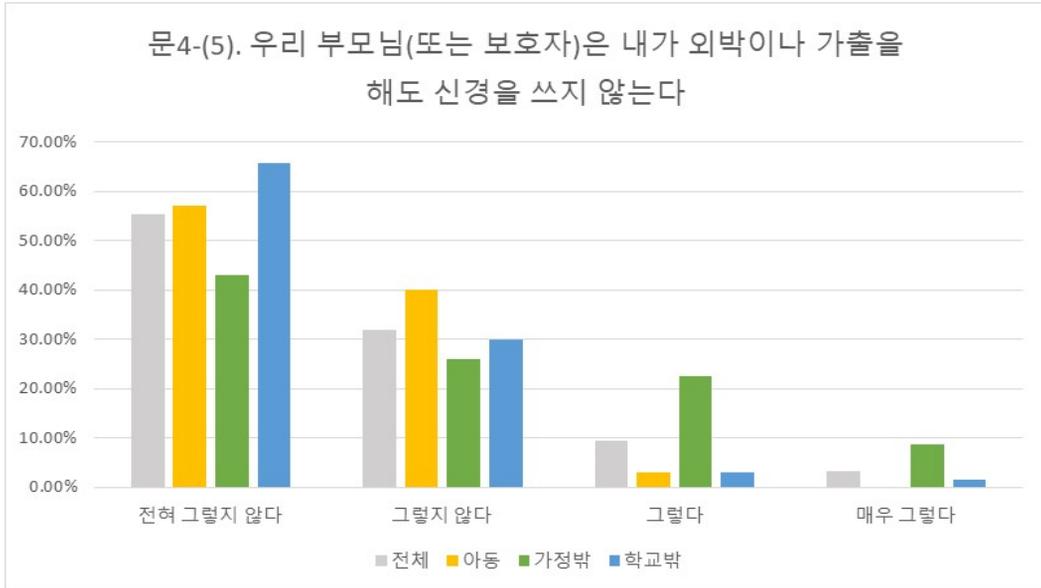
〈표 3-1-20〉 부모님의 학교 결석에 대한 방임 방치

문4-(4).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69	35.3%	90	44.4%	29	15.1%	10	5.1%	198
아동	22	31.40%	43	61.40%	4	5.70%	1	1.40%	70
가정밖	25	43.10%	16	27.60%	13	22.40%	4	6.90%	58
학교밖	22	31.40%	31	44.30%	12	17.10%	5	7.10%	70

부모님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방임의 비율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답이 전체적으로는 39명(20.2%)인데, 그 중 아동은 5명(7.1%)에 불과한데, 가정밖 청소년은 17명(29.3%)이고, 학교밖 청소년도 17명(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 가정밖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정밖 청소년 역시 상당수가 학교밖 청소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부모님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방임 방치

[그림 3-21] 부모님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방임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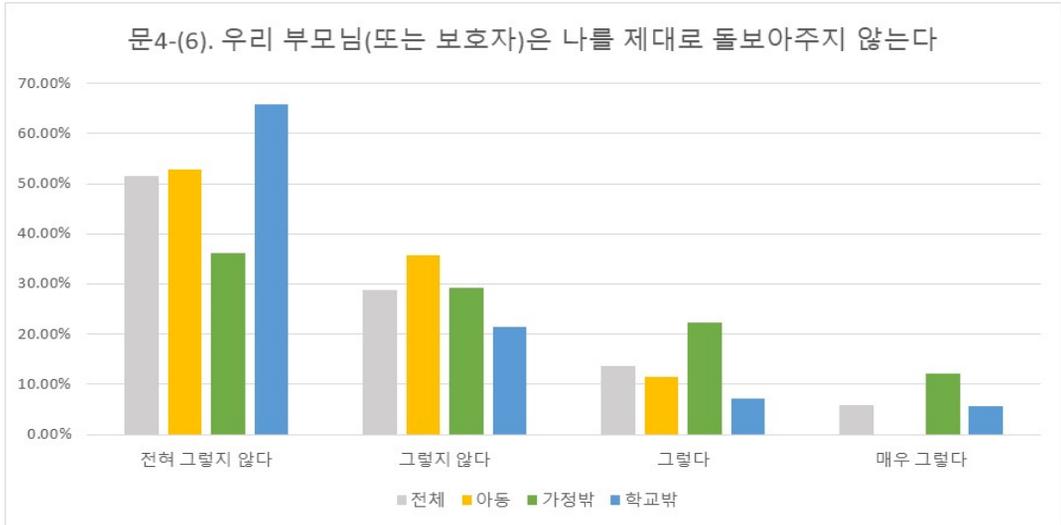
〈표 3-1-21〉 부모님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방임 방치

문4-(5).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11	55.3%	64	32.0%	17	9.4%	6	3.3%	198
아동	40	57.10%	28	40.00%	2	2.90%	0	0.00%	70
가정밖	25	43.10%	15	25.90%	13	22.40%	5	8.60%	58
학교밖	46	65.70%	21	30.00%	2	2.90%	1	1.40%	70

부모님이 외박이나 외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답이 전체는 23명(12.7%)으로 그 중 아동은 2명(2.9%), 학교밖 청소년은 3명(4.3%)인데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18명(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박이나 가출 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방임 방치 역시 가정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 6) 부모님의 돌봄 방치

[그림 3-22] 부모님의 돌봄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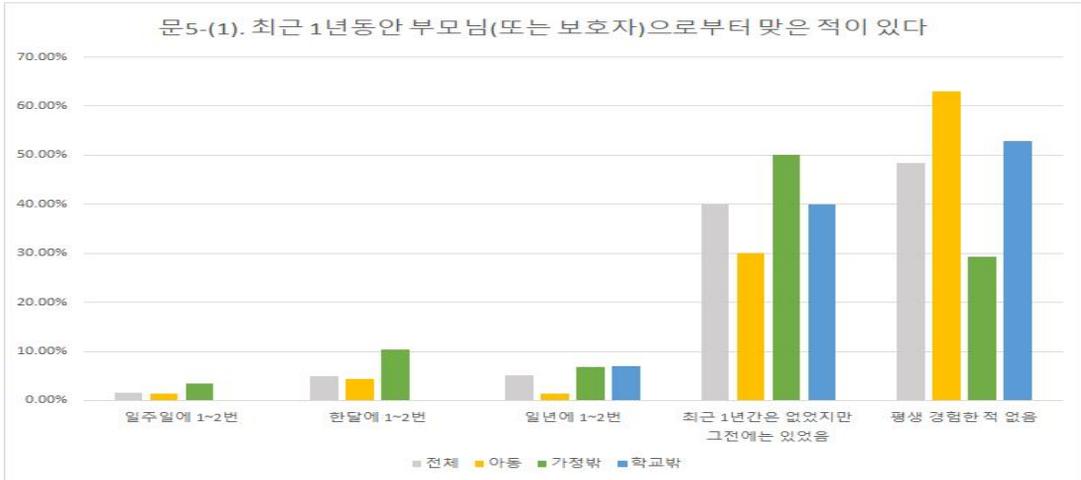
〈표 3-1-22〉 부모님의 돌봄 방치

문4-(6).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04	51.6%	57	28.8%	26	13.6%	11	5.9%	198
아동	37	52.90%	25	35.70%	8	11.40%	0	0.00%	70
가정밖	21	36.20%	17	29.30%	13	22.40%	7	12.10%	58
학교밖	46	65.70%	15	21.40%	5	7.10%	4	5.70%	70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답이 전체적으로 37명(19.5%)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아동은 8명(11.4%), 학교밖 청소년은 9명(12.8%)인데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34.5%로 나타났다.

## 7)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그림 3-1-23]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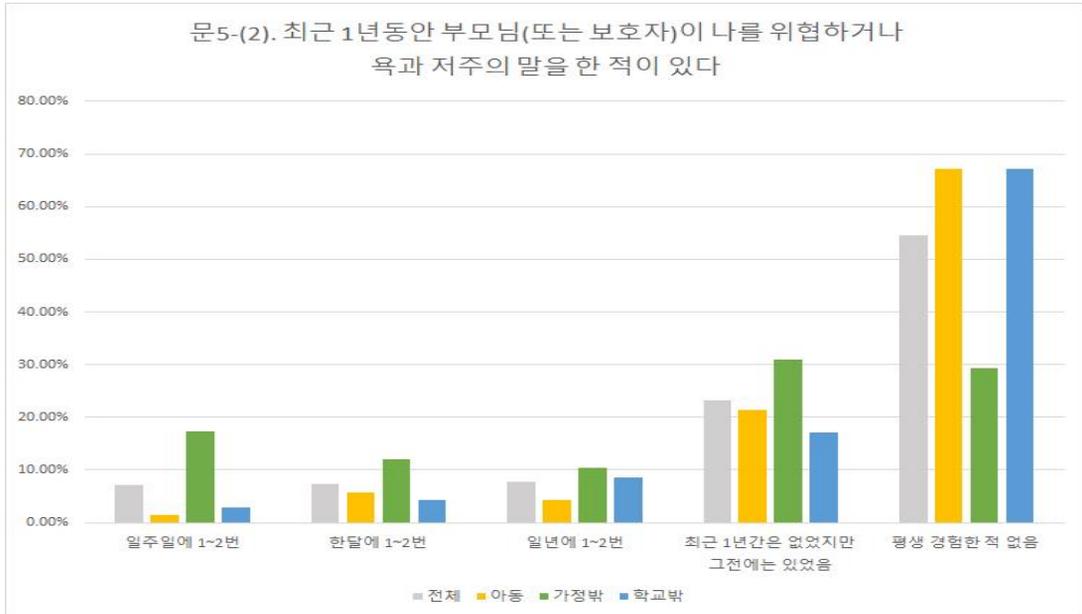
〈표 3-1-23〉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구분	일주일 1~2번		한달에 1~2번		일년에 1~2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	1.6%	9	4.9%	10	5.1%	78	40.0%	98	48.4%	198
아동	1	1.40%	3	4.30%	1	1.40%	21	30.00%	44	62.90%	70
가정밖	2	3.40%	6	10.30%	4	6.90%	29	50.00%	17	29.30%	58
학교밖	0	0.00%	0	0.00%	5	7.10%	28	40.00%	37	52.90%	70

아동의 경우,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에서 100명(51.6%)이 맞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1년 안에 맞은 경험도 22명(1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은 평생 맞은 경험이 26명(37.1%)이고, 최근 1년 내 맞은 경험이 5명(7.1%)이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평생 맞아 본 경험이 33명(47.1%)이고, 최근 1년 내 맞아 본 경험이 5명(7.1%)으로 나타났지만,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평생 맞아 본 경험이 41명(70.6%)이고, 최근 1년 안에 맞아 본 경험은 12명(20.6%)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 학대나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폭력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밖 청소년의 폭행에 대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8)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

[그림 3-24]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



【표 3-1-24】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

문5-(2). 최근 1년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를 위협하거나 욕과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일주일 1~2번		한달에 1~2번		일년에 1~2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3	7.2%	14	7.4%	15	7.7%	45	23.2%	111	54.5%	198
아동	1	1.40%	4	5.70%	3	4.30%	15	21.40%	47	67.10%	70
가정밖	10	17.20%	7	12.10%	6	10.30%	18	31.00%	17	29.30%	58
학교밖	2	2.90%	3	4.30%	6	8.60%	12	17.10%	47	67.10%	70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저주의 말을 들은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생 1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87명(45.5%)이고 최근 1년 내에 경험한 경우도 42명(22.3%)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의 경우 평생 1번 이상 들은 경우가 23명(32.8%)이고, 1년 내 경험한 경우가 8명(11.4%)이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평생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23명(32.9%)이고 최근 1년 내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명(15.8%)이다. 이에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평생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41명(70.6%)에 달하며, 1년 내에 경험이 있는 경우도 23명(39.3%)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위협이나 폭언은 폭행보다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9) 부모로부터 성학대나 추행을 당한 경험

〈표 3-1-25〉 부모님으로부터 성학대나 추행을 당한 경험

문5-(3). 최근 1년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성학대 및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일주일 1~2번		한달 1~2번		일년 1~2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0	0.0%	1	0.5%	0	0.0%	10	5.3%	187	94.2%	198
아동	0	0.00%	0	0.00%	0	0.00%	4	5.70%	66	94.30%	70
가정밖	0	0.00%	0	0.00%	0	0.00%	6	10.30%	52	89.70%	58
학교밖	0	0.00%	1	1.40%	0	0.00%	0	0.00%	69	98.60%	70

최근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성학대와 추행을 당한 경험은 모두 빈도가 낮은 편이다. 평생 동안 1번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아동의 경우 4명(5.7%),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명(1.4%),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6명(10.3%)로 나타났다.

### 10) 최근 1년 이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방치한 경험

〈표 3-1-26〉 최근 1년 이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방치한 경험

문5-(4). 최근 1년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방임)한 적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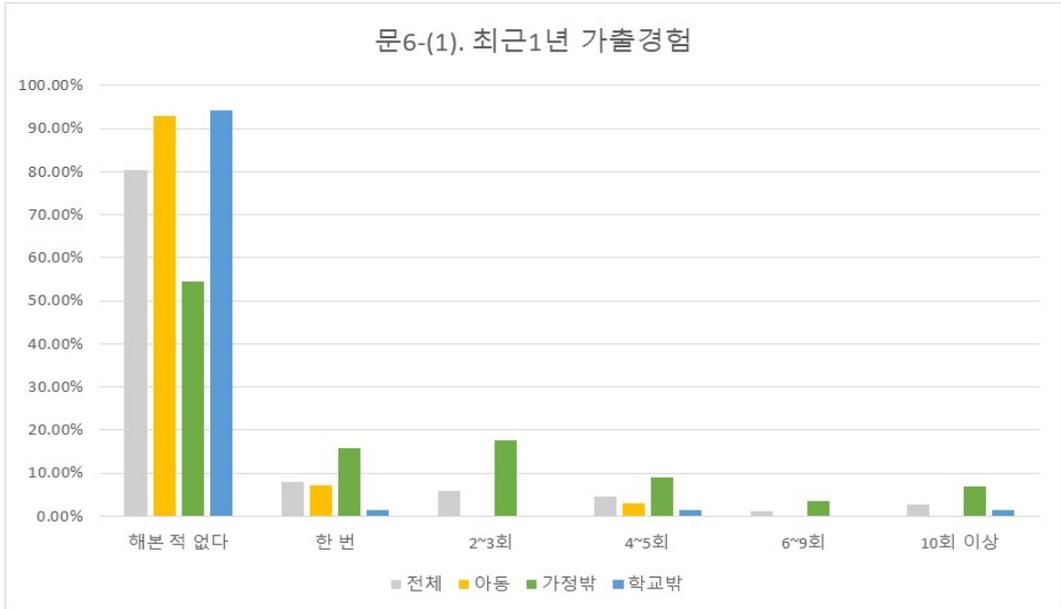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일년에 1~2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5	2.7%	3	1.6%	2	1.0%	36	18.9%	152	75.7%	198
아동	2	2.90%	1	1.40%	1	1.40%	12	17.10%	54	77.10%	70
가정밖	3	5.20%	2	3.40%	1	1.70%	18	31.00%	34	58.60%	58
학교밖	0	0.00%	0	0.00%	0	0.00%	6	8.60%	64	91.40%	70

부모님이 나를 방치한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생 경험한 적이 있음은 46명(25.2%)이고 1년 내 경험이 있었음은 10명(5.3%)이며, 그 중 아동은 평생 경험한 적이 있음이 16명(22.8%)이고 1년 내 경험이 있었음은 4명(5.7%)이며, 학교밖 청소년은 평생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6명(8.6%)이지만 1년 내 경험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평생 동안 경험이 있었음이 24명(41.3%)이고, 1년 내 경험이 6명(10.3%)으로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4. 가정 밖 생활 경험

##### 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그림 3-25]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표 3-1-27〉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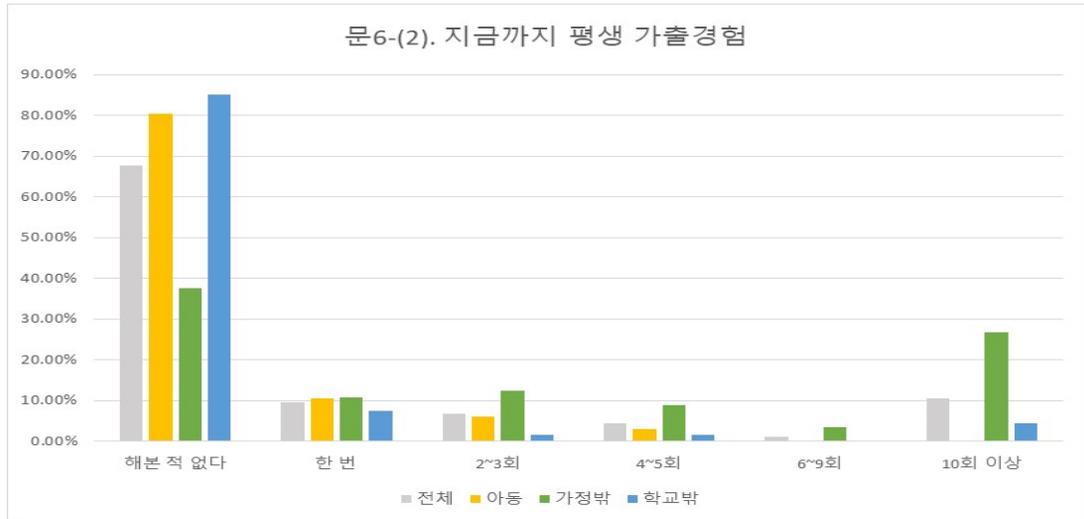
문6-(1). 최근1년 가출경험													
	해본 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b>전체</b>	161	80.5%	15	8.1%	10	5.8%	3	1.6%	2	1.2%	5	2.8%	196
<b>아동</b>	65	92.86	5	7.14	0	0.00	0	0.00	0	0.00	0	0.00	70
<b>가정 밖</b>	31	54.39	9	15.79	10	17.54	1	1.75	2	3.51	4	7.02	57
<b>학교 밖</b>	65	94.20	1	1.45	0	0.00	2	2.90	0	0.00	1	1.45	69

최근 1년간의 가출 경험을 보면 전체로는 35명(19.5%)인데, 그 중 아동의 경우 1회 가출 경험만 5명(7.1%) 뿐이고 그 외의 가출 경험은 없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총 4명(5.8%) 가운데 1회가 1명(1.4%), 4~5가 2명(2.9%), 10회 이상이 1명(1.4%)정도이다. 이에 비해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총 26명(45.1%) 중 3회 이내가 19명(33.3%), 4~9회까지가 3명(5.3%), 10회 이상이 4명(7%)이었다. 다만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가출하면 장기화되어 계속 가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평생 가출 경험

[그림 3-26] 평생 가출 경험



〈표 3-1-28〉 평생 가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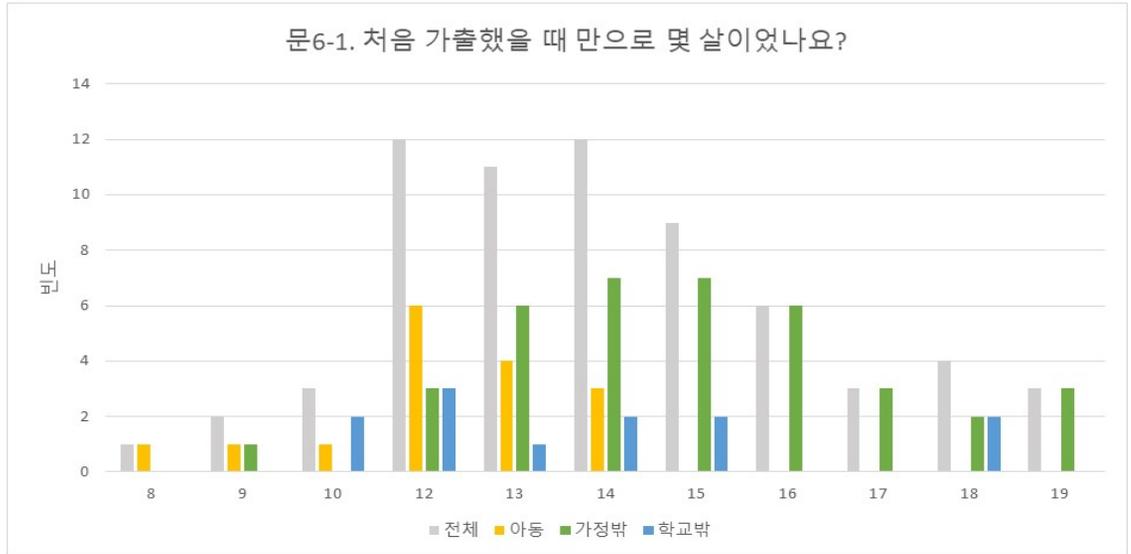
	해본 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31	67.6%	18	9.6%	12	6.7%	8	4.5%	2	1.2%	18	10.4	189
아동	53	80.30	7	10.61	4	6.06	2	3.03	0	0.00	0	0.00	66
가정밖	21	37.50	6	10.71	7	12.50	5	8.93	2	3.57	15	26.79	56
학교밖	57	85.07	5	7.46	1	1.49	1	1.49	0	0.00	3	4.48	67

평생 가출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경우 3회 이내가 16.7%, 4회가 3%였고 그 이상은 없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3회 이내가 9%, 4~9회까지가 1.5%, 10회 이상이 4.5%였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3회 이내가 23.2%, 4~9회까지가 12.5%, 10회 이상이

26.8%에 달했다.

### 3) 첫 가출 경험 나이

[그림 3-27] 첫 가출 경험 나이



〈표 3-1-29〉 첫 가출 경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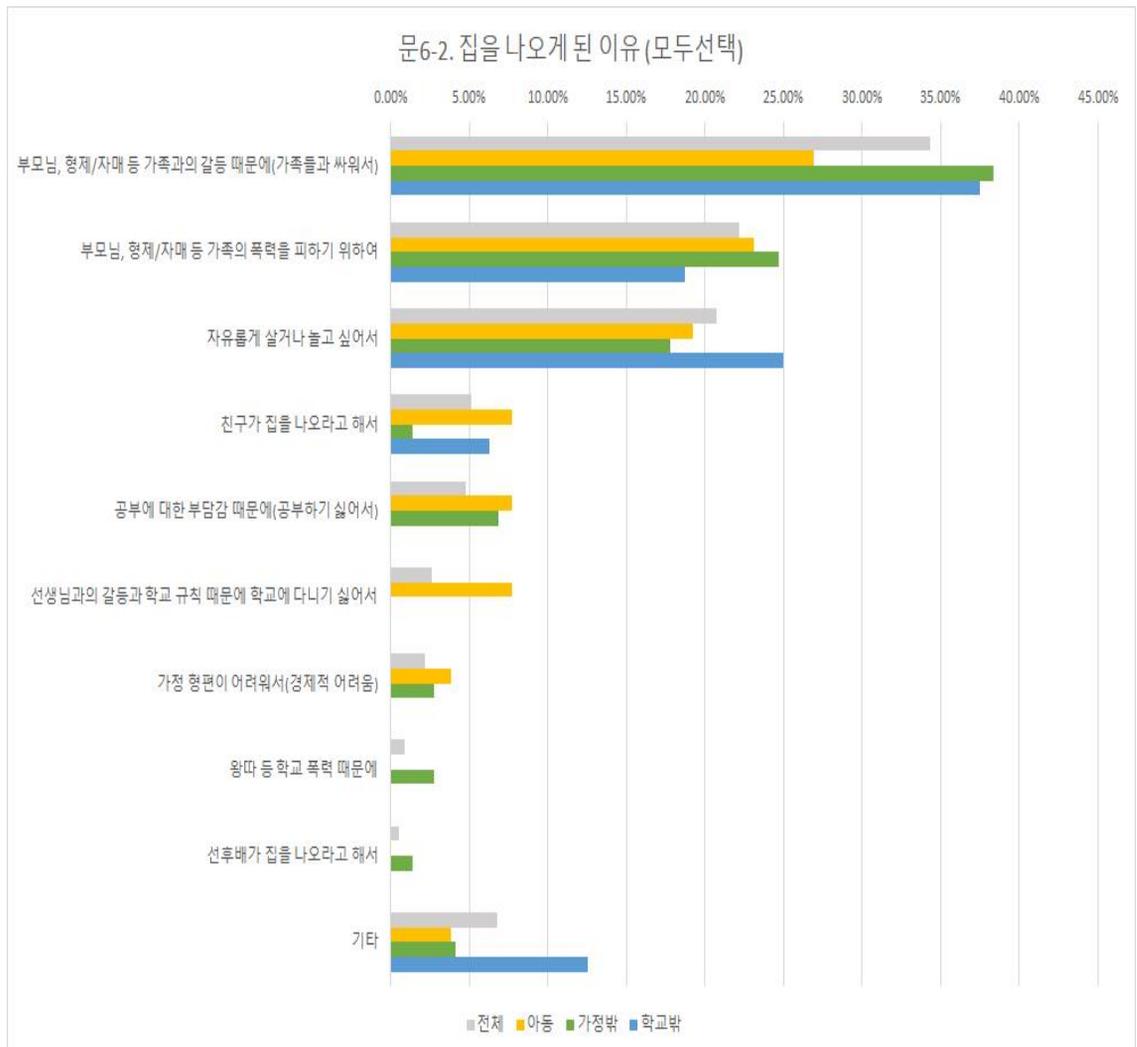
	평균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3.51	1	2.1	2	3.0	3	7.6	12	23.5	11	16.4	12	17.9	9	11.7	6	5.3	3	2.6	4	7.3	3	2.6	66
아동	12.06	1	6.25	1	6.25	1	6.25	6	37.50	4	25.00	3	18.7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6
가정밖	14.89	0	0.00	1	2.63	0	0.00	3	7.89	6	15.79	7	18.42	6	18.42	6	15.79	3	7.89	2	5.26	3	7.89	38
학교밖	13.58	0	0.00	0	0.00	2	16.67	3	25.00	1	8.33	2	16.67	2	16.67	0	0.00	0	0.00	2	16.67	0	0.00	12

평균값으로 볼 때 아동은 12.1세, 가정밖 청소년은 14.9세, 학교밖 청소년은 13.6세에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가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12세 때부

터이며, 대개 아동은 15세, 학교밖 청소년은 16세면 가출이 끝나나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8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9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출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13세에서 16세까지가 연 6~7회로 가출 발생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4) 가출한 이유

[그림 3-28] 가출한 이유



〈표 3-1-30〉 가출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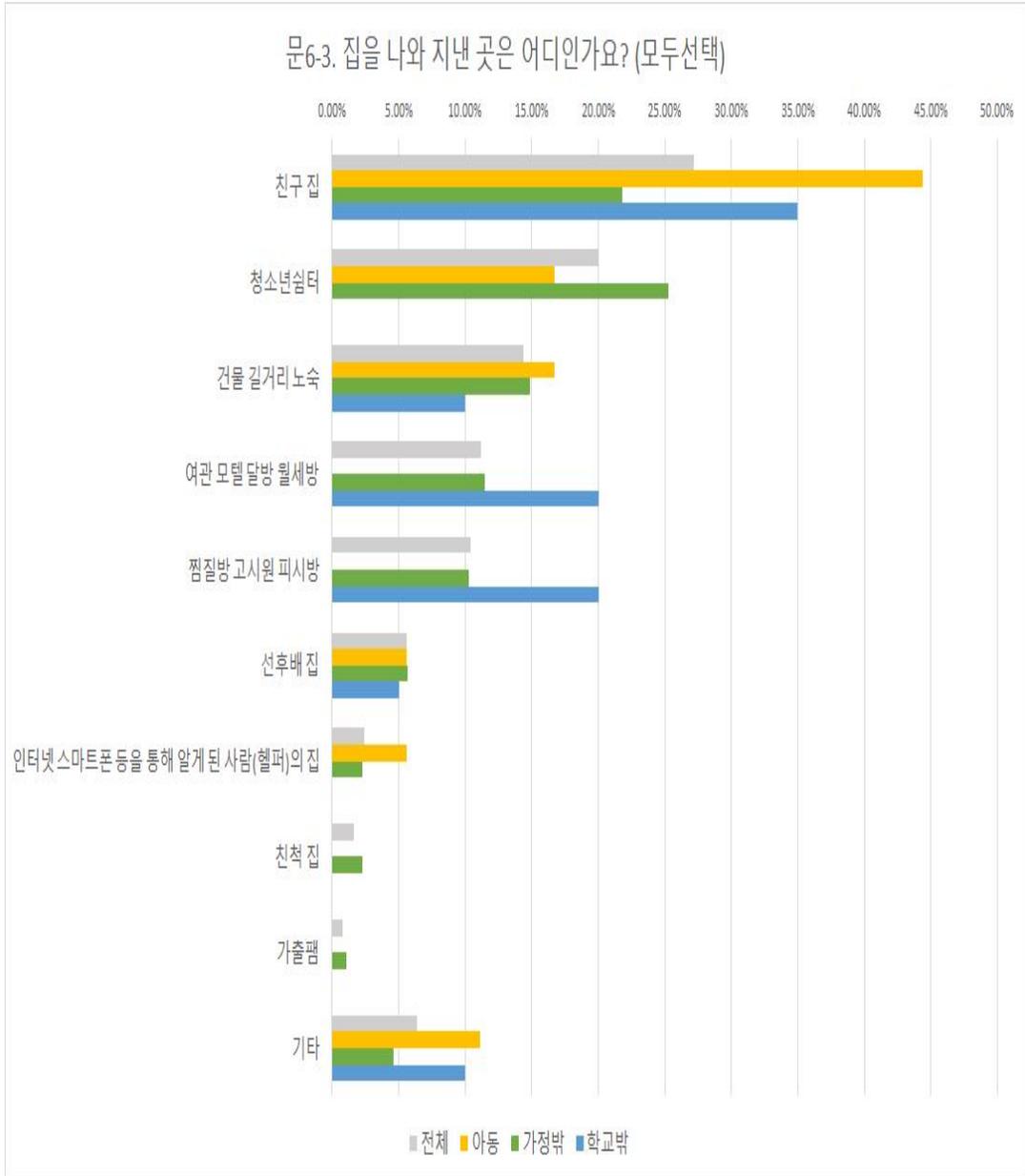
문6-2. 집을 나오게 된 이유 (모두선택)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살거나 살고 싶어서		친구가 집을 나오라고 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공부하기 싫어서)		선생님과의 갈등과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경제적 어려움)		왕따 등 학교 폭력 때문에		선후배가 집을 나오라고 해서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1	34.30%	27	22.20%	22	20.70%	4	5.10%	7	4.80%	2	2.60%	3	2.20%	2	0.90%	1	0.50%	6	6.80%	115
아동	7	26.92%	6	23.08%	5	19.23%	2	7.69%	2	7.69%	2	7.69%	1	3.85%	0	0.00%	0	0.00%	1	3.85%	26
가정밖	28	38.36%	18	24.66%	13	17.81%	1	1.37%	5	6.85%	0	0.00%	2	2.74%	2	2.74%	1	1.37%	3	4.11%	73
학교밖	6	37.50%	3	18.75%	4	25.00%	1	6.2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2.50%	16

가출 이유를 보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6명, 아동이 7명, 가정밖 청소년이 28명이었다. 각 대상 별로 가출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6명),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명), 가족의 폭력(3명)의 순이고, 아동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7명), 가족의 폭력(6명),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5명)의 순이었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과의 갈등(28명), 가족의 폭력(18명),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3명)의 순이었다. 의외로 학교 폭력과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한 학교밖 청소년은 없었지만, 가정밖 청소년은 각기 2명,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집을 나오라고 해서 나간 경우도 아동 2명, 학교밖과 가정밖 청소년이 각기 1명씩 있었다.

### 5) 집을 나와 지낸 곳

[그림 3-29] 집을 나와 지낸 곳



〈표 3-1-31〉 집을 나와 지낸 곳

문6-3. 집을 나와 지낸 곳은 어디인가요? (모두선택)																					
	친구 집		청소년 쉼터		건물 길거리 노숙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		짬질방 고시원 피시방		선후배 집		인터넷 스마트 폰등을 통해 알게 된사람 (헬퍼) 의 집		친척 집		가출팜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4	27.20%	25	20.00%	18	14.40%	14	11.20%	13	10.40%	7	5.60%	3	2.40%	2	1.60%	1	0.80%	8	6.40%	123
아동	8	44.40%	3	16.70%	3	16.70%	0	0.00%	0	0.00%	1	5.60%	1	5.60%	0	0.00%	0	0.00%	2	11.10%	18
가정밖	19	21.80%	22	25.30%	13	14.90%	10	11.50%	9	10.30%	5	5.70%	2	2.30%	2	2.30%	1	1.10%	4	4.60%	87
학교밖	7	35.00%	0	0.00%	2	10.00%	4	20.00%	4	20.00%	1	5.00%	0	0.00%	0	0.00%	0	0.00%	2	10.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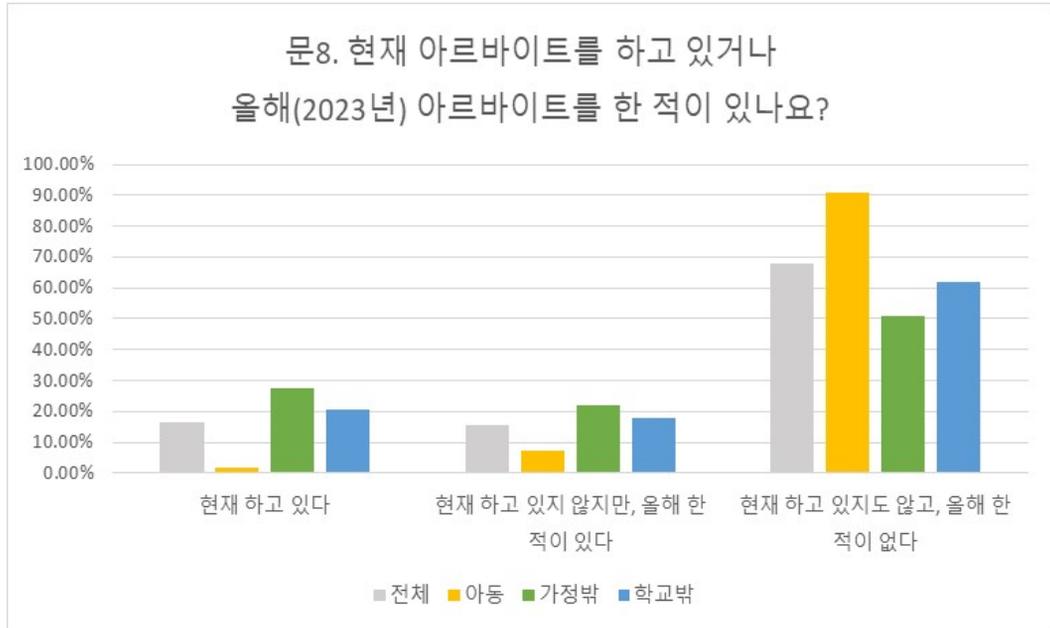
가출을 하고 지낸 곳에 대해 아동 청소년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곳은 친구 집으로 34명이었고, 다음이 청소년쉼터로 25명이었으며, 길거리 노숙이 18명, 여관·모텔·달방 등이 14명, 그리고 짬질방·피시방·고시원 등이 13명이었다. 그밖에 선후배집, 친척집 등과 헬퍼의 집에서 지낸 경우도 있었다.

※ 다음으로 헬퍼 관련 문항이 있었으나 해당 응답자가 10명 내외로 너무 모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 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 5. 아르바이트 및 근로 경험

### 1) 아르바이트 경험

[그림 3-34] 아르바이트 경험



〈표 3-1-32〉 아르바이트 경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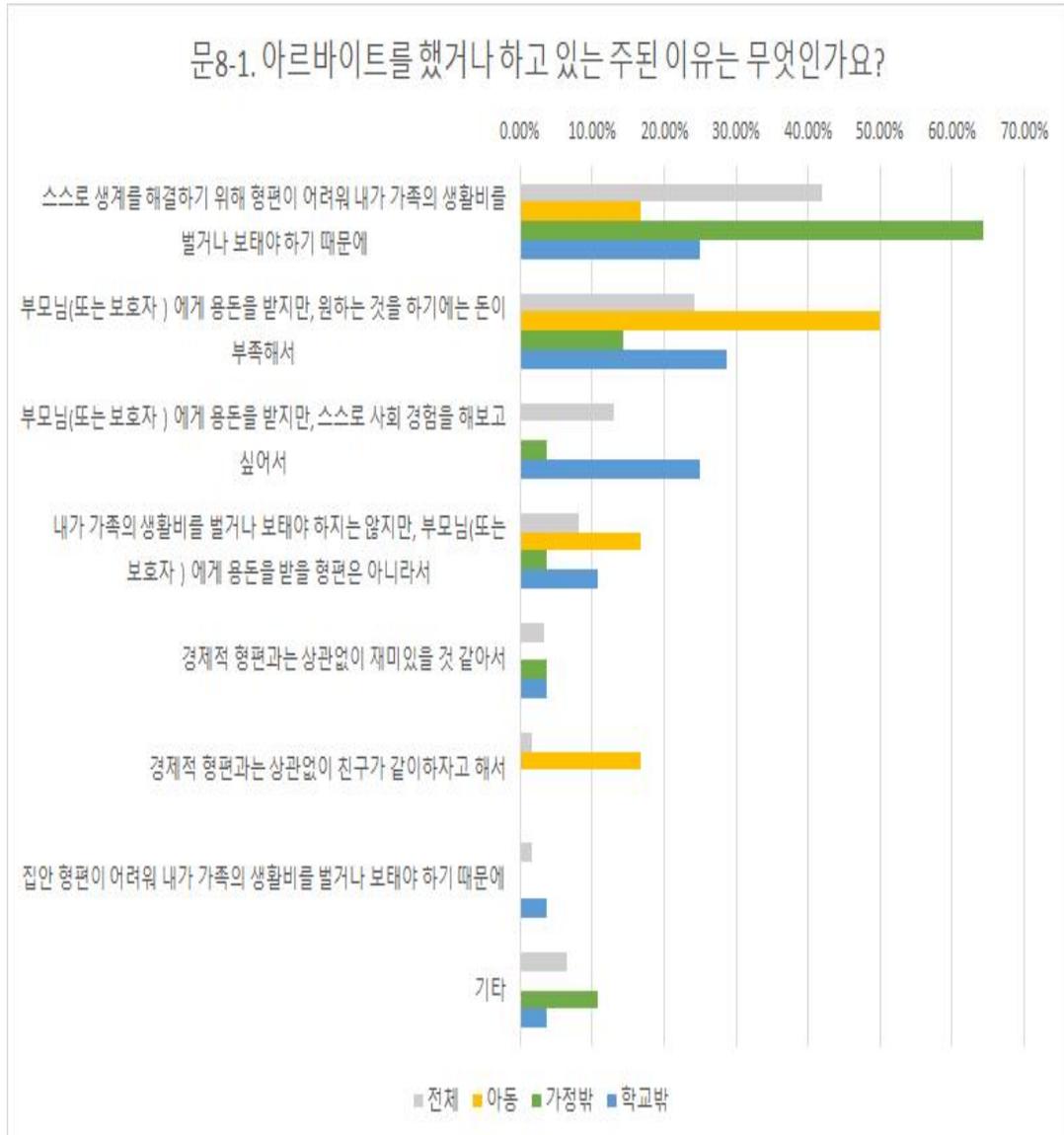
문8.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3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현재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한 적이 있다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올해 한 적이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0	16.6%	28	15.6%	120	67.9%	178
아동	1	1.80%	4	7.30%	50	90.90%	55
가정밖	15	27.30%	12	21.80%	28	50.90%	55
학교밖	14	20.60%	12	17.60%	42	61.80%	68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3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아동 9.1%, 가정밖

청소년 49.1%, 학교밖 청소년 38.2로 나타났으며, 현재 하고 있는 경우도 아동 1.8%, 학교밖 청소년 20.6%이며, 가정밖 청소년이 27.3%로 그 중 많은 편이다.

##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그림 3-35]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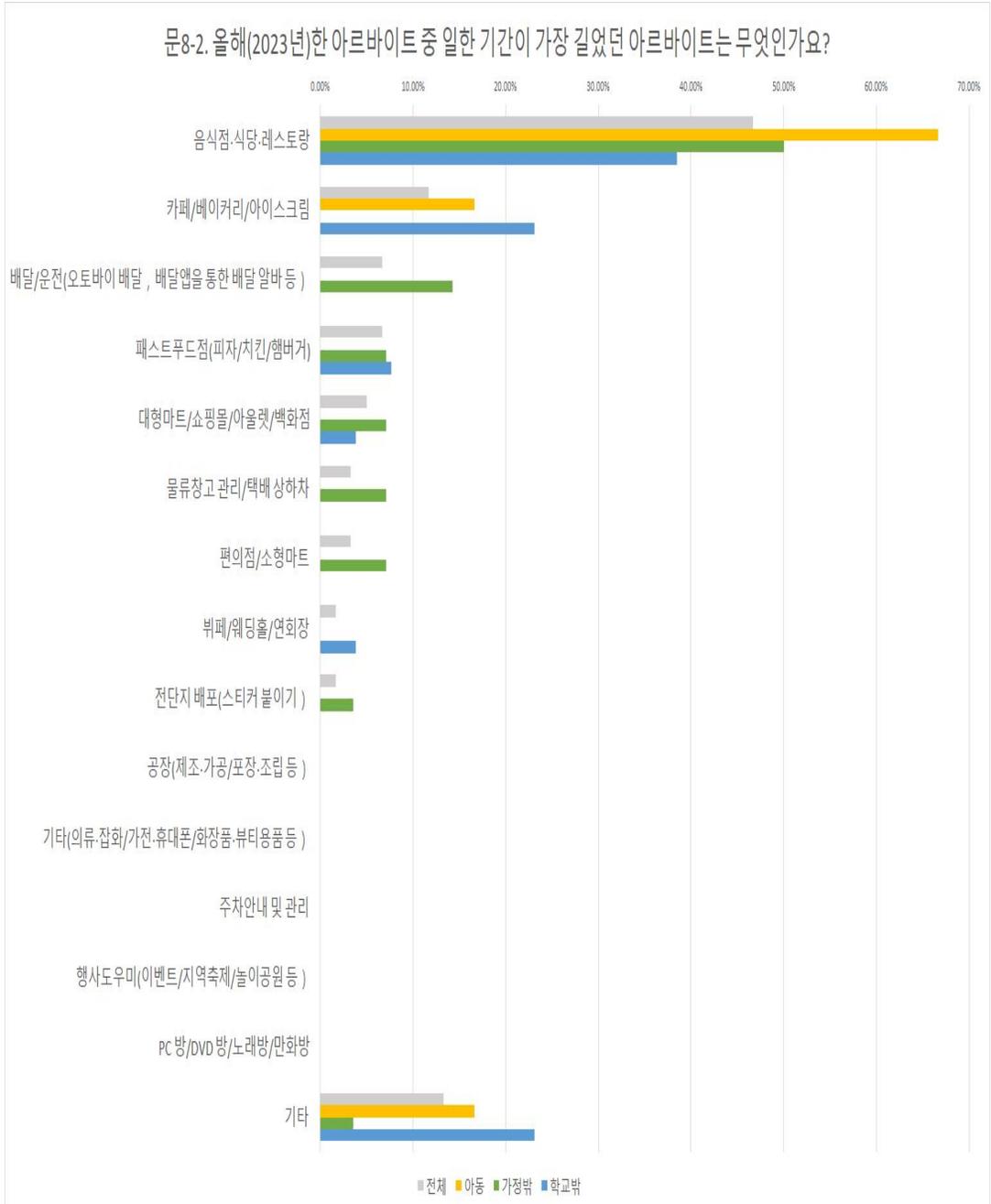
〈표 3-1-33〉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문8-1.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기타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6	41.90%	15	24.20%	8	12.90%	5	8.10%	2	3.20%	1	1.60%	1	1.60%	4	6.50%	62
아동	1	16.67%	3	50.00%	0	0.00%	1	16.67%	0	0.00%	1	16.67%	0	0.00%	0	0.00%	6
가정밖	18	64.29%	4	14.29%	1	3.57%	1	3.57%	1	3.57%	0	0.00%	0	0.00%	3	10.71%	28
학교밖	7	25.00%	8	28.57%	7	25.00%	3	10.71%	1	3.57%	0	0.00%	1	3.57%	1	3.57%	28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서 4명, 생계 해결 1명, 친구가 같이 하길 원해서 1명 등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용돈이 부족해서 11명, 생계 해결과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서가 각각 7명이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와 재미로 하는 경우가 각 1명씩이다. 이에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생계 해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18명이고, 용돈 부족이 5명,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와 재미로 하는 경우가 각 1명씩이다.

### 3)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

[그림 3-36]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



〈표 3-1-34〉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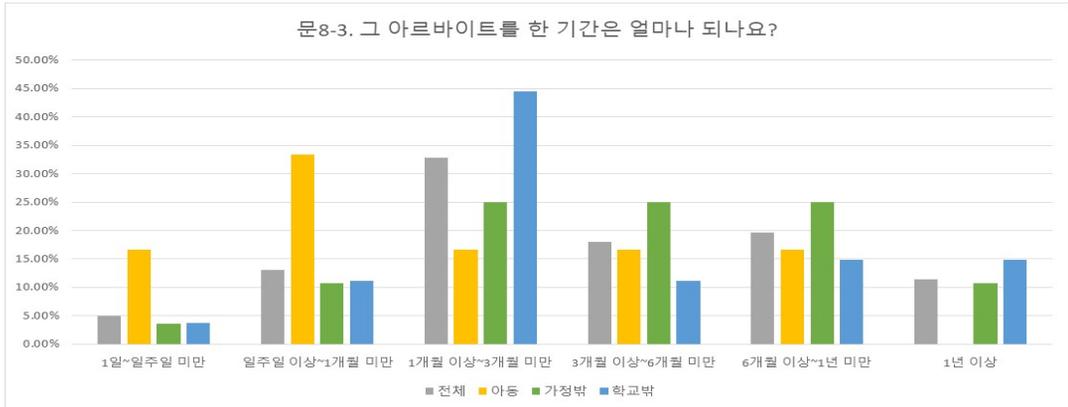
문8-2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					
		전체	아동	가정밖	학교밖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빈도	28	4	14	10
	%	46.70%	6.66%	50.0%	38.46%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빈도	7	1	0	6
	%	11.70%	16.67%	0%	23.08%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	빈도	4	0	4	0
	%	6.70%	0%	14.29%	0%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햄버거)	빈도	4	0	2	2
	%	6.70%	0%	7.14%	7.69%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빈도	3	0	2	1
	%	5.00%	0%	7.14%	3.85%
물류창고 관리/택배 상하차	빈도	2	0	2	0
	%	3.30%	0%	7.14%	0%
편의점/소형마트	빈도	2	0	2	0
	%	3.30%	0%	7.14%	0%
뷔페/웨딩홀/연회장	빈도	1	0	0	1
	%	1.70%	0%	0%	3.85%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빈도	1	0	1	0
	%	1.70%	0%	3.57%	0%
공장(제조·가공/포장·조립 등)	빈도	0	0	0	0
	%	0%	0%	0%	0%
기타(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용품)	빈도	0	0	0	0
	%	0%	0%	0%	0%
주차안내 및 관리	빈도	0	0	0	0
	%	0%	0%	0%	0%
행사도우미(이벤트/지역축제/놀이공원 등)	빈도	0	0	0	0
	%	0%	0%	0%	0%
PC 방/DVD 방/노래방/만화방	빈도	0	0	0	0
	%	0%	0%	0%	0%
기타	빈도	8	1	1	6
	%	13.30%	16.67%	3.57%	23.08%
전체	빈도	60	6	28	26

아동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가장 오래 했던 곳은 전체적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28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점이 7명(11.7%)이었으며, 배달과 패스트푸드점이 각 4명(6.7%)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은 음식점에서 일을 많이 하고, 가정밖 청소년은 음식점, 배달, 택배 상하차, 편의점, 전단지 배포 등 좀 더 다양

한 일을 하는 편이다.

#### 4)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그림 3-37]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표 3-1-35]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1일~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	4.92%	8	13.11%	20	32.79%	11	18.03%	12	19.67%	7	11.48%	61
아동	1	16.67%	2	33.33%	1	16.67%	1	16.67%	1	16.67%	0	0.00%	6
가정밖	1	3.57%	3	10.71%	7	25.00%	7	25.00%	7	25.00%	3	10.71%	28
학교밖	1	3.70%	3	11.11%	12	44.44%	3	11.11%	4	14.81%	4	14.81%	27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전체적으로 1개월~3개월이 20명(32.79%)으로 제일 많으며, 6개월~1년이 12명(19.67%)으로 다음이며, 3개월~6개월이 11명(18.03%)으로 뒤를 이었다. 1개월 이내는 11명(18.03%)이었으며, 1년 이상은 7명(11.48%)에 불과했다.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빈도는 28명과 27명으로 비슷했으나 아동은 6명으로 빈도가 낮았다.

### 5) 청소년이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경험

〈표 3-1-36〉 청소년이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경험

문8-4.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7	3.8%	174	96.2%	181
아동	0	0.00%	57	100.00%	57
가정밖	4	7.00%	53	93.00%	57
학교밖	3	4.50%	64	95.50%	67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하지 못하는 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아동은 없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4.5%, 가정밖 청소년은 7%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이유

〈표 3-1-37〉 아르바이트 경험(6)-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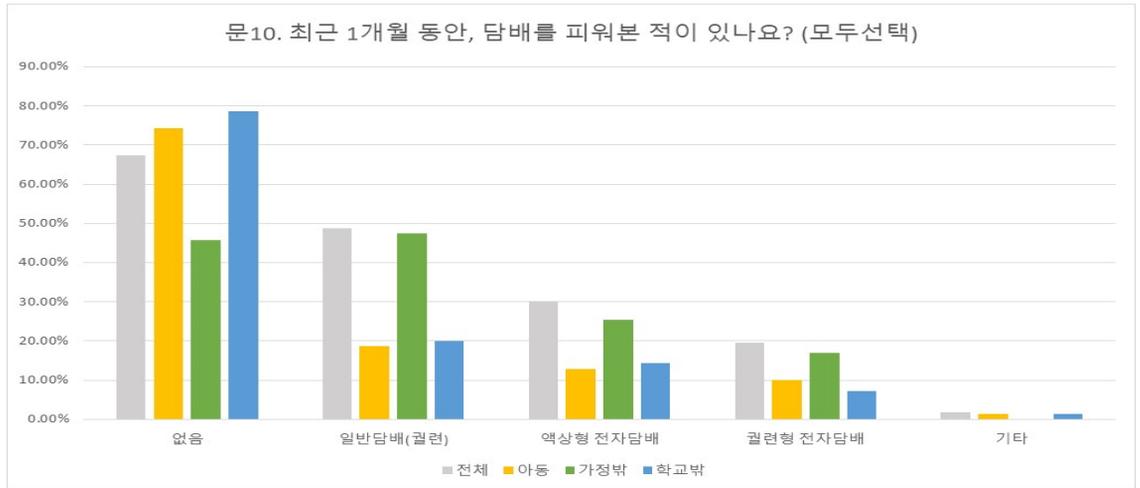
문8-5.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부모님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0	0.0%	3	50.0%	1	16.7%	0	0.0%	1	16.7%	1	16.7%	6
아동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가정밖	0	0.00%	2	50.00%	1	25.00%	0	0.00%	1	25.00%	0	0.00%	4
학교밖	0	0.00%	1	50.00%	0	0.00%	0	0.00%	0	0.00%	1	50.00%	2

전체적으로 빈도수는 낮았으며, 아동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 어려워서란 답에만 1명이 응답하였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 어려워서 2명,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1명, 근무시간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등이 1명 있었다.

## 6. 술·담배·약물 이용 경험

### 1)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그림 3-38]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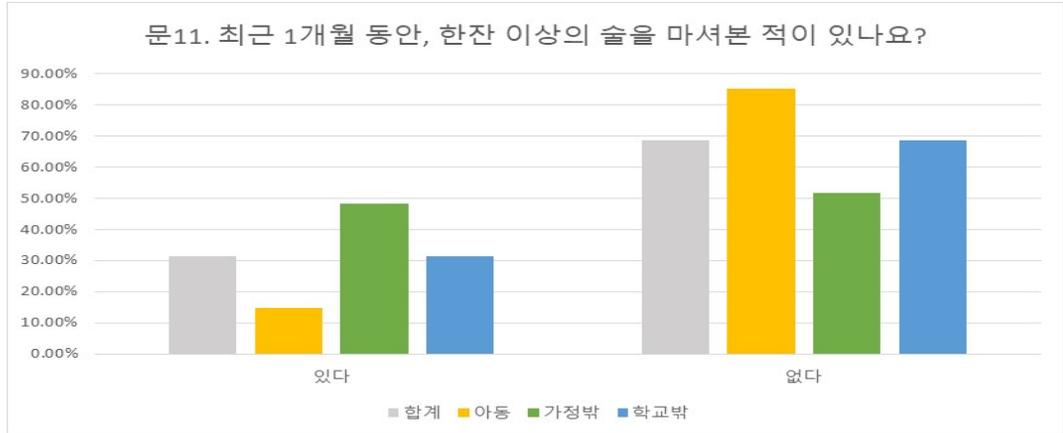
〈표 3-1-38〉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문10.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모두선택)												
	없음		있음	일반담배 (퀄런)		액상형 전자담배		퀄런형 전자담배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34	67.3%	113	55	48.7%	34	30.1%	22	19.5%	2	1.8%	247
아동	52	74.29%	30	13	18.57%	9	12.86%	7	10.00%	1	1.43%	82
가정 밖	27	45.76%	53	28	47.46%	15	25.42%	10	16.95%	0	0.00%	80
학교 밖	55	78.57%	30	14	20.00%	10	14.29%	5	7.14%	1	1.43%	85

응답자 중 담배를 피는 비율이 아동 36.6%, 학교밖 청소년 35.3%, 가정밖 청소년 66%로 가정밖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다. 담배의 종류는 대개 퀄런과 전자담배 2종류인데, 전체 113명 중 55명인 48.7%가 퀄런을 피며, 58명인 51%는 전자담배를 피었다고 하였다.

## 2)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

[그림 3-39]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



〈표 3-1-39〉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

문11. 최근 1개월 동안, 한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b>전체</b>	<b>60</b>	31.5%	<b>136</b>	68.5%	<b>196</b>
아동	10	14.70%	58	85.30%	68
가정밖	28	48.30%	30	51.70%	58
학교밖	22	31.40%	48	68.60%	70

최근 1개월 동안, 한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에 대해 아동은 14.7%, 학교밖 청소년은 31.4%, 가정밖 청소년은 48.3%로 나타났다.

## 3)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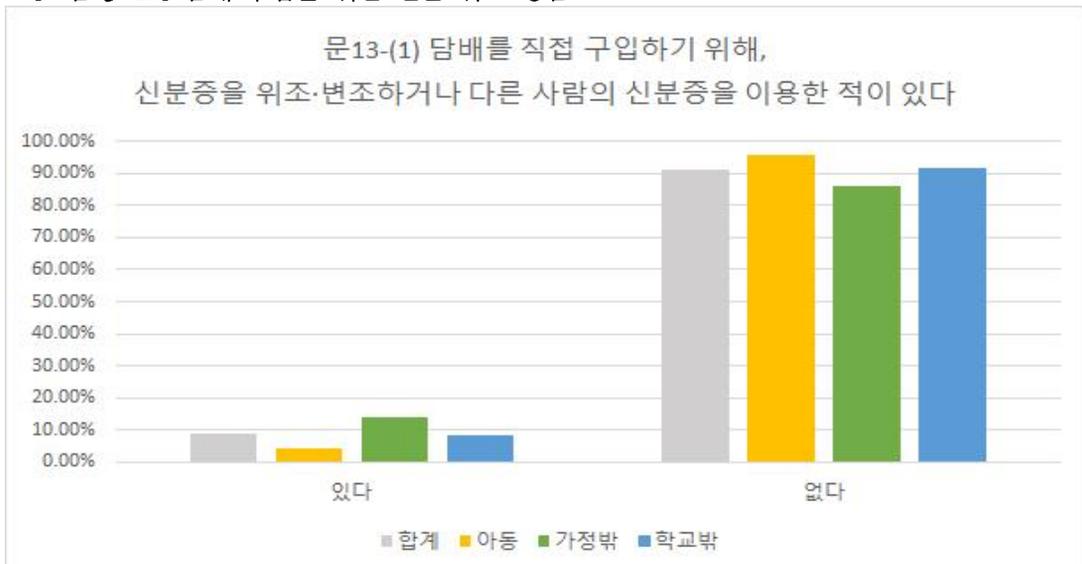
〈표 3-1-40〉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문12.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9	4.7%	187	95.3%	196
아동	1	1.50%	67	98.50%	68
가정밖	4	6.90%	54	93.10%	58
학교밖	4	5.70%	66	94.30%	70

최근 1년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아동의 경우 1.5%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6.9%,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5.7%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이용경험이 높았으며 그중 가정밖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그림 3-40]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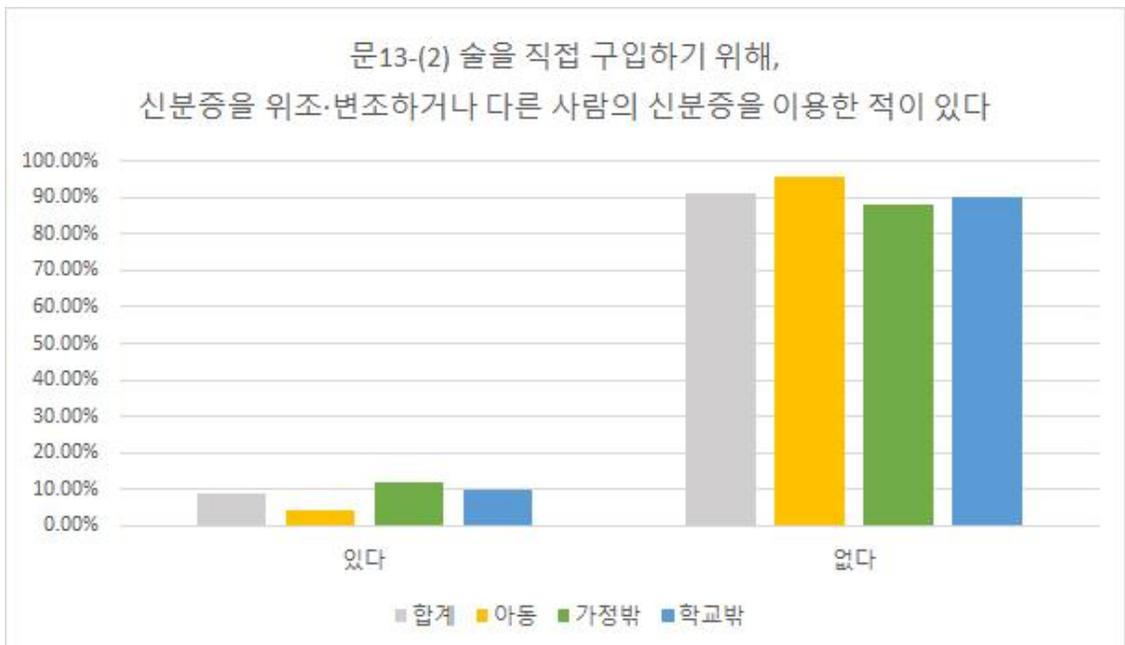
〈표 3-1-41〉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 위조 경험

문13-(1)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7	8.9%	179	91.1%	196
아동	3	4.40%	65	95.60%	68
가정밖	8	13.80%	50	86.20%	58
학교밖	6	8.60%	64	91.40%	70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험에 대해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13.8%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8.6%, 아동의 경우 4.4%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5) 술을 구하기 위한 신분 위조 경험

[그림 3-41] 술을 구하기 위한 신분 위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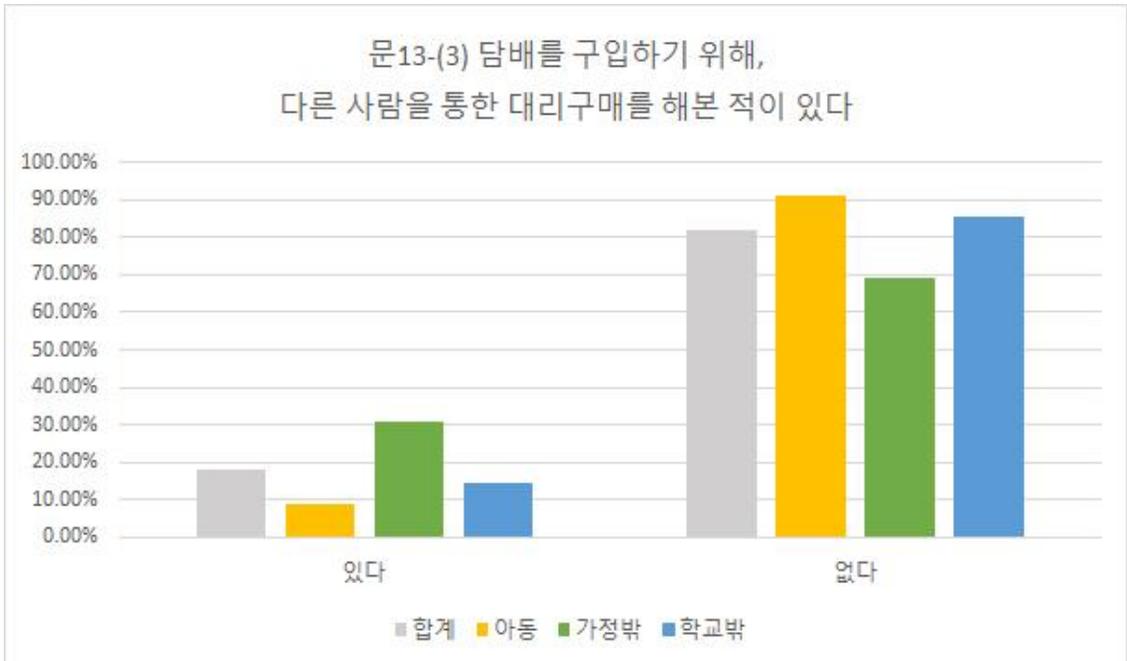
〈표 3-1-42〉 술을 구하기 위한 신분 위조 경험

문13-(2) 술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7	8.8%	179	91.2%	196
아동	3	4.40%	65	95.60%	68
가정밖	7	12.10%	51	87.90%	58
학교밖	7	10.00%	63	90.00%	70

술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적이 있는 경험에 대해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12.1%가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학교밖청소년이 10.0%, 아동이 4.4%로 나타났다.

#### 6) 담배를 대리구매해 본 경험

[그림 3-42] 담배를 대리구매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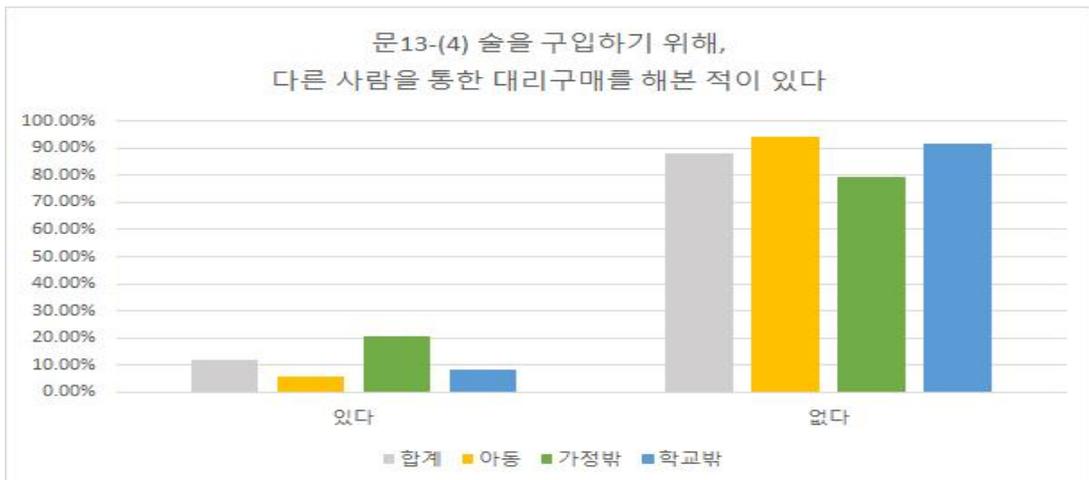
〈표 3-1-43〉 담배를 대리구매해 본 경험

문13-(3)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4	18.0%	162	82.0%	196
아동	6	8.80%	62	91.20%	68
가정밖	18	31.00%	40	69.00%	58
학교밖	10	14.30%	60	85.70%	70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가정밖청소년은 31.0%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학교밖청소년이 14.3%, 아동이 8.8% ‘있다’고 응답하여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구매를 해본적이 있는 경험에 대해 가정밖청소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술을 대리구매해 본 경험

[그림 3-43] 술을 대리구매해 본 경험



〈표 3-1-44〉 술을 대리구매해 본 경험

문13-(4)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2	11.7%	174	88.3%	196
아동	4	5.90%	64	94.10%	68
가정밖	12	20.70%	46	79.30%	58
학교밖	6	8.60%	64	91.40%	70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가정밖청소년 중 79.3%는 ‘없다’고 응답한 반면 20.7%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학교밖 청소년이 8.6%, 아동이 5.9%가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밖청소년이 술을 다른사람을 통해 대리구매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8) 음주로 인한 비행 경험

〈표 3-1-45〉 음주로 인한 비행 경험

문13-(5)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7	3.7%	189	96.3%	196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4	6.90%	54	93.10%	58
학교밖	3	4.30%	67	95.70%	70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아동은 100%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밖 청소년 4.3%, 가정밖청소년 6.9%가 ‘있다’고 응답하여 술을 통한 비행을 저지른 경험은 가정밖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9) 음주운전(자전거,오토바이) 경험

〈표 3-1-46〉 음주운전(자전거,오토바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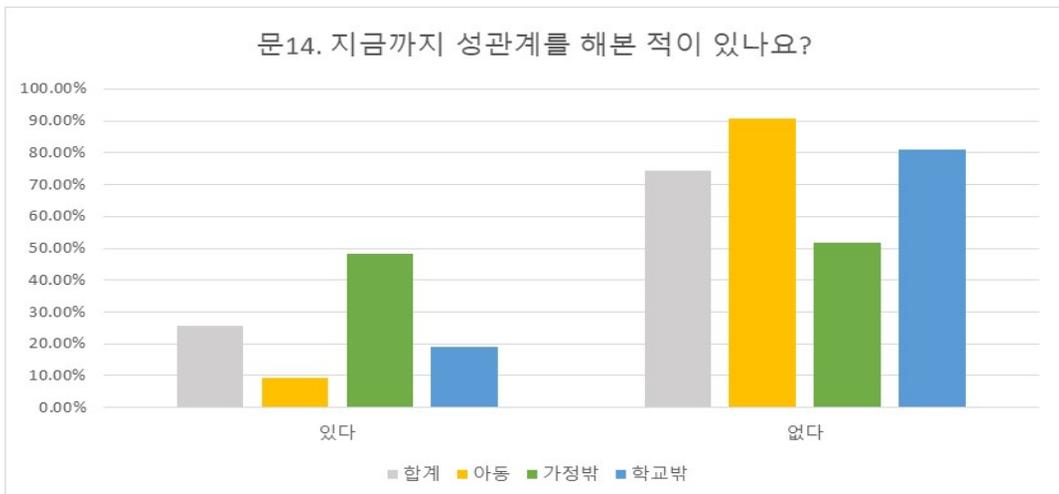
문13-(6)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5	2.6%	191	97.4%	196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2	3.40%	56	96.60%	58
학교밖	3	4.30%	67	95.70%	70

음주운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아동은 100%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3.4%, 학교밖 청소년의 4.3%가 음주운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운전 경험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밖청소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성관계 경험

### 1) 성관계 경험

[그림 3-44] 성관계 경험



〈표 3-1-47〉 성관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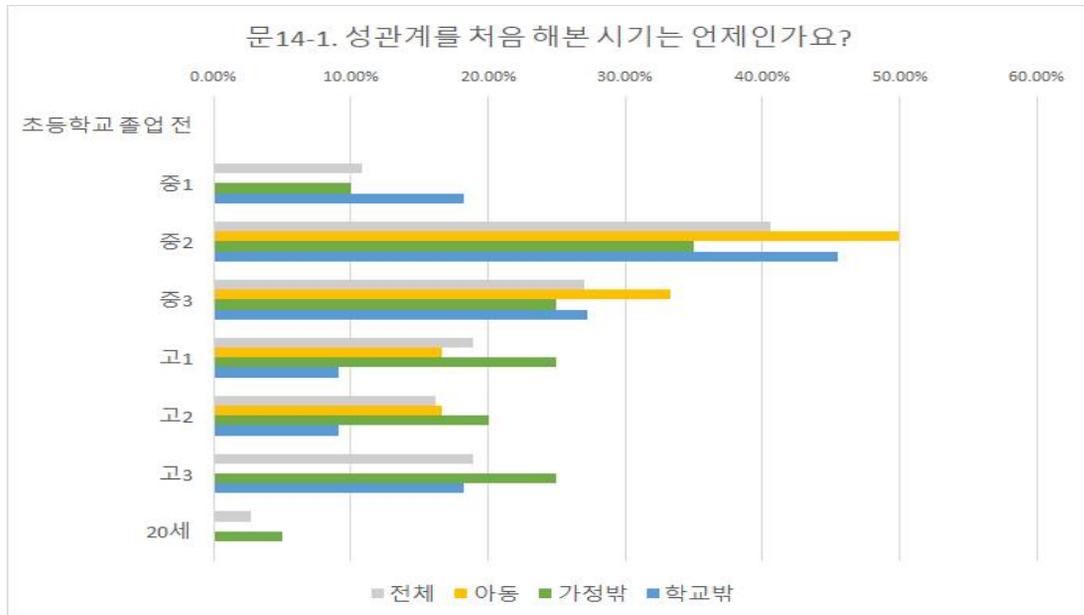
문14. 지금까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47	25.6%	143	74.4%	190
아동	6	9.40%	58	90.60%	64
가정밖	28	48.30%	30	51.70%	58
학교밖	13	19.10%	55	80.90%	68

성관계 경험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명(25.6%)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은 28명(48.3%)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13명(19.1%), 아동의 경우 6명(9.4%)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밖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관계 경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

[그림 3-45]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



〈표 3-1-48〉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

문14-1.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는 언제인가요?

구분	초등학교 졸업 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세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0	0.00%	4	10.81%	15	40.54%	10	27.03%	7	18.92%	6	16.22%	7	18.92%	1	2.70%	37
아동	0	0.00%	0	0.00%	3	50.00%	2	33.33%	1	16.67%	1	16.67%	0	0.00%	0	0.00%	6
가정밖	0	0.00%	2	10.00%	7	35.00%	5	25.00%	5	25.00%	4	20.00%	5	25.00%	1	5.00%	20
학교밖	0	0.00%	2	18.18%	5	45.45%	3	27.27%	1	9.09%	1	9.09%	2	18.18%	0	0.00%	11

최초 성관계 시기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조사 대상자 모두 중 2 때가 15명(40.54%)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은 중 3 때가 10명(27.03%)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제일 빠르게 나타난 시기는 4명(10.81%)이 중 1 때 경험이 있었으며, 아동은 중 2 때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학령기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가 3명(50%), 중학교 3학년이 2명(33.3%), 고등학교1학년과 2학년이 1명으로 뒤를 이은 반면,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5명(45.45%), 중학교 3학년이 3명(27.27%),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각 2명(18.18%)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최초 성관계 시기에 대해 중 2가 7명(35.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5명(25.0%), 고등학교 2학년이 4명(20.0%)의 순이었다.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모두 최초 성관계의 시기가 중 1이고 아동이 중 2인 만큼 중학생 나이부터 성관련 교육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성 관계시 피임 경험

[그림 3-46] 성 관계시 피임 경험



〈표 3-1-49〉 성 관계시 피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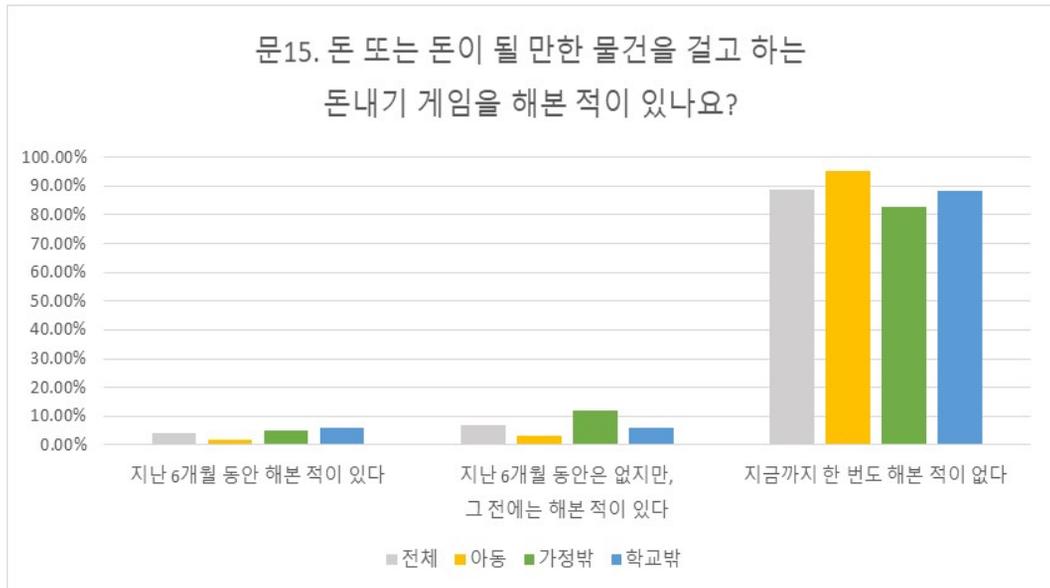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5	31.3%	13	27.1%	13	27.1%	7	14.6%	48
아동	2	28.6%	2	28.6%	2	28.6%	1	14.3%	7
가정밖	11	39.3%	6	21.4%	7	25.0%	4	14.3%	28
학교밖	2	15.4%	5	38.5%	4	30.8%	2	15.4%	13

성관계시 피임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답을 한 대상자 중 ‘항상 피임을 했다’가 15명(31.3%)에 불과했고, ‘대부분 피임을 했다’가 13명(27.1%)이었으며, ‘가끔 피임을 했다’와 ‘전혀 하지 않았다’가 20명(41.7%)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항상 피임했다’가 가정밖 청소년 11명(39.3%), 학교밖 청소년 2명(15.4%), 아동 2명(28.6%)으로 나타나 피임에 대한 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임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8. 돈내기 게임 및 재산피해 경험

### 1) 돈내기 게임 경험

[그림 3-47] 돈내기 게임 경험



〈표 3-1-50〉 돈내기 게임 경험

문15.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난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8	4.3%	13	7.0%	166	88.8%	187
아동	1	1.60%	2	3.30%	58	95.10%	61
가정박	3	5.20%	7	12.10%	48	82.80%	58
학교밖	4	5.90%	4	5.90%	60	88.20%	68

돈내기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21명(11.3%)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정박

청소년 10명(17.3%), 학교밖 청소년 8명(11.8%), 아동 3명(4.9%)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돈내기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되었다’와 ‘축제나 행사 참여’, ‘가위바위보 게임’ 등이 있었으나 빈도가 적게 나와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2) 최근 6개월 내의 돈내기 게임 경험

〈표 3-1-51〉 최근 6개월 내의 돈내기 게임 경험

문15-2. 최근 6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지금까지 1~2회		한 달 1~2회		일주일 1~2회		거의 매일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	1.51%	5	2.51%	1	0.50%	1	0.50%	10
아동	0	0.00%	1	1.43%	0	0.00%	0	0.00%	1
가정밖	2	3.39%	1	1.69%	1	1.69%	1	1.69%	5
학교밖	1	1.43%	3	4.29%	0	0.00%	0	0.00%	4

최근 6개월 동안의 돈내기 게임의 빈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5명(8.46%), 학교밖 청소년이 4명(5.72%)으로 응답하였으나, 아동은 1명(1.43%)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빈도 수는 높지 않았으나, ‘매일’ 또는 ‘일주일에 1, 2회’ 하는 가정밖 청소년이 2명(3.38%)이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돈내기 게임을 하게 된 이유

《표 3-1-52》 돈내기 게임을 하게 된 이유

문15-3. 최근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선택)																			
구 분	친구소 개		선후배 소개		호기심 또는 일시적 인 재미로		고민이나 스트레 스, 나쁜 기분(우 울,불안, 분노,짜 증 등)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 과 어울리 기 위해서		친구나 선후배 가 하라고 시켜서		유흥비 를 마련하 기 위해서		지금까 지 잃은 돈을 만회하 기 위해서		기타		전 체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전 체	2	18.18%	1	9.09%	4	36.36%	0	0.00%	0	0.00%	0	0.00%	0	0.00%	3	27.27%	1	9.09%	11
아 동	1	1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가 정 박 학 교 박	1	20.00%	0	0.00%	1	2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40.00%	1	20.00%	5
학 교 박	0	0.00%	1	20.00%	3	6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0.00%	0	0.00%	5

최근 6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에 대해 ‘호기심 또는 일시적인 재미로’가 4명(36.36%)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가 3명(27.27%)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밖에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 등이 있었다.

#### 4)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절도를 한 경험

[그림 3-1-5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절도를 한 경험



〈표 3-1-5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절도를 한 경험

문16-(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팔았던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	11.54%	23	88.46%	26
아동	1	14.29%	6	85.71%	7
가정밖	1	8.33%	11	91.67%	12
학교밖	1	14.29%	6	85.71%	7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팔았던 적이 있다(중고물품 거래, 아이템 거래 등)” 문항에 대한 답은 빈도는 낮지만 아동,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청소년 모두 1명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5)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사기를 친 경험

《표 3-1-54》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사기를 친 경험

문 16-(2) 돈내기 게임 때문에 사기를 친 적이 있다(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거래 사기 등)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	3.85%	25	96.15%	26
아동	0	0.00%	7	100.00%	7
가정밖	1	8.33%	11	91.67%	12
학교밖	0	0.00%	7	100.00%	7

“돈내기 게임 때문에 사기를 친 적이 있다(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거래 사기 등)” 문항에서 가정 밖 청소년 1명(9.33%)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6)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경험

《표 3-1-55》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경험

문16-(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4	15.38%	22	84.62%	26
아동	0	0.00%	7	100.00%	7
가정밖	4	33.33%	8	66.67%	12
학교밖	0	0.00%	7	100.00%	7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답은 가정밖청소년만이 4명(33.3%)으로 답하였다.

### 7)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린 경험

〈표 3-1-56〉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린 경험

문16-(4)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8	30.77%	18	69.23%	26
아동	0	0.00%	7	100.00%	7
가정밖	5	41.67%	7	58.33%	12
학교밖	3	42.86%	4	57.14%	7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정밖 청소년 5명(41.7%), 학교밖 청소년 3명(42.8%)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은 없었다.

### 8)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표 3-1-57〉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문16-(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	3.85%	25	96.15%	26
아동	0	0.00%	7	100.00%	7
가정밖	1	8.33%	11	91.67%	12
학교밖	0	0.00%	7	100.00%	7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한 답은 가정박 청소년 1명(8.3%)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전항의 질문과 비교했을 때 사행성 게임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업체보다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려 어려움을 겪은 경험

〈표 3-1-58〉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돈을 빌려 어려움을 겪은 경험

문16-(6)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5	19.23%	21	80.77%	26
아동	0	0.00%	7	100.00%	7
가정박	4	33.33%	8	66.67%	12
학교박	1	14.29%	6	85.71%	7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 가정박 청소년 4명(33.3%), 학교박 청소년 1명(14.2%)으로 응답하였다.

### 10)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빌린 돈의 액수

〈표 3-1-59〉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빌린 돈의 액수

문16-1. 돈내기 게임을 위해 지금까지 빌린 돈은 전부 얼마 정도인가? (단위: 만원)															
	0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0	58.82%	2	11.76%	1	5.88%	1	5.88%	1	5.88%	1	5.88%	1	5.88%	17
아동	2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가정박	4	40.00%	2	20.00%	1	10.00%	1	10.00%	1	10.00%	0	0.00%	1	10.00%	10
학교박	4	8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0.00%	0	0.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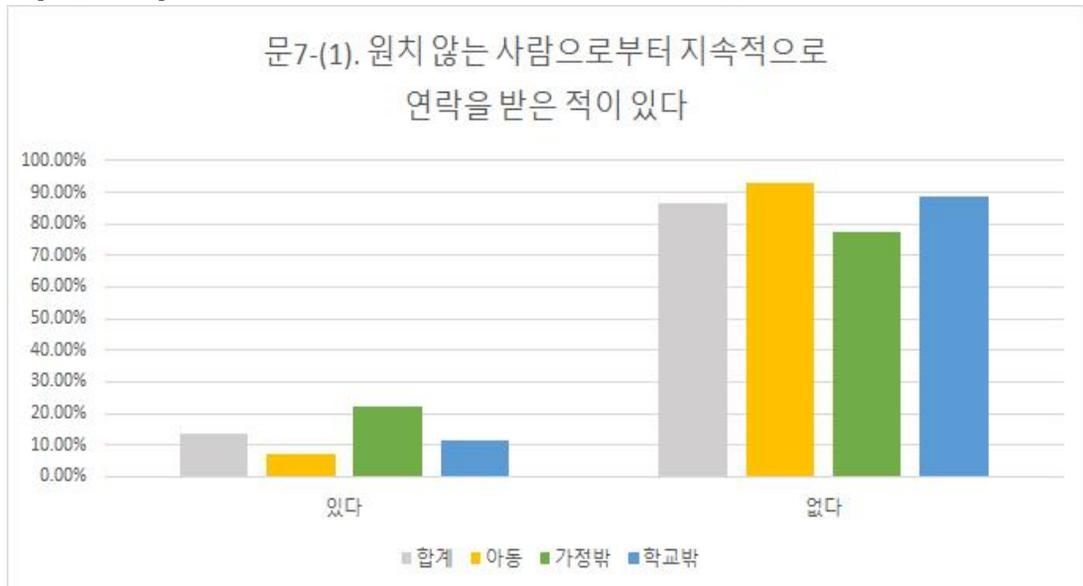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빈도는 낮았지만 “돈내기 게임을 위해 지금까지 빌린 돈은 전부 얼마 정도인가요?” 질문에 아동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박 청소년은 500만원까지 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교박 청소년도 300만원까지 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었다.

## 6. 온라인 피해 경험

※ 온라인 피해 경험에 대한 분석을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과 붙여서 앞에 옮겨 배치했다. 그러므로 부록의 설문지 순서와는 다를 수 있다.

### 1)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림 3-30]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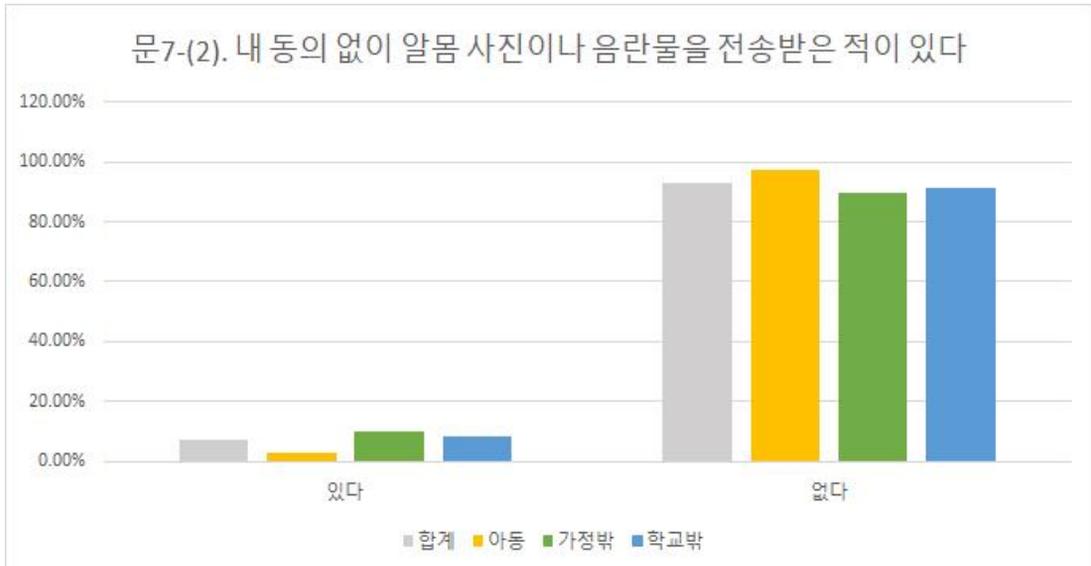
〈표 3-1-60〉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문7-(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6	13.7%	171	86.3%	197
아동	5	7.20%	64	92.80%	69
가정밖	13	22.40%	45	77.60%	58
학교밖	8	11.40%	62	88.60%	70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동은 7.2%, 가정 밖 청소년은 22.4%, 학교밖 청소년은 1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동의 없이 알몸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

[그림 3-31] 동의 없이 알몸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경험



〈표 3-1-61〉 동의 없이 알몸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경험

문7-(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4	7.3%	184	92.7%	198
아동	2	2.90%	68	97.10%	70
가정밖	6	10.30%	52	89.70%	58
학교밖	6	8.60%	64	91.40%	70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아동이 2.9%, 가정밖 청소년이 10.3%, 학교밖 청소년이 8.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출사진이나 음란물에 나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경험

〈표 3-1-62〉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나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경험

문7-(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	0.9%	196	99.1%	198
아동	1	1.40%	69	98.60%	70
가정밖	0	0.00%	58	100.00%	58
학교밖	1	1.40%	69	98.60%	70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가정밖 청소년은 없으며, 아동이 1.4%, 학교밖 청소년이 1.4%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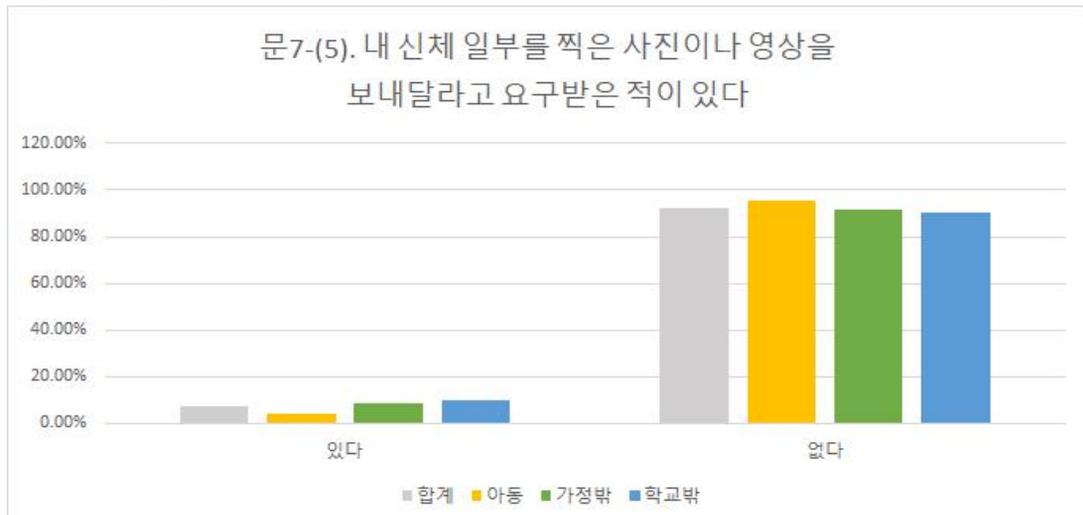
〈표 3-1-63〉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

문7-(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4	2.2%	194	97.8%	198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3	5.20%	55	94.80%	58
학교밖	1	1.40%	69	98.60%	70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는 경우는 아동은 없으며, 가정밖 청소년이 5.2%, 학교밖 청소년이 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내 신체의 일부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그림 3-32] 내 신체의 일부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표 3-1-64》내 신체의 일부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문7-(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5	7.6%	183	92.4%	198
아동	3	4.30%	67	95.70%	70
가정밖	5	8.60%	53	91.40%	58
학교밖	7	10.00%	63	90.00%	70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경험은 아동 4.3%, 가정밖 청소년 8.6%, 학교밖 청소년 10.0%로 나타났다.

6) 내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린다는 협박을 받아 본 경험

《표 3-1-65》 내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린다는 협박을 받아 본 경험

문7-(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받아 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6	3.2%	192	96.8%	198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3	5.20%	55	94.80%	58
학교밖	3	4.30%	67	95.70%	70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받아 본 경험은 아동은 없으며, 가정밖 청소년 5.2%, 학교밖 청소년 4.3%로 나타났다.

## 7)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험

〈표 3-1-66〉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험

문7-(7).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 공개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	1.0%	196	99.0%	198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1	1.70%	57	98.30%	58
학교밖	1	1.40%	69	98.60%	70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 공개된 경험은 아동은 없으며, 가정밖 청소년 1.7%, 학교밖 청소년 1.4%로 나타났다.

## 8) 금품을 미끼로 내 영상물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험

〈표 3-1-67〉 금품을 미끼로 내 영상물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

문7-(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9	4.7%	189	95.3%	198
아동	2	2.90%	68	97.10%	70
가정밖	4	6.90%	54	93.10%	58
학교밖	3	4.30%	67	95.70%	70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경험은 아동 2.9%, 가정밖 청소년 6.9%, 학교밖 청소년 4.3%)로 나타났다.

##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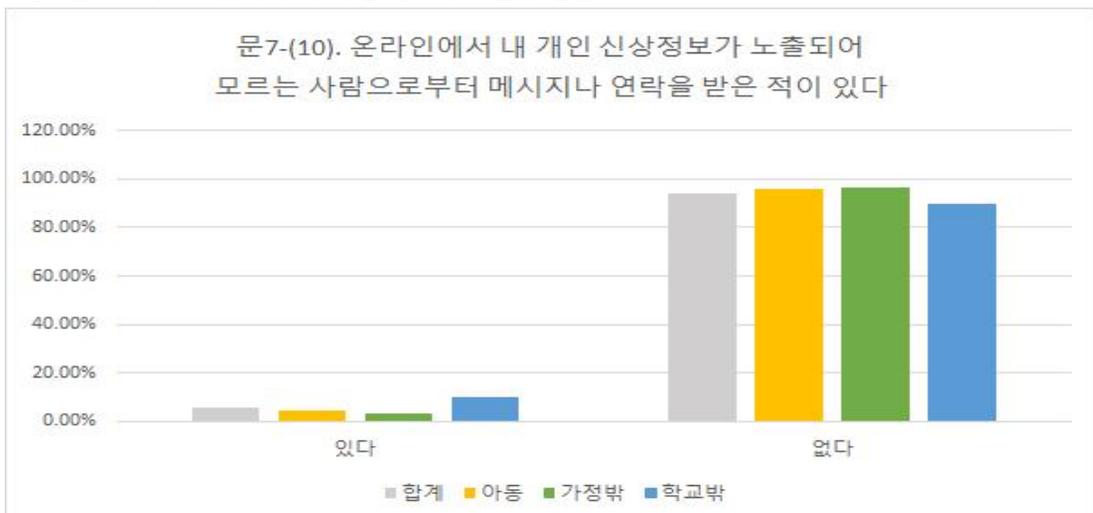
《표 3-1-68》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경험

문7-(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9	4.5%	189	95.5%	198
아동	1	1.40%	69	98.60%	70
가정밖	2	3.40%	56	96.60%	58
학교밖	6	8.60%	64	91.40%	70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경험은 아동 1.4%, 가정밖 청소년 3.4%, 학교밖 청소년 8.6%로 나타났다.

## 10) 온라인에서 내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경험

[그림 3-33] 온라인에서 내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경험



〈표 3-1-69〉 온라인에서 내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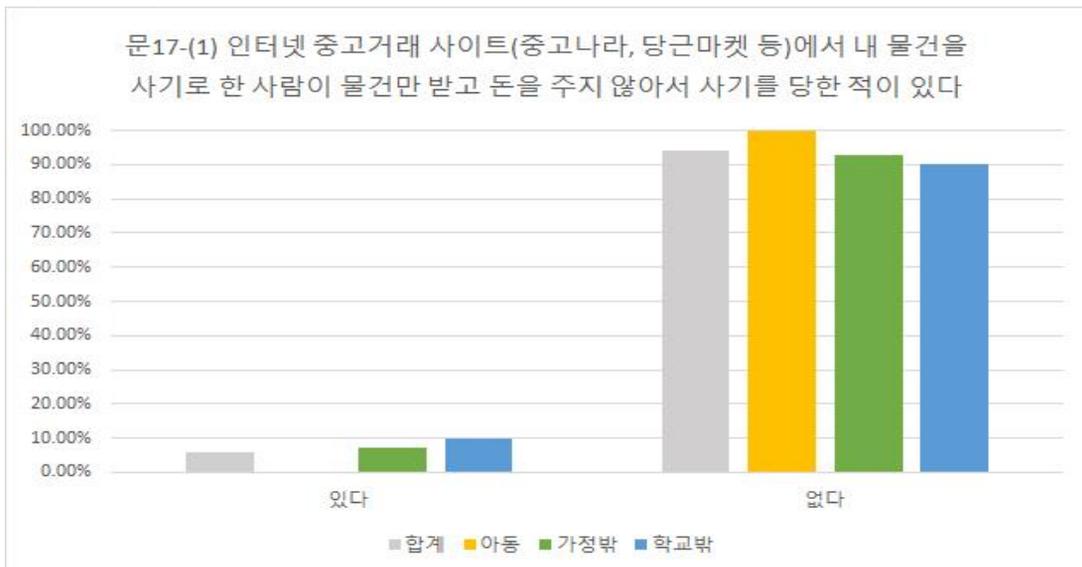
문7-(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2	5.9%	186	94.1%	198
아동	3	4.30%	67	95.70%	70
가정밖	2	3.40%	56	96.60%	58
학교밖	7	10.00%	63	90.00%	7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경험은 아동 4.3%, 가정밖 청소년 3.4%, 학교밖 청소년 10.0%로 나타났다.

## 10.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

###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그림 3-49]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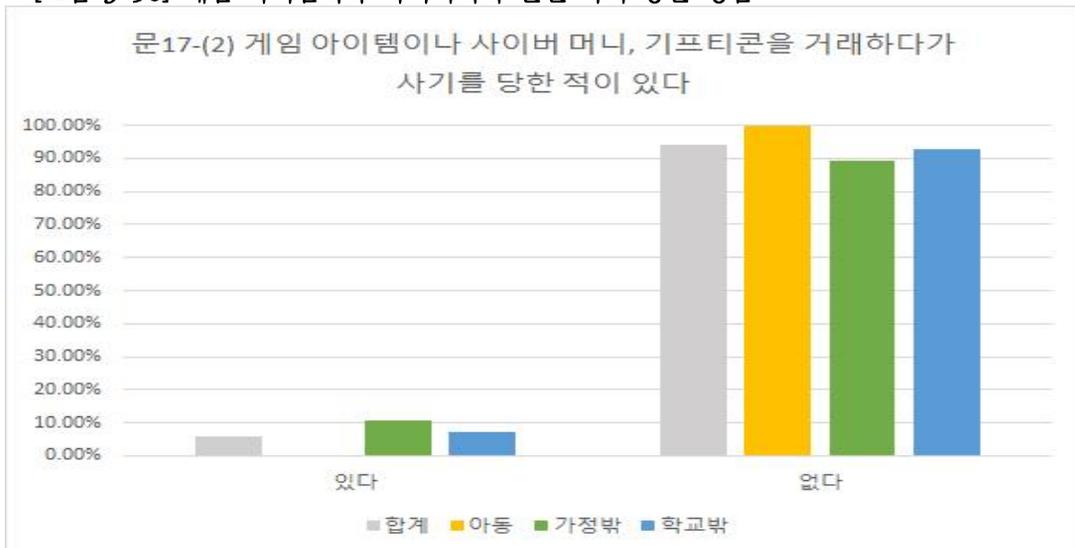
〈표 3-1-7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문17-(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11	5.67%	183	94.33%	194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4	7.14%	52	92.86%	56
학교밖	7	10.00%	63	90.00%	7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11명(5.67%)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 7명(10.0%), 가정밖 청소년 4명(7.1%) 순이며, 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관련 사기 당한 경험

[그림 3-5]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관련 사기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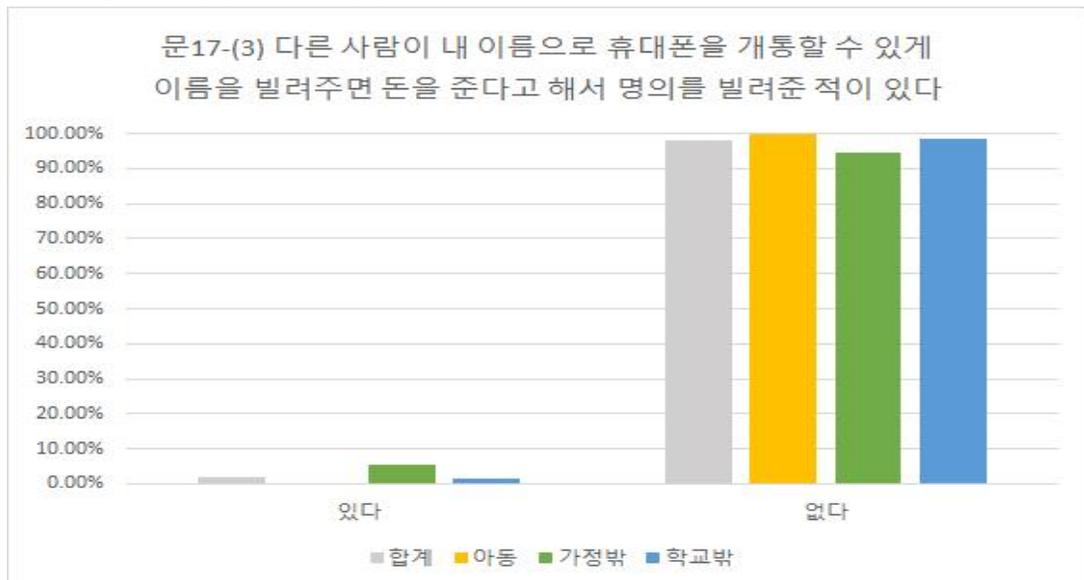
〈표 3-1-71〉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관련 사기 당한 경험

문17-(2)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기프트콘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11	5.67%	183	94.33%	194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6	10.71%	50	89.29%	56
학교밖	5	7.14%	65	92.86%	70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기프트콘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해 11명(5.67%)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가정밖청소년은 8명(10.7%), 학교밖청소년은 5명(7.1%)이었으며 아동은 없었다.

### 3) 휴대폰 명의 대여 경험

[그림 3-51] 휴대폰 명의 대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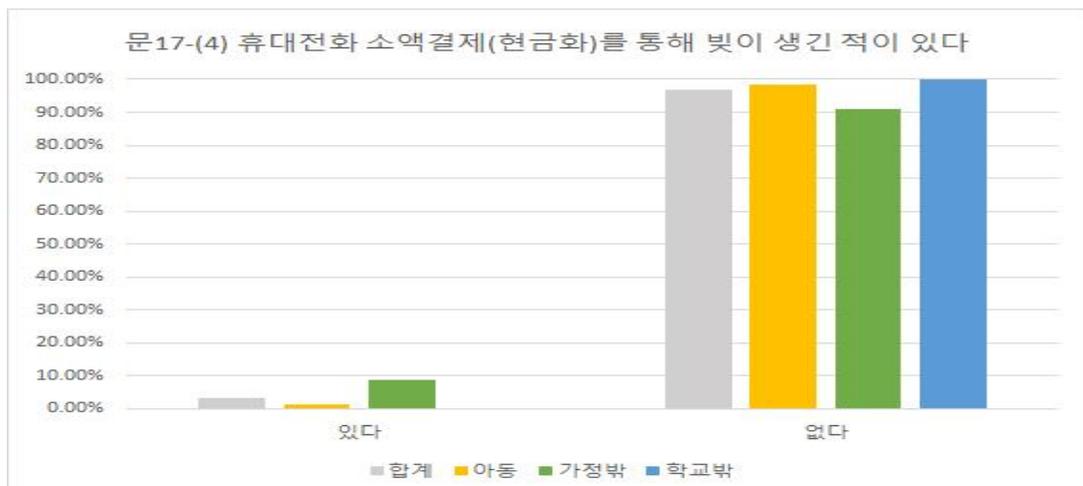
〈표 3-1-72〉 휴대폰 명의 대여 경험

문17-(3)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4	2.06%	190	97.94%	194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3	5.36%	53	94.64%	56
학교밖	1	1.43%	69	98.57%	70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해 가정밖청소년은 3명(5.4%), 학교밖청소년은 1명(1.4%) 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은 없다고 응답했다.

#### 4)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빚이 생긴 경험

[그림 3-52]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빚이 생긴 경험



〈표 3-1-73〉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빚이 생긴 경험

문17-(4)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를 통해 빚이 생긴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6	3.09%	188	96.91%	194
아동	1	1.47%	67	98.53%	68
가정밖	5	8.93%	51	91.07%	56
학교밖	0	0.00%	70	100.00%	70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를 통해 빚이 생긴 적이 있다” 문항은 학교밖청소년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는 응답은 가정밖청소년 5명(8.9%)으로 아동 1명(1.5%)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 5) 보이스포싱이나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경험

〈표 3-1-74〉 보이스포싱이나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경험

문17-(5) 보이스포싱 또는 스미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	1.55%	191	98.45%	194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2	3.57%	54	96.43%	56
학교밖	1	1.43%	69	98.57%	70

전체적으로 빈도는 높지 않았지만, “보이스포싱 또는 스미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해 가정밖청소년 2명(3.6%), 학교밖청소년 1명(1.4%)이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 6) 인터넷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경험

〈표 3-1-75〉 인터넷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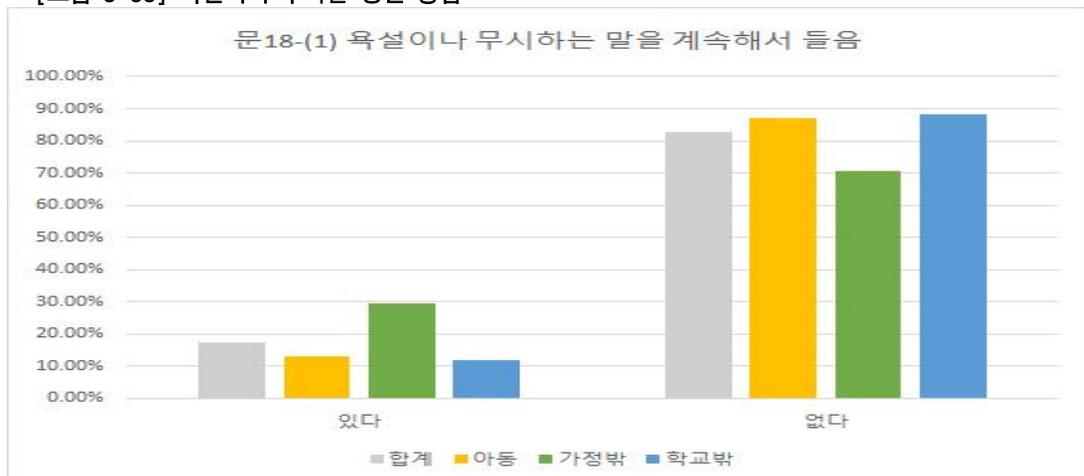
문17-(6)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아 빚을 진 적이 있다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	1.03%	192	98.97%	194
아동	0	0.00%	68	100.00%	68
가정밖	2	3.57%	54	96.43%	56
학교밖	0	0.00%	70	100.00%	70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아 빚을 진 적이 있다” 문항은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이 모두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정밖청소년만 2명(3.6%)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10. 폭력 피해 경험

### 1) 폭언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그림 3-53] 폭언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표 3-1-76〉 폭언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문18-(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음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4	17.35%	162	82.65%	196
아동	9	12.86%	61	87.14%	70
가정밖	17	29.31%	41	70.69%	58
학교밖	8	11.76%	60	88.24%	68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음”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34명(17.35%)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정밖 청소년 17명(29.3%) 아동 9명(12.9%), 학교밖 청소년 8명(11.8%)으로 가정밖 청소년이 아동이나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2) 폭력 피해 경험

〈표 3-1-77〉 폭력 피해 경험

문18-(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1	5.61%	185	94.39%	196
아동	2	2.86%	68	97.14%	70
가정밖	5	8.62%	53	91.38%	58
학교밖	4	5.88%	64	94.12%	68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친 경험은 전체 11명(5.61%)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 5명(8.6%), 학교밖 청소년 4명(5.9%), 아동 2명(2.9%)으로 나타났고, 가정밖 청소년이 그 중 높은 편이다.

##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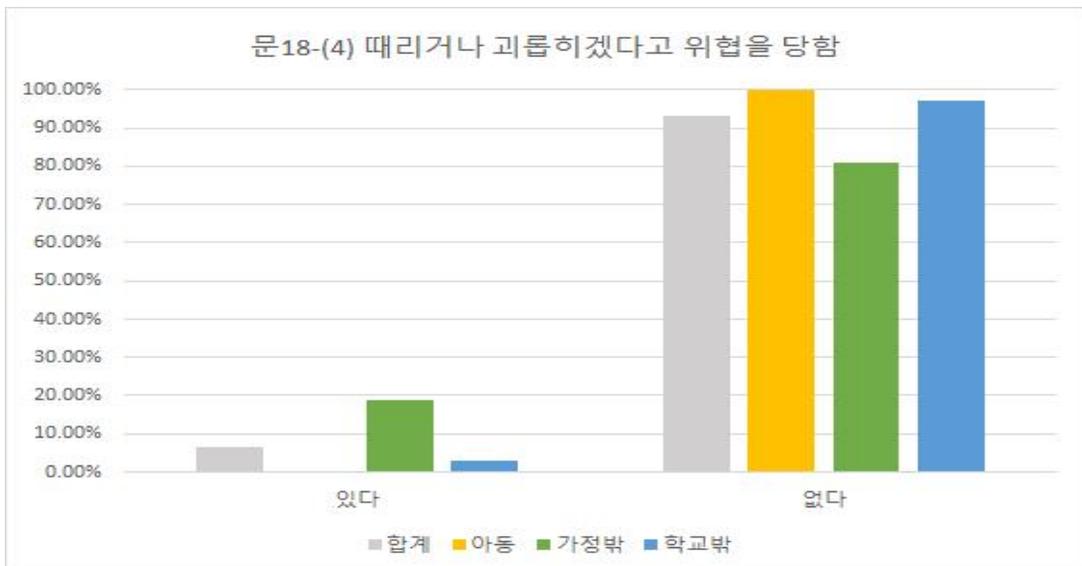
〈표 3-1-7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문18-(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전체	4	2.04%	192	97.96%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3	5.17%	55	94.83%	58
학교밖	1	1.47%	67	98.53%	6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은 전체 4명(2.04%)으로 높지 않았으며, 가정밖 청소년이 3명(5.2%), 학교밖 청소년이 1명(1.5%)이었고 아동은 경험이 없었다.

#### 4)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그림 3-54]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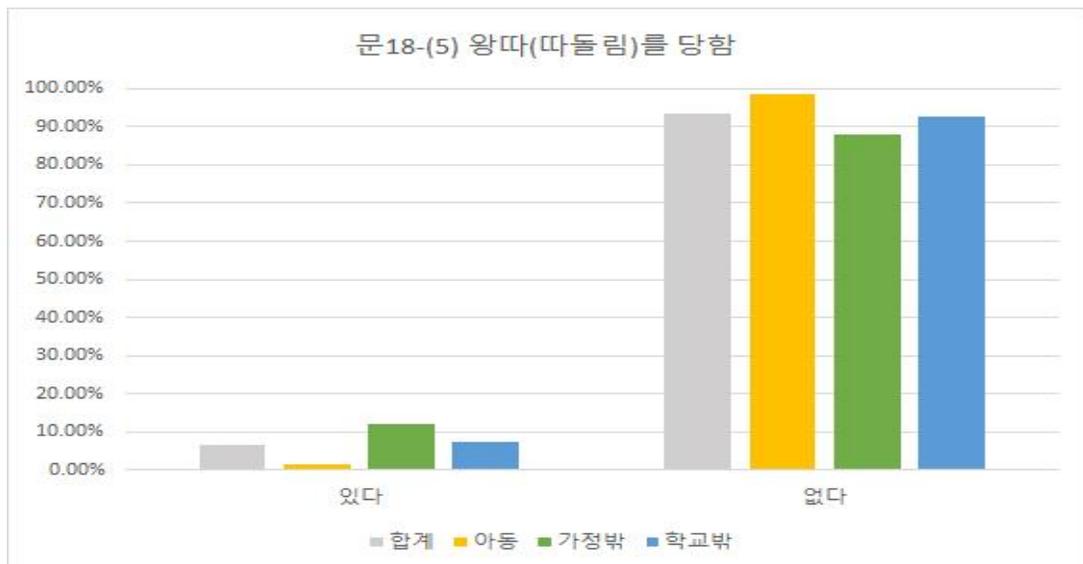
〈표 3-1-79〉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문18-(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3	6.63%	183	93.37%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11	18.97%	47	81.03%	58
학교밖	2	2.94%	66	97.06%	68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한 경험은 전체 13명(6.63%)으로,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은 11명(19.0%), 학교밖 청소년은 2명(2.9%)이었으며 아동은 없었다. 가정밖 청소년의 비율이 학교밖 청소년이나 아동에 비해 상당히 높다.

### 5) 왕따를 당한 경험

[그림 3-55] 왕따를 당한 경험



〈표 3-1-80〉 왕따를 당한 경험

문18-(5) 왕따(따돌림)를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3	6.63%	183	93.37%	196
아동	1	1.43%	69	98.57%	70
가정밖	7	12.07%	51	87.93%	58
학교밖	5	7.35%	63	92.65%	68

왕따를 당한 경험은 전체 13명(6.83%)으로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7명(12.1%), 학교밖 청소년이 5명(7.4%), 아동이 1명(1.4%)으로 가정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6) 강제 심부름을 당한 경험

〈표 3-1-81〉 강제 심부름을 당한 경험

문18-(6)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데이터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0	0.00%	196	100.00%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0	0.00%	58	100.00%	58
학교밖	0	0.00%	68	100.00%	68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데이터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한 경험은 아동과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도 모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온라인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

〈표 3-1-82〉 온라인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

문18-(7)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5	2.55%	191	97.45%	196
아동	1	1.43%	69	98.57%	70
가정밖	2	3.45%	56	96.55%	58
학교밖	2	2.94%	66	97.06%	68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전체 5명 (2.55%)로 모두 높지 않은 편인데,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모두 2명이고, 아동은 1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 8)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

〈표 3-1-83〉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

문18-(8)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	1.02%	194	98.98%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1	1.72%	57	98.28%	58
학교밖	1	1.47%	67	98.53%	68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문항의 경우도 전체 2명 (1.02%)으로,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모두 1명이고, 아동은 없었다.

### 9) 말이나 몸짓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

〈표 3-1-84〉 말이나 몸짓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

문18-(9)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0	5.10%	186	94.90%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6	10.34%	52	89.66%	58
학교밖	4	5.88%	64	94.12%	68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전체 10명(5.10%)이었으며, 가정밖청소년은 6명(10.3%), 학교밖청소년은 4명(1.5%)으로 나타났고, 아동은 없었다.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의 비중이 다른 괴롭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정밖청소년의 비중이 학교밖청소년보다 높았다.

### 10)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

〈표 3-1-85〉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

문18-(10)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	1.02%	194	98.98%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1	1.72%	57	98.28%	58
학교밖	1	1.47%	67	98.53%	68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전체 2명(1.2%)로 낮았으며, 가정밖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은 각 1명이었으며, 아동은 없었다.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보다 비중은 낮은 편이다.

## 11) 강제적 성추행 피해 경험

《표 3-1-86》 강제적 성추행 피해 경험

문18-(11)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3	1.53%	193	98.47%	196
아동	0	0.00%	70	100.00%	70
가정밖	2	3.45%	56	96.55%	58
학교밖	1	1.47%	67	98.53%	68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한 경험은 전체 3명(1.53%)이었으며, 그 중 가정밖청소년은 2명(3.4%), 학교밖청소년은 1명(1.5%)이었고, 아동은 없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고의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보다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어지는 문항은 조건만남 관련 문항인데, 조사 내용의 민감도는 높으나 응답자의 수가 낮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1, 폭력 가해 경험

### 1) 다른사람 놀리거나 조롱하기

《표 3-1-87》 다른사람 놀리거나 조롱하기

문21-(1)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73	87.82%	12	6.09%	0	0.00%	5	2.54%	2	1.02%	5	2.54%	197
아동	58	84.06%	6	8.70%	0	0.00%	2	2.90%	1	1.45%	2	2.90%	69
가정밖	48	82.76%	3	5.17%	0	0.00%	3	5.17%	1	1.72%	3	5.17%	58
학교밖	67	95.71%	3	4.29%	0	0.00%	0	0.00%	0	0.00%	0	0.00%	70

1년 내에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을 한 경우가 전체 24명(12.2%)이었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10명(17.24%)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이 11명(15.9%)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3명(4.29%)으로 낮게 나왔다. 가정밖 청소년의 가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2)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표 3-1-88》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문21-(2)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경험 여부 (가해)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0	96.45%	4	2.03%	1	0.51%	1	0.51%	1	0.51%	0	0.00%	197
아동	68	98.55%	1	1.45%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2	89.66%	3	5.17%	1	1.72%	1	1.72%	1	1.72%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1년 내 다른 사람에 대한 집단 따돌림(왕따)의 가해 경험은 전체 7명(3.55%)로 높지 않았으나,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6명(10.34%)이었고, 아동이 1명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전혀 없었다.

### 3) 패싸움 경험

〈표 3-1-89〉 패싸움 경험

문21-(3) 패싸움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88	95.43%	7	3.55%	0	0.00%	1	0.51%	1	0.51%	0	0.00%	197
아동	67	97.10%	2	2.9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3	91.38%	3	5.17%	0	0.00%	1	1.72%	1	1.72%	0	0.00%	58
학교밖	68	97.14%	2	2.86%	0	0.00%	0	0.00%	0	0.00%	0	0.00%	70

1년 내 패싸움에 대한 경험은 전체 197명 중 9명(4.47%)이었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5명(8.61%)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이 각 2명이었다.

### 4)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표 3-1-90〉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문21-(4)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83	92.89%	12	6.09%	0	0.00%	1	0.51%	1	0.51%	0	0.00%	197
아동	67	97.10%	2	2.9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1	87.93%	5	8.62%	0	0.00%	1	1.72%	1	1.72%	0	0.00%	58
학교밖	65	92.86%	5	7.14%	0	0.00%	0	0.00%	0	0.00%	0	0.00%	70

1년 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은 전체 197명 중 14명(7.11%)이었는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7명(12.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5명(7.1%)이었으며, 아동은 2명(2.9%)이었다.

## 5)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표 3-1-91〉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문21-(5) 다른 사람 협박하기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89	95.94%	6	3.05%	2	1.02%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7	97.10%	1	1.45%	1	1.45%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3	91.38%	4	6.90%	1	1.72%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9	98.57%	1	1.43%	0	0.00%	0	0.00%	0	0.00%	0	0.00%	70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험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 197명 중 8명(4.07%)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5명(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은 2명(2.9%), 학교밖 청소년은 1명(1.43%)에 불과하였다.

## 6)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 경험

〈표 3-1-92〉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 경험

문21-(6)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뜯기)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3	97.97%	2	1.02%	1	0.51%	0	0.00%	0	0.00%	1	0.51%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4	93.10%	2	3.45%	1	1.72%	0	0.00%	0	0.00%	1	1.72%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뜯기) 경험은 가정밖 청소년만 3명(5.17%)이 있었으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 7)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

〈표 3-1-9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

문21-(7)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3	97.97%	2	1.02%	1	0.51%	0	0.00%	0	0.00%	1	0.51%	197
이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4	93.10%	2	3.45%	1	1.72%	0	0.00%	0	0.00%	1	1.72%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은 가정밖 청소년만 3명(5.17%)이 답하였으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은 없다고 답하였다.

## 8) 성폭행이나 성희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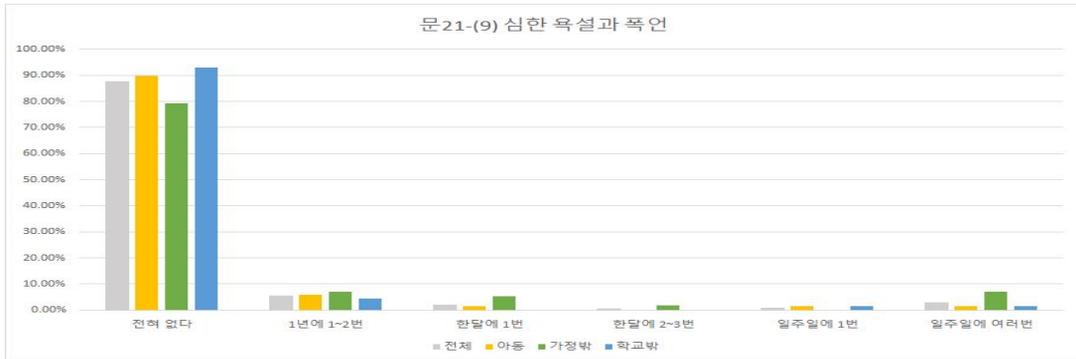
〈표 3-1-94〉 성폭행이나 성희롱 경험

문21-(8) 성폭행이나 성희롱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0	0.00%	1	0.51%	1	0.51%	0	0.00%	0	0.00%	197
이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6	96.55%	0	0.00%	1	1.72%	1	1.72%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성폭행이나 성희롱 경험도 가정밖 청소년만 2명(3.44%)이 있었으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은 없다고 답하였다.

### 9)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경험

[그림 3-56]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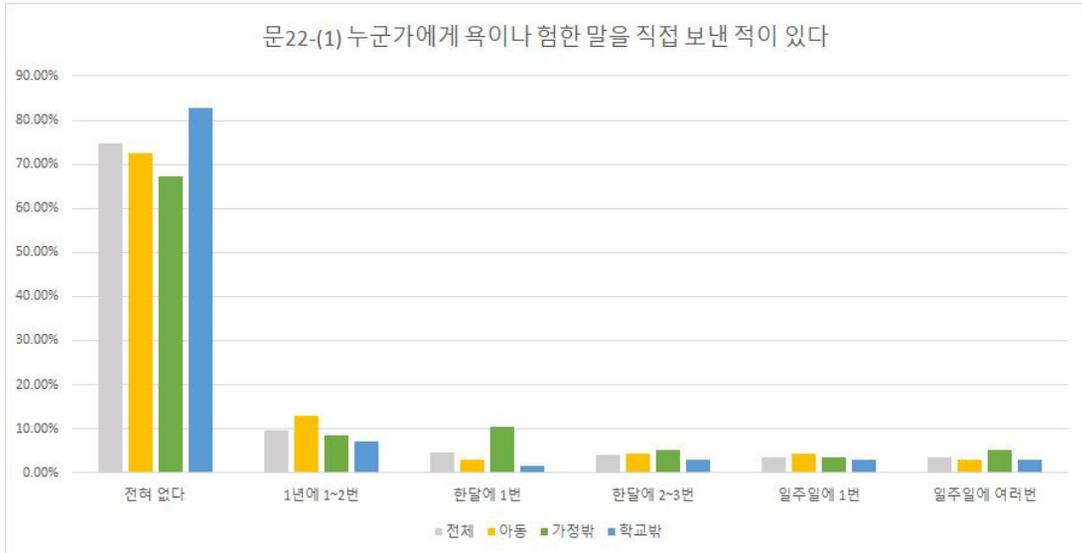
〈표 3-1-95〉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경험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73	87.82%	11	5.58%	4	2.03%	1	0.51%	2	1.02%	6	3.05%	197
아동	62	89.86%	4	5.80%	1	1.45%	0	0.00%	1	1.45%	1	1.45%	69
가정밖	46	79.31%	4	6.90%	3	5.17%	1	1.72%	0	0.00%	4	6.90%	58
학교밖	65	92.86%	3	4.29%	0	0.00%	0	0.00%	1	1.43%	1	1.43%	70

심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경험은 다른 가해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는 24명(12.19%)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12명(20.09%)로 전체 가해 경험 중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이 7명(8.70%)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5명(7.15%)이었다.

## 10)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그림 3-57]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표 3-1-96〉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47	74.62%	19	9.64%	9	4.57%	8	4.06%	7	3.55%	7	3.55%	197
아동	50	72.46%	9	13.04%	2	2.90%	3	4.35%	3	4.35%	2	2.90%	69
가정밖	39	67.24%	5	8.62%	6	10.34%	3	5.17%	2	3.45%	3	5.17%	58
학교밖	58	82.86%	5	7.14%	1	1.43%	2	2.86%	2	2.86%	2	2.86%	70

온라인 상에서 남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한 경험은 전체가 50명(25.38%)인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19명(2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아동이 19명(27.54%)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12명(17.15%)이었다.

## 11)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욕을 퍼뜨린 경험

〈표 3-1-97〉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욕을 퍼뜨린 경험

문22-(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76	89.34%	14	7.11%	5	2.54%	1	0.51%	1	0.51%	0	0.00%	197
아동	60	86.96%	9	13.04%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0	86.21%	4	6.90%	3	5.17%	1	1.72%	0	0.00%	0	0.00%	58
학교밖	66	94.29%	1	1.43%	2	2.86%	0	0.00%	1	1.43%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나쁜 소문 퍼뜨리기를 한 경험은 전체가 21명(10.67%)인데, 그 중 가정밖 청소년이 8명(13.7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아동이 9명(13.04%)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4명(5.72%)이었다.

## 12) 온라인 상에서 스토킹을 한 경험

〈표 3-1-98〉 온라인 상에서 스토킹을 한 경험

문22-(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1	0.51%	1	0.51%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8	98.55%	0	0.00%	1	1.45%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스토킹을 한 경험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으며, 가정밖 청소년이 1명(1.72%)이었고, 아동 역시 1명(1.45%)이었으며, 학교밖청소년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당사자가 원치 않는 엽기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경험

〈표 3-1-99〉 당사자가 원치 않는 엽기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경험

문22-(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 엽기사진,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4	98.48%	2	1.02%	1	0.51%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6	96.55%	1	1.72%	1	1.72%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9	98.57%	1	1.43%	0	0.00%	0	0.00%	0	0.00%	0	0.00%	70

당사자가 원치 않는 엽기사진이나 동영상 게시에 대한 응답 역시 전체 3명(1.53%)에 불과했는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2명(3.44%)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은 1명(1.43%)이었으며, 아동은 없었다.

### 14) 온라인 상에서 다른사람 계정을 도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경험

〈표 3-1-100〉 온라인 상에서 다른사람 계정을 도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경험

문22-(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4	98.48%	2	1.02%	1	0.51%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8	98.55%	0	0.00%	1	1.45%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9	98.57%	1	1.43%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아이디 도용을 한 경험 역시 전체가 3명(1.53%)에 불과했는데,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아동이 각각 1명씩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15)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경험

〈표 3-1-101〉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경험

문22-(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2	1.02%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8	98.55%	1	1.45%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특정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 경험은 전체 2명(1.02%)에 불과하며 가정밖 청소년이 1명(1.72%), 아동 역시 1명(1.45%)이었다.

## 16) 온라인에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뺏은 경험

〈표 3-1-102〉 온라인에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뺏은 경험

문22-(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4	98.48%	2	1.02%	1	0.51%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5	94.83%	2	3.45%	1	1.72%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에서 남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뺏은 경험은 가정밖 청소년만 3명(1.53%)이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과 아동은 없다고 답하였다.

## 17) 온라인 상에서 셔틀을 시킨 경험

《표 3-1-103》 온라인 상에서 셔틀을 시킨 경험

문22-(8) 와이파이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2	1.02%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6	96.55%	2	3.45%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셔틀을 시킨 경험은 가정밖 청소년만 2명(3.45%)이 답하였으며,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없었다.

## 18)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험

《표 3-1-104》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험

문22-(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6	99.49%	1	0.51%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경험은 가정밖청소년의 경우에만 ‘1년에 1~2번’ 보낸 경험이 1명(1.7%)이었으며, 아동과 학교밖청소년의 경우는 없었다.

19) 인터넷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퇴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초대를 한 경험

《표 3-1-105》 인터넷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퇴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초대를 한 경험

문22-(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2	1.02%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이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6	96.55%	2	3.45%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의 인터넷 대화방에서 강제적으로 초대를 한 경험은 가정밖청소년의 경우에만 ‘1년에 1~2번’이 2명(3.4%)이었으며, 이동과 학교밖청소년의 경우는 없었다.

20) 온라인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문제 있어 보이게 한 경험

《표 3-1-106》 온라인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문제 있어 보이게 한 경험

문22-(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 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2	97.46%	3	1.52%	1	0.51%	0	0.00%	1	0.51%	0	0.00%	197
이동	68	98.55%	0	0.00%	1	1.45%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6	96.55%	2	3.45%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8	97.14%	1	1.43%	0	0.00%	0	0.00%	1	1.43%	0	0.00%	70

온라인에서 시비 걸기를 한 경험은 전체가 3명(1.52%)뿐인데, 가정밖 청소년이 2명(3.45%)이었고, 학교밖 청소년도 2명(2.86%)에 불과하였다.

## 21) 스마트폰으로 가스라이팅 또는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킨 경우

〈표 3-1-107〉 스마트폰으로 가스라이팅 또는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킨 경우

문22-(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2	1.02%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8	98.55%	1	1.45%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70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

가스라이팅이나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킨 경험은 전체 2명(1.02%)에 불과하였는데 가정밖 청소년이 1명(1.72%), 아동이 1명(1.45%)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없었다.

## 22)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린 경험

〈표 3-1-108〉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린 경험

문22-(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98.98%	2	1.02%	0	0.00%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9	98.57%	1	1.43%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에서 저격글을 게재한 경험은 전체 2명(1.02%)에 불과하였는데 가정밖 청소년이 1명(1.72%), 아동이 1명(1.45%)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없었다.

### 23)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 공격한 경험

〈표 3-1-109〉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 공격한 경험

문22-(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4	98.48%	2	1.02%	0	0.00%	0	0.00%	1	0.51%	0	0.00%	197
아동	68	98.55%	0	0.00%	0	0.00%	0	0.00%	1	1.45%	0	0.00%	69
가정밖	57	98.28%	1	1.72%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9	98.57%	1	1.43%	0	0.0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 공격한 경험은 전체 3명(1.53%)에 불과하였는데 가정밖 청소년이 1명(1.72%), 아동이 1명(1.45%), 학교밖 청소년이 1명(1.43%)이었다.

### 24) 온라인 대화방에서 일부로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험

〈표 3-1-110〉 온라인 대화방에서 일부로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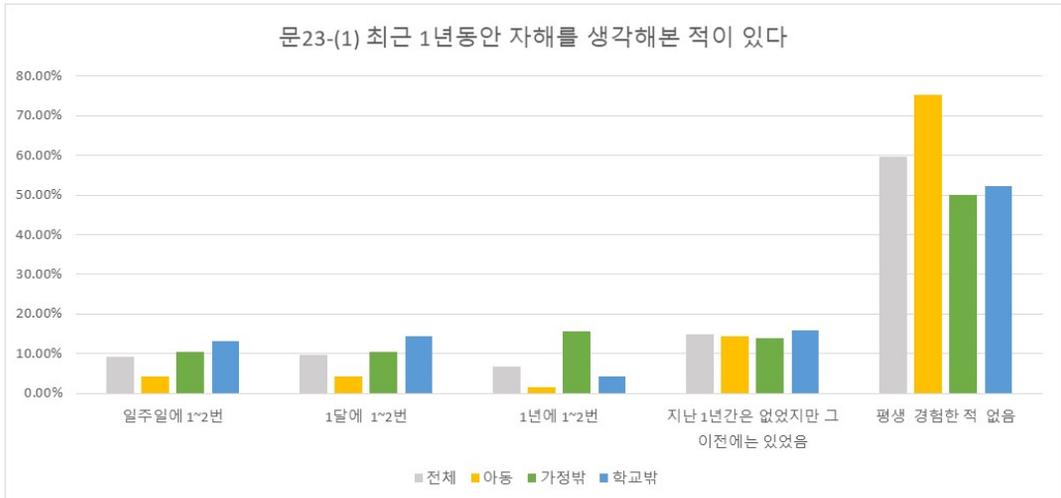
문22-(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년 1~2번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여러번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0	96.45%	5	2.54%	2	1.02%	0	0.00%	0	0.00%	0	0.00%	197
아동	66	95.70%	2	2.90%	1	1.40%	0	0.00%	0	0.00%	0	0.00%	69
가정밖	57	98.30%	1	1.70%	0	0.00%	0	0.00%	0	0.00%	0	0.00%	58
학교밖	67	95.70%	2	2.90%	1	1.40%	0	0.00%	0	0.00%	0	0.00%	70

온라인 대화방에서 일부로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험은 전체 7명(3.56%)이었는데, 그 중 아동과 청소년이 같은 3명(4.30%)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은 1명(1.70%)에 불과하였다.

## 12. 자해, 자살 경험

### 1) 최근 1년간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그림 3-58] 최근 1년간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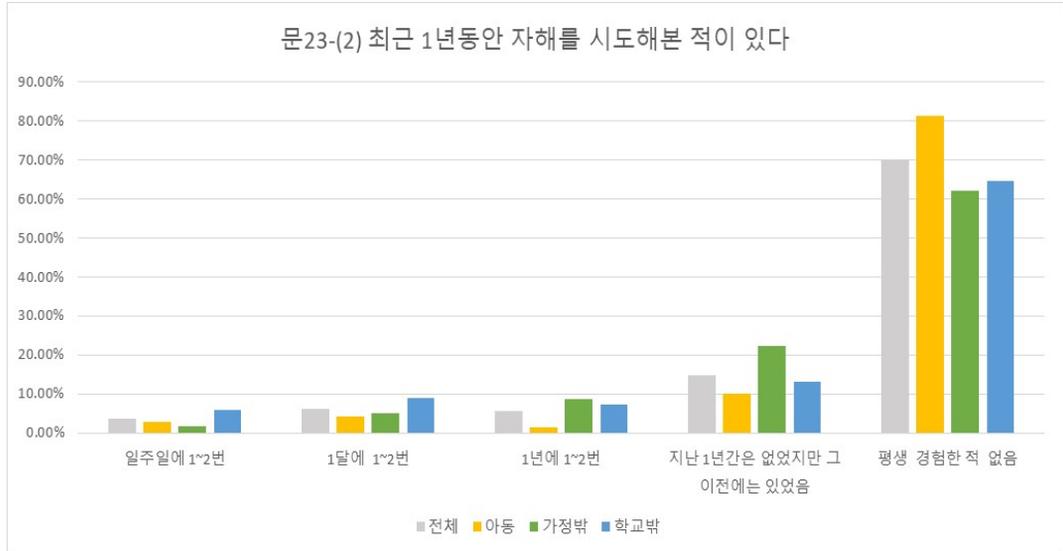
〈표 3-1-111〉 최근 1년간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일주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8	9.18%	19	9.69%	13	6.63%	29	14.80%	117	59.69%	196
아동	3	4.35%	3	4.35%	1	1.45%	10	14.49%	52	75.36%	69
가정밖	6	10.34%	6	10.34%	9	15.52%	8	13.79%	29	50.00%	58
학교밖	9	13.04%	10	14.49%	3	4.35%	11	15.94%	36	52.17%	69

1년 내에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은 전체 196명 중 50명(25.5%)이며, 1년 이전 경험까지 합치면 79명(40.3%)에 달한다. 1년 내 경험에 한해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22명(3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밖 청소년이 21명(36.2\*)이며, 아동의 경우는 7명(10.15%)이었다.

## 2) 최근 1년간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

[그림 3-59] 최근 1년간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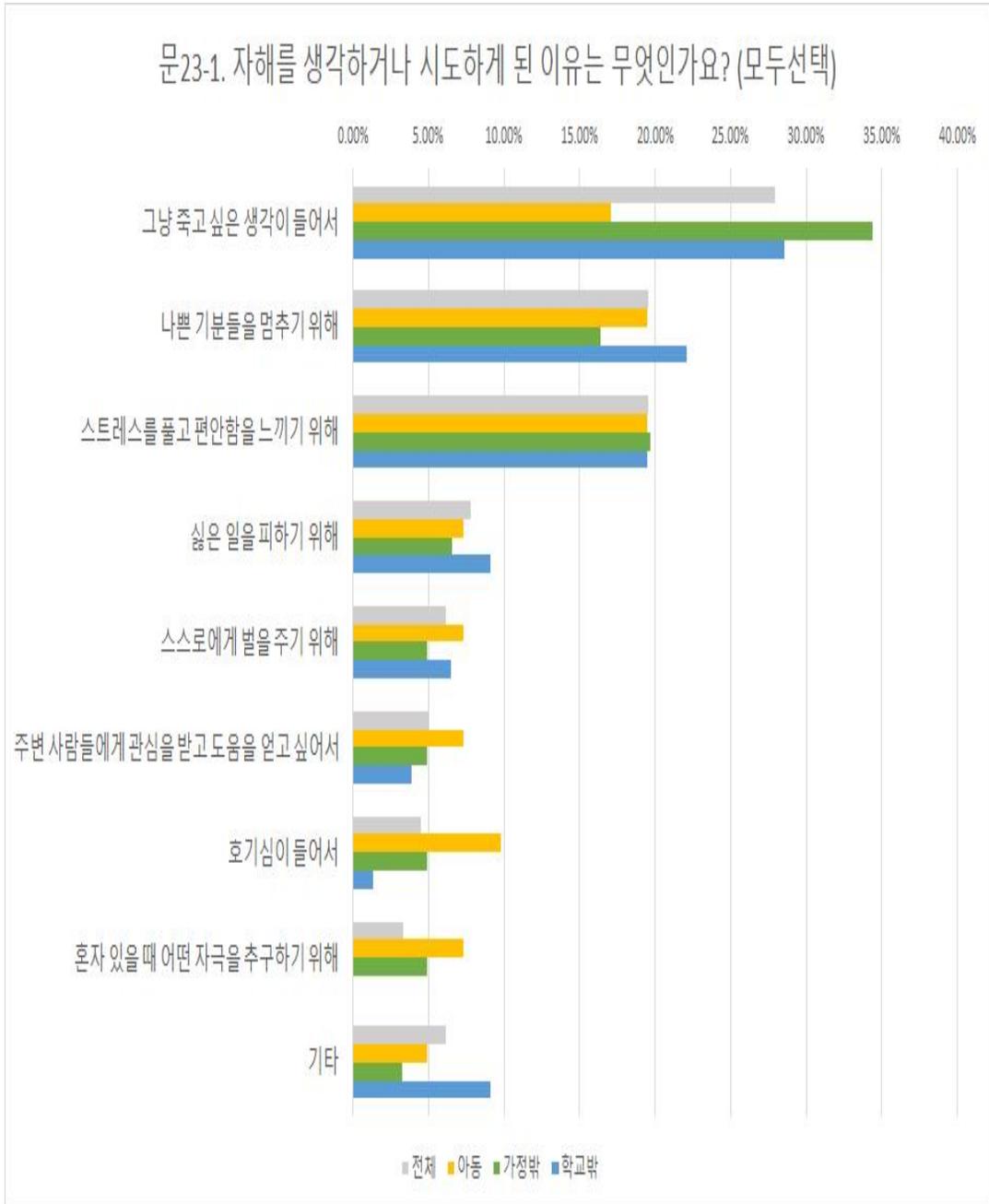
〈표 3-1-112〉 최근 1년간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

문23-(2) 최근 1년동안 자해를 시도해본 적이 있다											
	일주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7	3.57%	12	6.12%	11	5.61%	29	14.80%	137	69.90%	196
아동	2	2.86%	3	4.29%	1	1.43%	7	10.00%	57	81.43%	70
가정밖	1	1.72%	3	5.17%	5	8.62%	13	22.41%	36	62.07%	58
학교밖	4	5.88%	6	8.82%	5	7.35%	9	13.24%	44	64.71%	68

자해 시도에 대한 경험은 전체가 30명(15.3%)인데 그 중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5명(22.05%)이고, 가정밖 청소년이 9명(15.51%)이며, 아동이 6명(8.58%)이었다. 이 중 특히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1달 이내의 시도가 전부 10명(14.7%)에 달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자해를 시도하게 된 이유

[그림 3-60] 자해를 시도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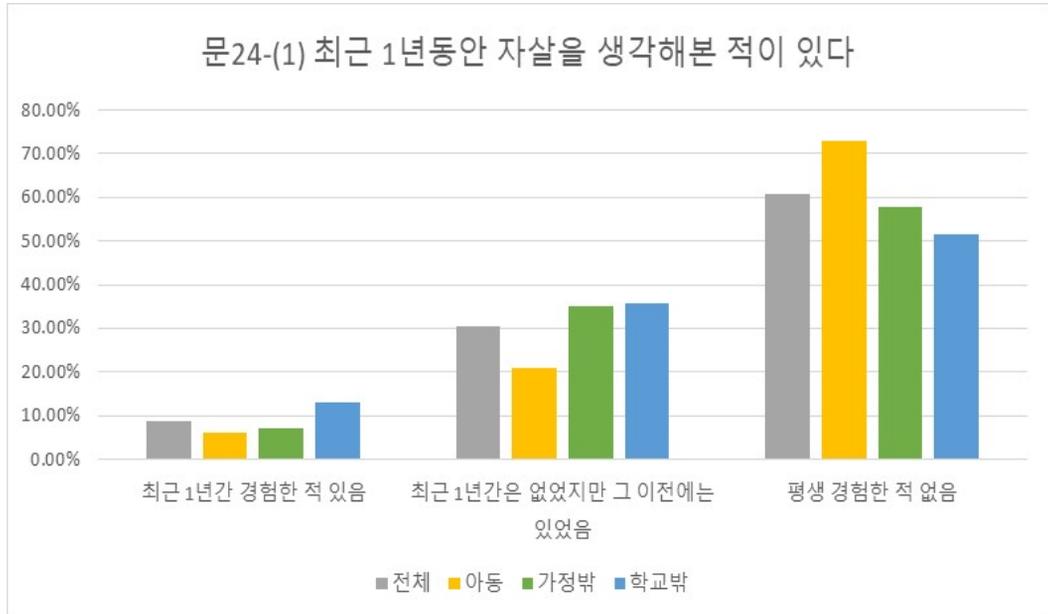
〈표 3-1-113〉 자해를 시도하게 된 이유

문23-1. 자해를 생각하거나 시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선택)					
		전체	아동	가정밖	학교밖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빈도	50	7	21	22
	%	27.93%	17.07%	34.34%	28.57%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빈도	35	8	10	17
	%	19.55%	19.51%	16.39%	22.08%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빈도	35	8	12	15
	%	19.55%	19.51%	19.67%	19.48%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빈도	14	3	4	7
	%	7.82%	7.32%	6.56%	9.09%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빈도	11	3	3	5
	%	6.15%	7.32%	4.92%	6.49%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	빈도	9	3	3	3
	%	5.03%	7.32%	4.92%	3.90%
호기심이 들어서	빈도	8	4	3	1
	%	4.47%	9.76%	4.92%	1.30%
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빈도	6	3	3	0
	%	3.35%	7.32%	4.92%	0%
기 타	빈도	11	2	2	7
	%	6.15%	4.88%	3.28%	9.09%
전체	빈도	179	41	61	77

자해 생각이나 시도에 대한 이유는 그냥 죽고 싶어서가 50명(27.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서와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가 각각 35명(19.55%)이었으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7.82%) 등의 순이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가장 빈도가 높는데 그냥 죽고 싶어서가 22명(28.57%),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서가 17명(22.08%), 스트레스 풀기가 15명(19.48%) 순이었다. 가정밖청소년의 경우는 ‘그냥 죽고 싶어서’가 21명(34.43%)이었고, 스트레스 풀기가 12명(19.67%)이었으며,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서가 10명(16.39%)이었다. 아동의 경우 나쁜 기분을 멈추거나 스트레스 풀기가 각각 8명(19.51%)이며, ‘그냥 죽고싶은 생각이 들어서’에 7명(17.07%)이 응답했다. 자해 시도의 빈도수는 학교밖 청소년이 제일 많고 가정밖 청소년, 아동의 순이었다.

#### 4)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그림 3-61]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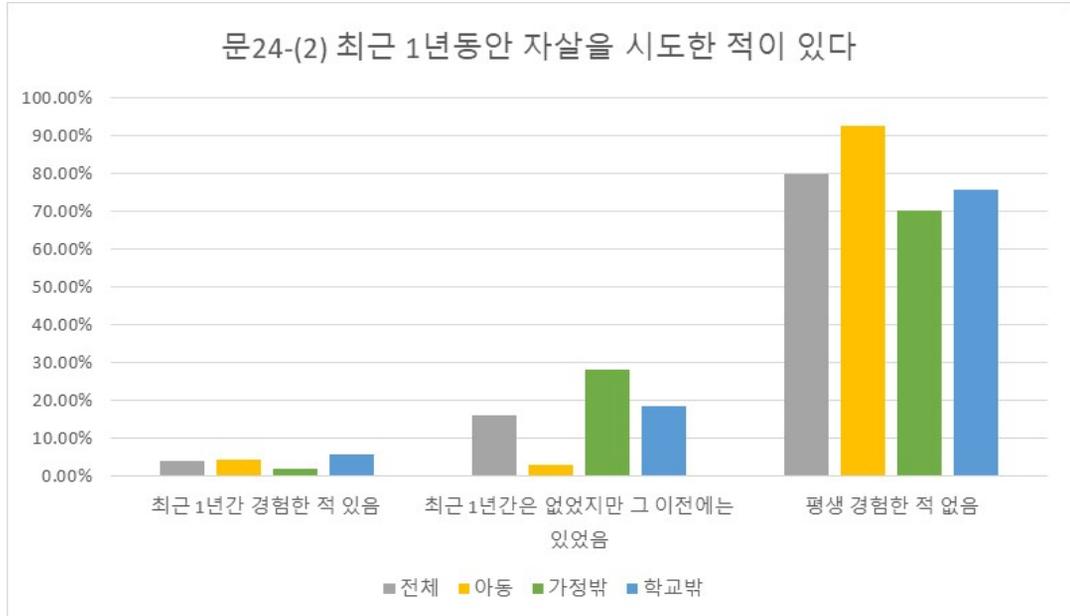
〈표 3-1-114〉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문24-(1) 최근 1년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적 있음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7	8.8%	59	30.4%	118	60.8%	194
아동	4	6.00%	14	20.90%	49	73.10%	67
가정밖	4	7.00%	20	35.10%	33	57.90%	57
학교밖	9	12.90%	25	35.70%	36	51.40%	70

최근 1년 간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은 전체가 17명(8.8%)인데, 1년 이전의 경험까지 합치면 76명(39.2%)에 달한다.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9명(12.90%)이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명(7%)이며, 아동의 경우 4명(6%)이다.

## 5)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그림 3-62]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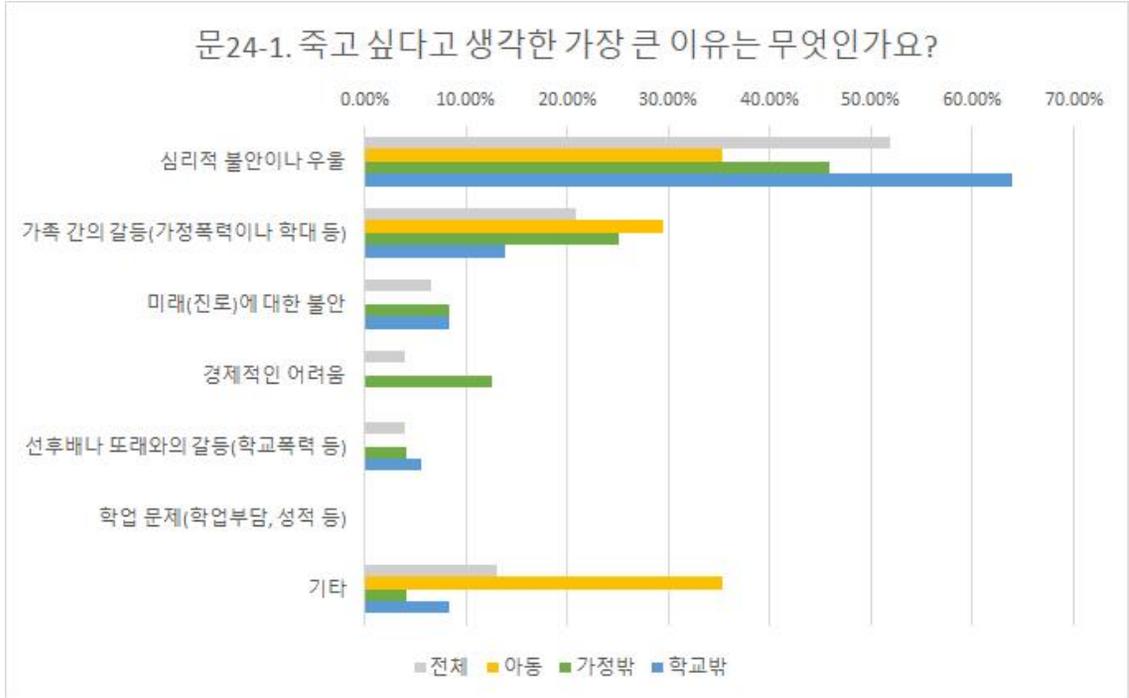
《표 3-1-115》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최근 1년간 경험한 적 있음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b>전체</b>	8	4.1%	31	16.0%	155	79.9%	194
<b>아동</b>	3	4.50%	2	3.00%	62	92.50%	67
<b>가정밖</b>	1	1.80%	16	28.10%	40	70.20%	57
<b>학교밖</b>	4	5.70%	13	18.60%	53	75.70%	70

자살 시도에 대한 경험은 아동의 경우 최근에는 4.5%이며, 1년 이전에는 있었다 3%이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1.8%이고, 1년 이전에는 있었다는 28.1%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5.7%, 1년 이전에는 있었다는 18.6%로 응답했다.

## 6)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그림 3-63]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표 3-1-116》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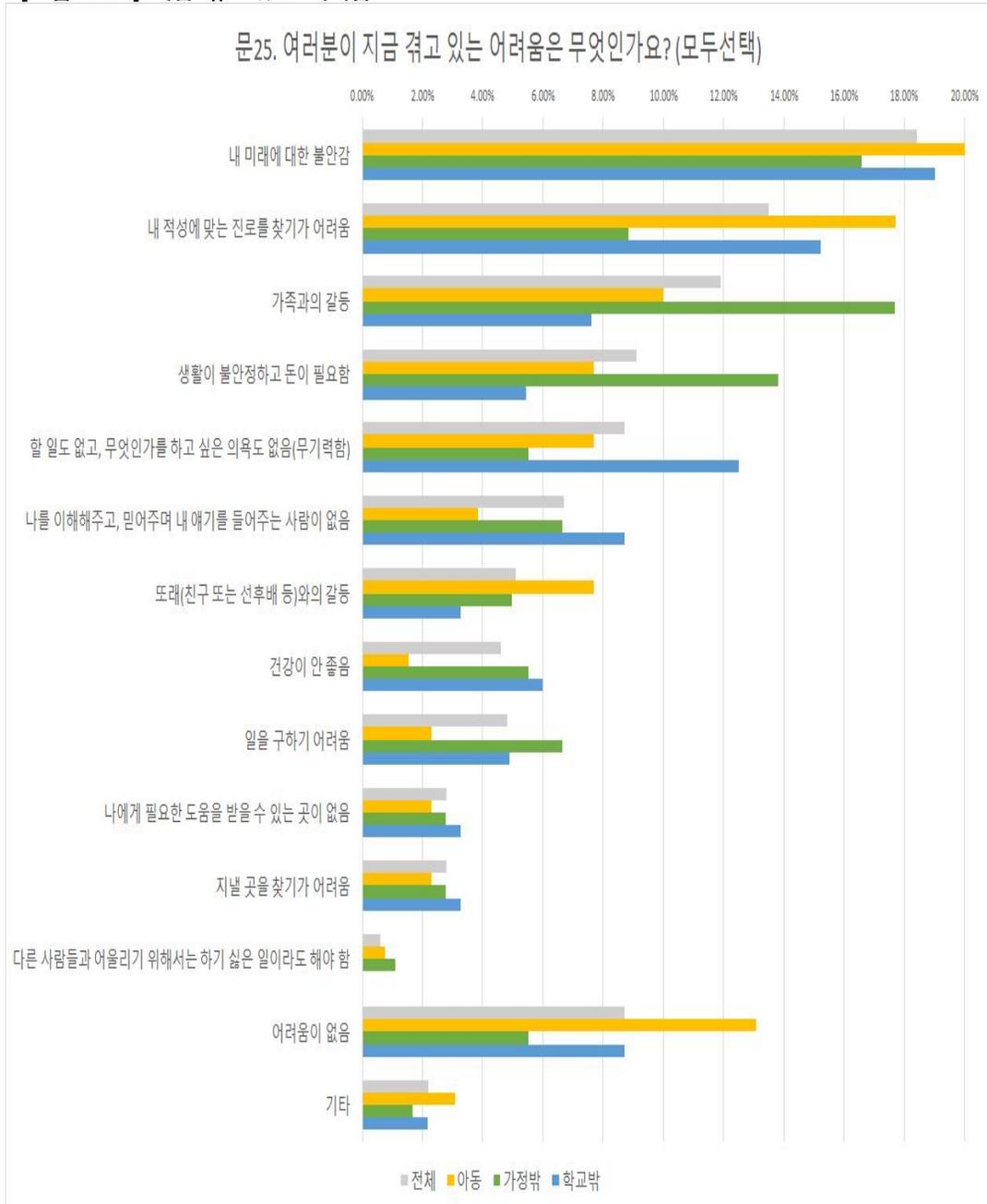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학업 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기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0	51.95%	16	20.78%	5	6.49%	3	3.90%	3	3.90%	0	0.00%	10	12.99%	77
아동	6	35.29%	5	29.41%	0	0.00%	0	0.00%	0	0.00%	0	0.00%	6	35.29%	17
가정밖	11	45.83%	6	25.00%	2	8.33%	3	12.50%	1	4.17%	0	0.00%	1	4.17%	24
학교밖	23	63.89%	5	13.89%	3	8.33%	0	0.00%	2	5.56%	0	0.00%	3	8.33%	36

죽고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23명(63.8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5명(13.89%),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3명(8.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밖 청소년은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11명(45.83%)으로 가장 높고, 가족간의 갈등이 6명(25%), 경제적인 어려움 3명(12.50%) 등의 순이다. 아동의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6명(35.29%), 가족 간의 갈등이 5명(29.41%)이고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었다.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의 빈도가 모든 대상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도수는 학교밖 청소년 > 가정밖 청소년 > 아동의 순이다.

### 13.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방안

#### 1)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림 3-64]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표 3-1-117》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문23-1. 자해를 생각하거나 시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선택)					
		전체	아동	가정박	학교밖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빈도	91	26	30	35
	%	18.40%	20.00%	16.57%	19.02%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빈도	67	23	16	28
	%	13.50%	17.69%	8.84%	15.22%
가족과의 갈등	빈도	59	13	32	14
	%	11.09%	10.00%	17.68%	7.61%
생활이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빈도	45	10	25	10
	%	9.10%	7.69%	13.81%	5.43%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빈도	43	10	10	23
	%	8.70%	7.69%	5.52%	12.50%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빈도	33	5	12	16
	%	6.70%	3.85%	6.63%	8.70%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빈도	25	10	9	6
	%	5.10%	7.69%	4.97%	3.26%
건강이 안 좋음	빈도	23	2	10	11
	%	4.60%	1.54%	5.52%	5.98%
일을 구하기 어려움	빈도	24	3	12	9
	%	4.80%	2.31%	6.63%	4.89%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빈도	14	3	5	6
	%	2.80%	2.31%	2.76%	3.26%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빈도	14	3	5	6
	%	2.80%	2.31%	2.76%	3.26%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빈도	3	1	2	0
	%	0.60%	0.77%	1.10%	0.00%
어려움이 없음	빈도	43	17	10	16
	%	8.70%	13.08%	5.52%	8.70%
기 타	빈도	11	4	3	4
	%	2.20%	3.08%	1.66%	2.17%
전체	빈도	495	130	181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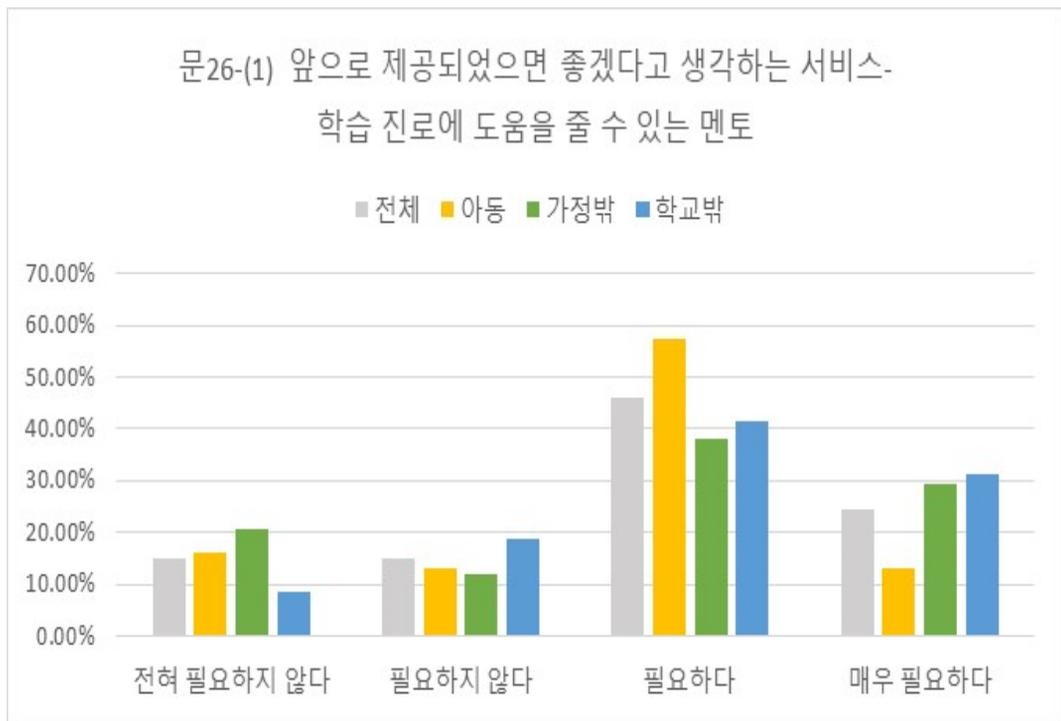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35명(19.02%),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어려움 28명(15.52%), 무기력함(12.50%),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음 16명(8.7%)의 순서였다. 아동도 1, 2순위는 학교밖 청소년과 같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26명(20%),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어려움 23명(17.6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움이 없음 17명(13.08%), 가족과의 갈등 13명(10%)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가정박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

32명(17.68%), 미래에 대한 불안감 30명(16.57%), 생활 불안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25명(13.81%), 적성에 맞는 진로찾기의 어려움 16명(8.84%)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높이 들었고,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가정밖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이 더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었다. 3 순위는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무기력함을 들었는데, 가정밖 청소년은 생활의 불안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으며, 아동은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였다.

## 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학습, 진로 멘토

[그림 3-6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학습, 진로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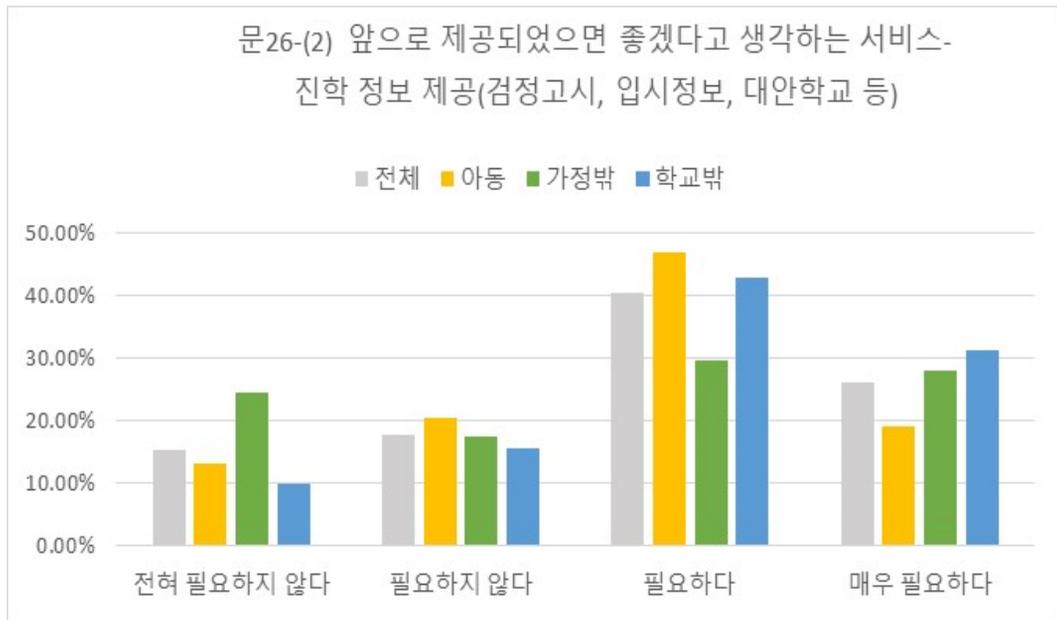
〈표 3-1-11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학습, 진로 멘토

문26-(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학습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9	14.8%	29	14.8%	90	45.9%	48	24.5%	196
아동	11	16.2%	9	13.2%	39	57.4%	9	13.2%	68
가정밖	12	20.7%	7	12.1%	22	37.9%	17	29.3%	58
학교밖	6	8.6%	13	18.6%	29	41.4%	22	31.4%	70

조사대상자의 학습 멘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19명(7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동의 경우 20명(70.6%)이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19명(67.2%)의 순이었다.

### 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학 정보 제공

[그림 3-6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학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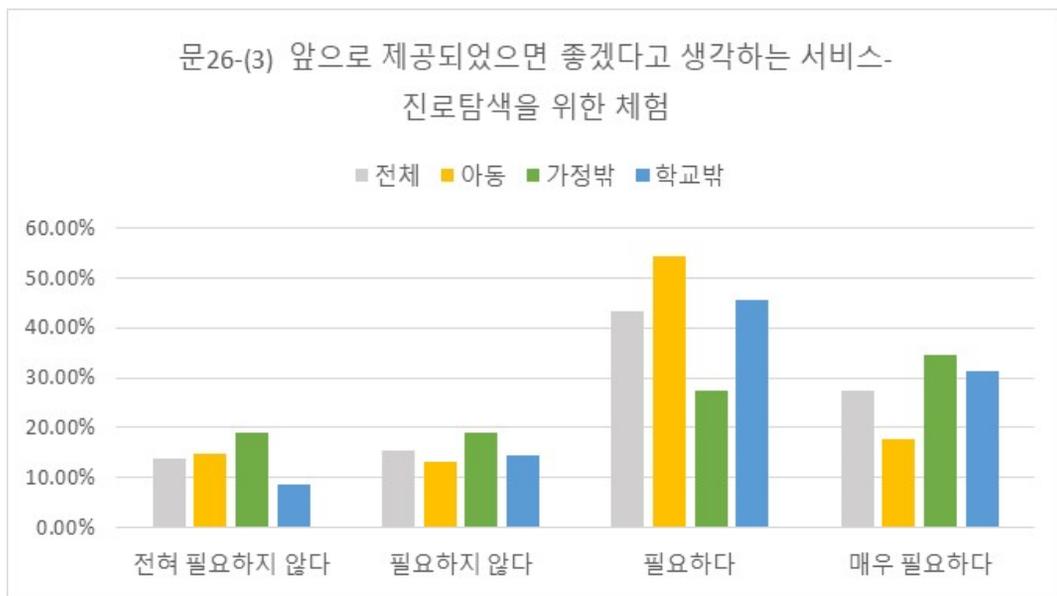
〈표 3-1-11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학 정보 제공

문26-(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진학 정보 제공 (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0	15.4%	35	17.9%	79	40.5%	51	26.2%	195
아동	9	13.2%	14	20.6%	32	47.1%	13	19.1%	68
가정박	14	24.6%	10	17.5%	17	29.8%	16	28.1%	57
학교밖	7	10.0%	11	15.7%	30	42.9%	22	31.4%	70

진학 정보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52명(74.3%)으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아동 45명(66.2%), 가정박 청소년33명(57.9%)의 순이었다.

#### 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로 탐색 체험

[그림 3-6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로 탐색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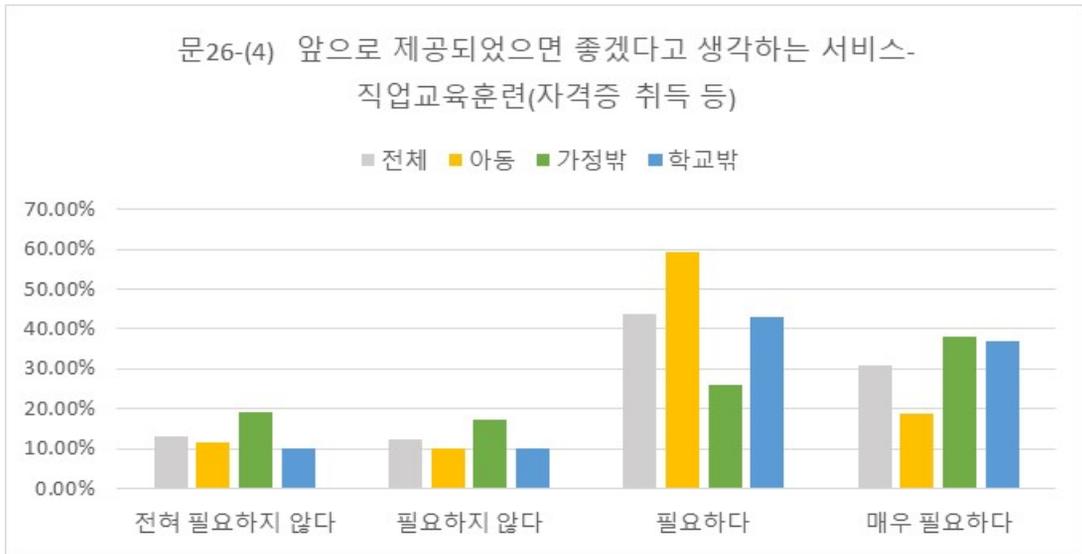
〈표 3-1-12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진로 탐색 체험

문26-(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7	13.8%	30	15.3%	85	43.4%	54	27.6%	196
아동	10	14.7%	9	13.2%	37	54.4%	12	17.6%	68
가정밖	11	19.0%	11	19.0%	16	27.6%	20	34.5%	58
학교밖	6	8.6%	10	14.3%	32	45.7%	22	31.4%	70

진로탐색 체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4명(77.3%)으로 가장 높게 답하였고, 아동은 49명(72%)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36명(62.1%)이었다.

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그림 3-6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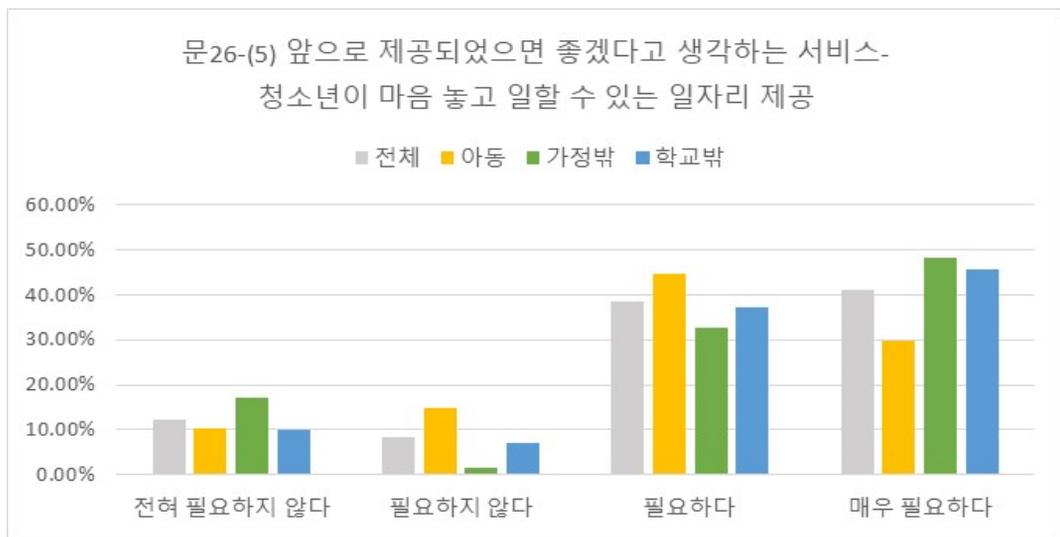
〈표 3-1-12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문26-(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6	13.2%	24	12.2%	86	43.7%	61	31.0%	197
아동	8	11.6%	7	10.1%	41	59.4%	13	18.8%	69
가정밖	11	19.0%	10	17.2%	15	25.9%	22	37.9%	58
학교밖	7	10.0%	7	10.0%	30	42.9%	26	37.1%	70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6명(8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아동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로 54명(78.2%)이었으나,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37명(63.8%)으로 학교밖 청소년이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청소년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그림 3-6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청소년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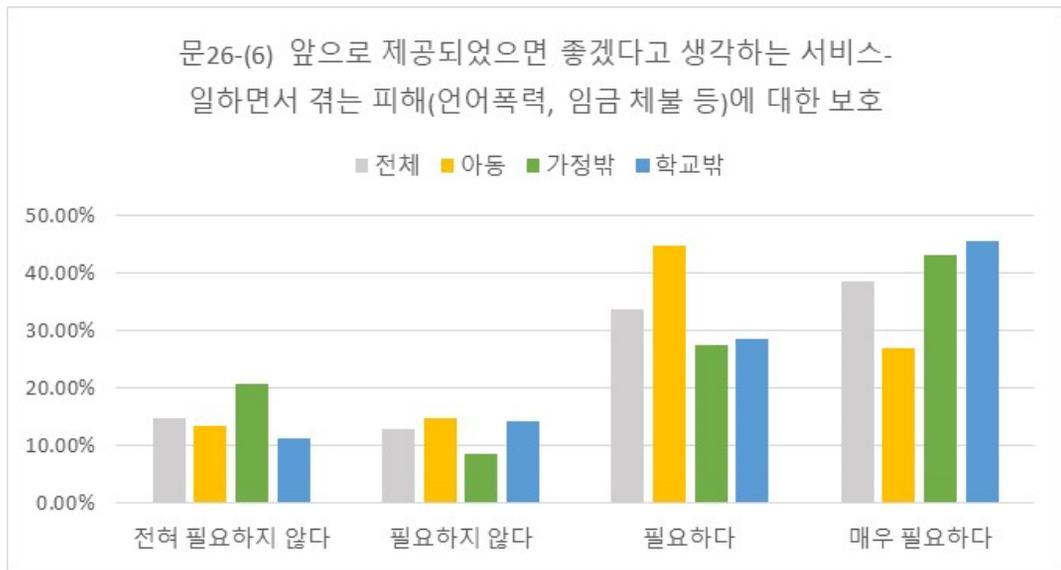
〈표 3-1-12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문26-(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4	12.3%	16	8.2%	75	38.5%	80	41.0%	195
아동	7	10.4%	10	14.9%	30	44.8%	20	29.9%	67
가정밖	10	17.2%	1	1.7%	19	32.8%	28	48.3%	58
학교밖	7	10.0%	5	7.1%	26	37.1%	32	45.7%	70

일자리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8명(82.8%)이었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7명(80.1%)이었으며, 아동의 경우는 50명(74.7%)이었다.

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그림 3-7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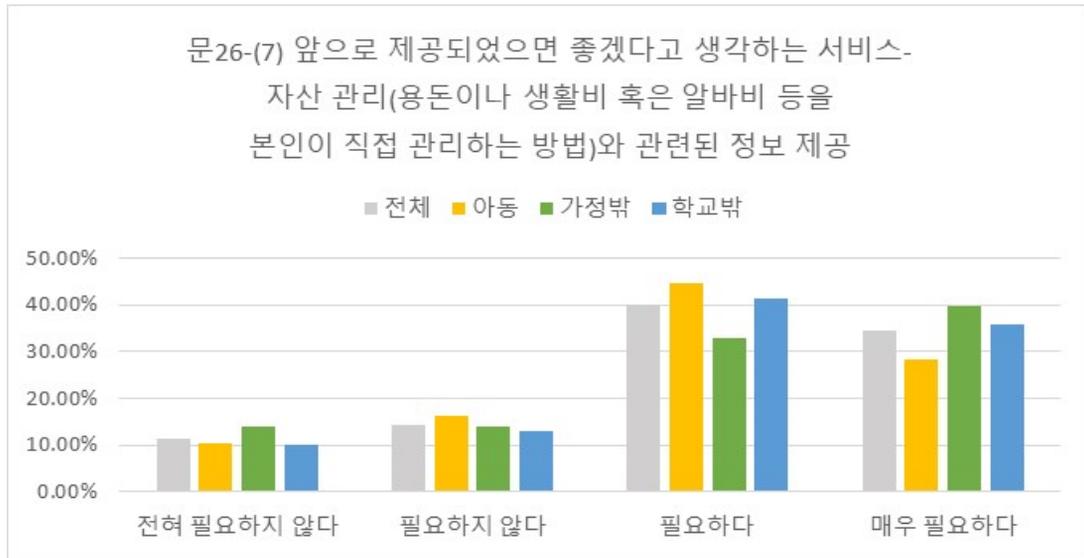
〈표 3-1-12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문26-(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9	14.9%	25	12.8%	66	33.8%	75	38.5%	195
아동	9	13.4%	10	14.9%	30	44.8%	18	26.9%	67
가정박	12	20.7%	5	8.6%	16	27.6%	25	43.1%	58
학교밖	8	11.4%	10	14.3%	20	28.6%	32	45.7%	70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2명(74.3%)이었고, 아동의 경우 48명(71.7%)이었으며, 가정박 청소년의 경우 41명(70.7%)이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그림 3-7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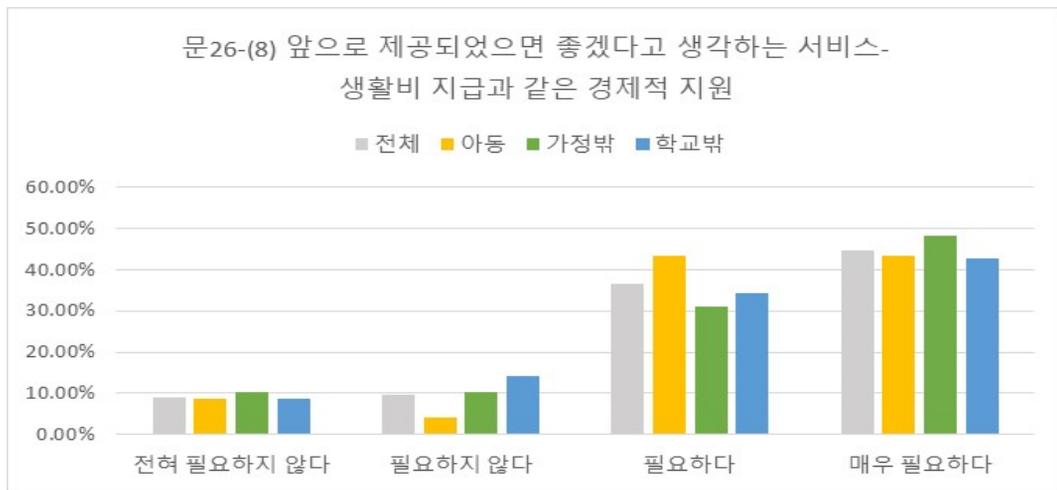
〈표 3-1-12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문26-(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2	11.3%	28	14.4%	78	40.0%	67	34.4%	195
아동	7	10.4%	11	16.4%	30	44.8%	19	28.4%	67
가정밖	8	13.8%	8	13.8%	19	32.8%	23	39.7%	58
학교밖	7	10.0%	9	12.9%	29	41.4%	25	35.7%	70

자산관리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4명(7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경우 49명(73.2%)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2명(72.5%)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그림 3-7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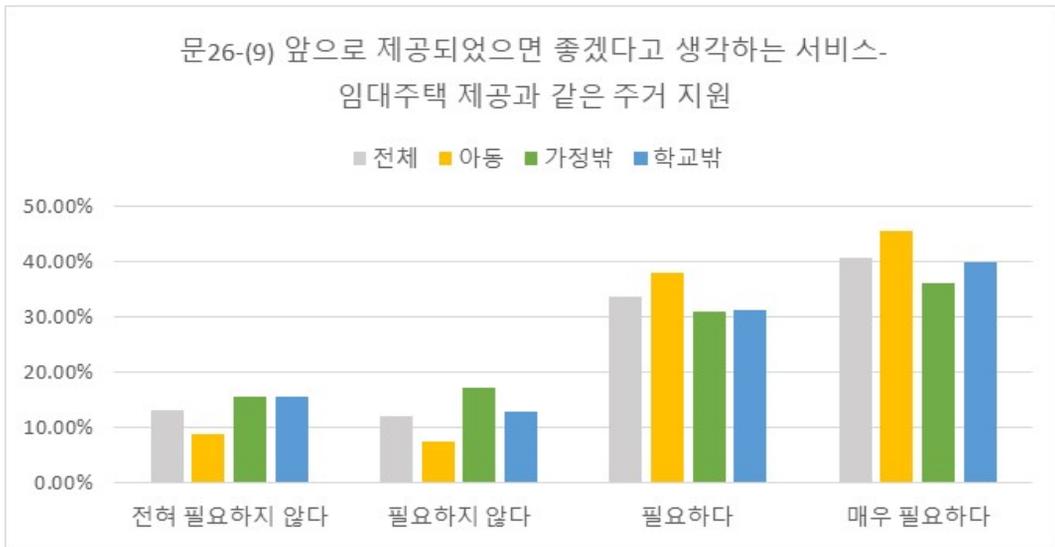
〈표 3-1-12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문26-(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8	9.1%	19	9.6%	72	36.5%	88	44.7%	197
아동	6	8.7%	3	4.3%	30	43.5%	30	43.5%	69
가정밖	6	10.3%	6	10.3%	18	31.0%	28	48.3%	58
학교밖	6	8.6%	10	14.3%	24	34.3%	30	42.9%	70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60명(87%)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46명(79.3%)이었으며, 학교밖청소년의 경우는 54명(77.2%)으로 제일 적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은 적게 나왔다.

1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그림 3-7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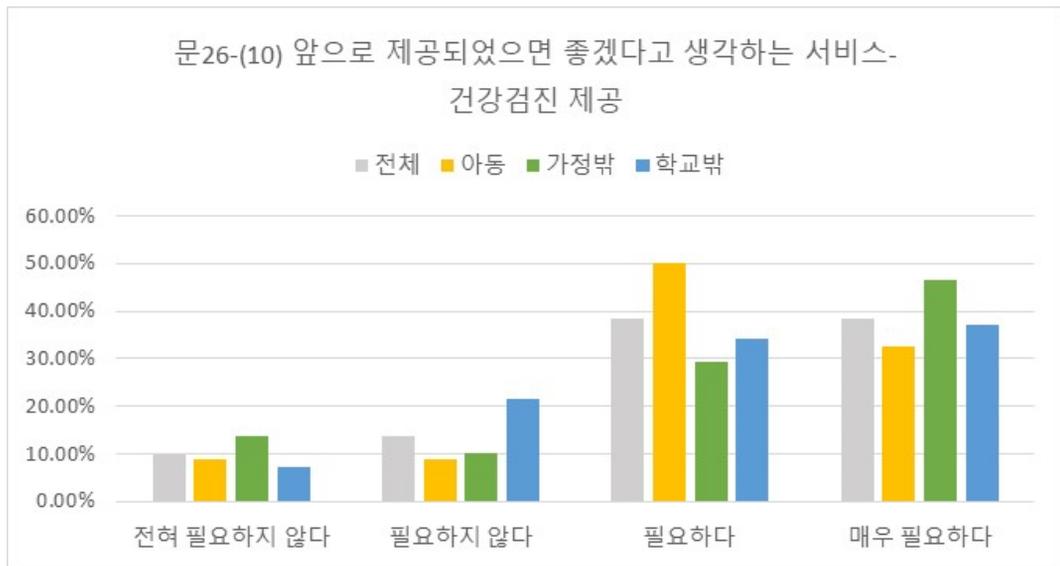
【표 3-1-12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문26-(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주거 지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6	13.3%	24	12.2%	66	33.7%	80	40.8%	196
아동	6	8.8%	5	7.4%	26	38.2%	31	45.6%	68
가정밖	9	15.5%	10	17.2%	18	31.0%	21	36.2%	58
학교밖	11	15.7%	9	12.9%	22	31.4%	28	40.0%	70

주거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57명(83.8%) 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0명(71.4%)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39명(67.2%)으로 제일 적게 나왔다.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많은 가정밖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를 받는 학교밖 청소년보다 적게 나온 것은 특이한 점으로, 시설 보호를 받기 때문이거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1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건강검진

【그림 3-7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건강검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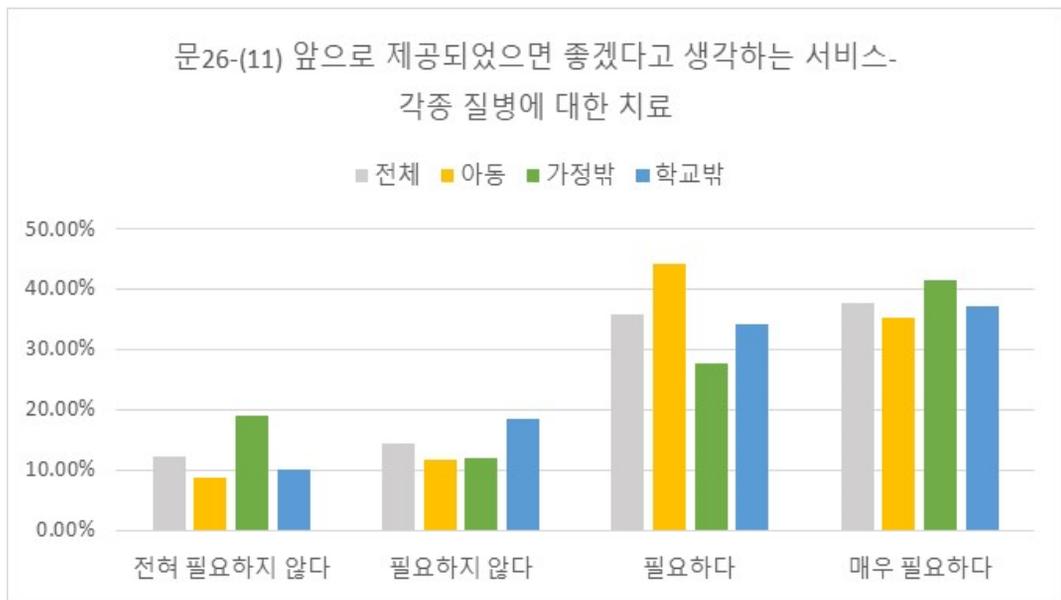
〈표 3-1-12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건강검진

문26-(1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건강검진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9	9.7%	27	13.8%	75	38.3%	75	38.3%	196
아동	6	8.8%	6	8.8%	34	50.0%	22	32.4%	68
가정밖	8	13.8%	6	10.3%	17	29.3%	27	46.6%	58
학교밖	5	7.1%	15	21.4%	24	34.3%	26	37.1%	70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56명(82.4%)이었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44명(75.9%)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0명(71.4%)이었다. 상대적으로 아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1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그림 3-7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질병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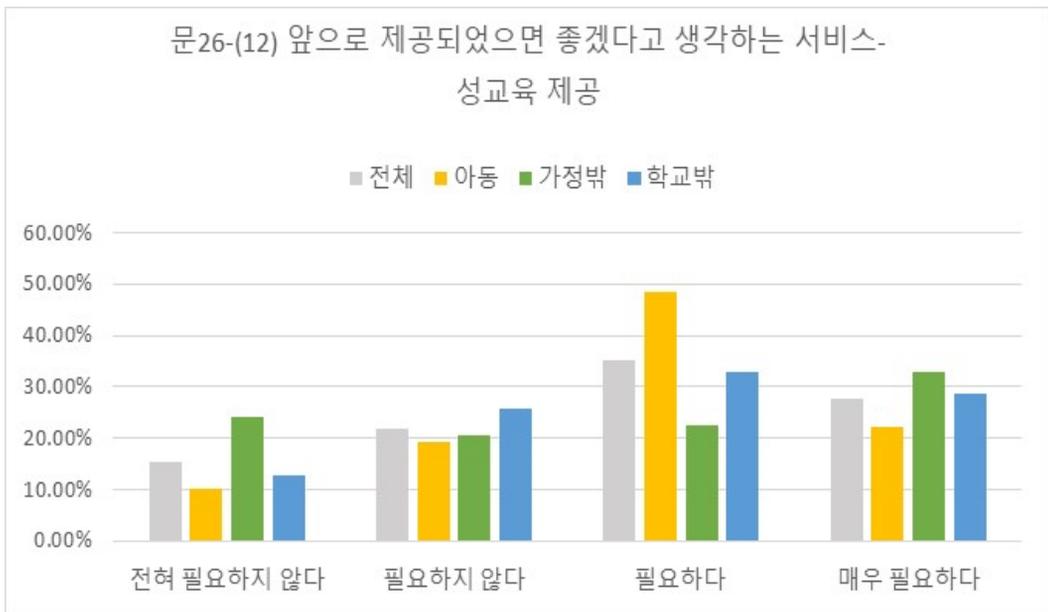
〈표 3-1-12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질병 치료

문26-(1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4	12.2%	28	14.3%	70	35.7%	74	37.8%	196
아동	6	8.8%	8	11.8%	30	44.1%	24	35.3%	68
가정밖	11	19.0%	7	12.1%	16	27.6%	24	41.4%	58
학교밖	7	10.0%	13	18.6%	24	34.3%	26	37.1%	70

질병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54명 (79.4%)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0명(71.4%)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40명 (69%)이었다.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1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성 교육 제공

[그림 3-7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성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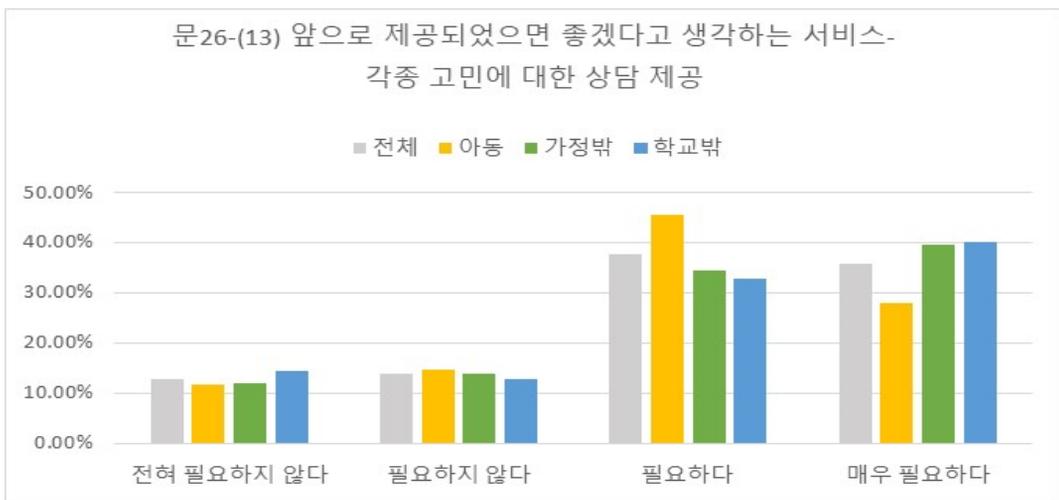
〈표 3-1-12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성 교육 제공

문26-(1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성교육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0	15.3%	43	21.9%	69	35.2%	54	27.6%	196
아동	7	10.3%	13	19.1%	33	48.5%	15	22.1%	68
가정밖	14	24.1%	12	20.7%	13	22.4%	19	32.8%	58
학교밖	9	12.9%	18	25.7%	23	32.9%	20	28.6%	70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48명 (70.6%)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43명(61.5%)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32명 (55.2%)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경험이 있는 편이어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경우 학교 교육 효과로 인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1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그림 3-7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고민 상담 제공



〈표 3-1-13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각종 고민 상담 제공

문26-(1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25	12.8%	27	13.8%	74	37.8%	70	35.7%	196
아동	8	11.8%	10	14.7%	31	45.6%	19	27.9%	68
가정밖	7	12.1%	8	13.8%	20	34.5%	23	39.7%	58
학교밖	10	14.3%	9	12.9%	23	32.9%	28	40.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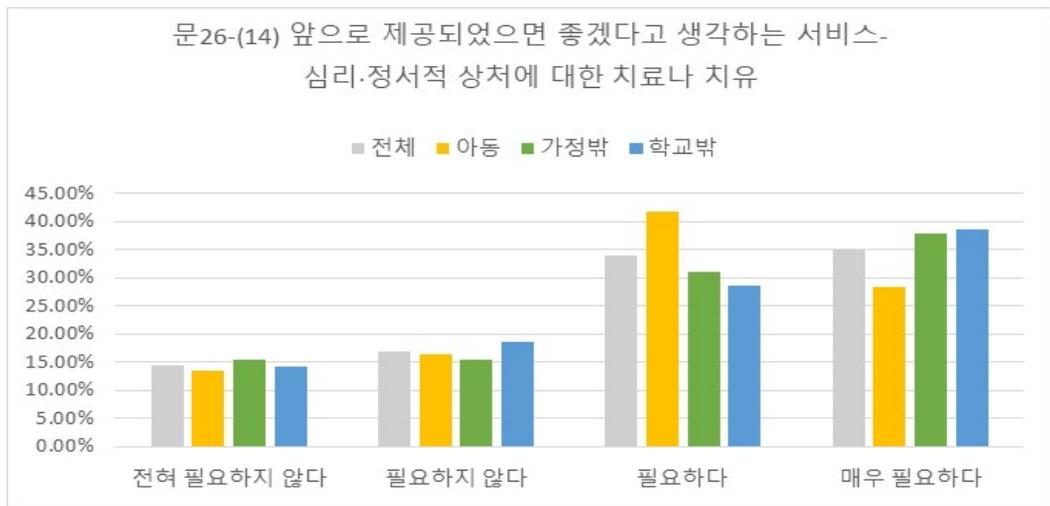
고민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43명(74.2%)이었고, 아동의 경우는 50명(73.5%)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51명(72.9%)이었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1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그림 3-7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표 3-1-13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문26-(1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8	14.4%	33	16.9%	66	33.8%	68	34.9%	195
아동	9	13.4%	11	16.4%	28	41.8%	19	28.4%	67
가정밖	9	15.5%	9	15.5%	18	31.0%	22	37.9%	58
학교밖	10	14.3%	13	18.6%	20	28.6%	27	38.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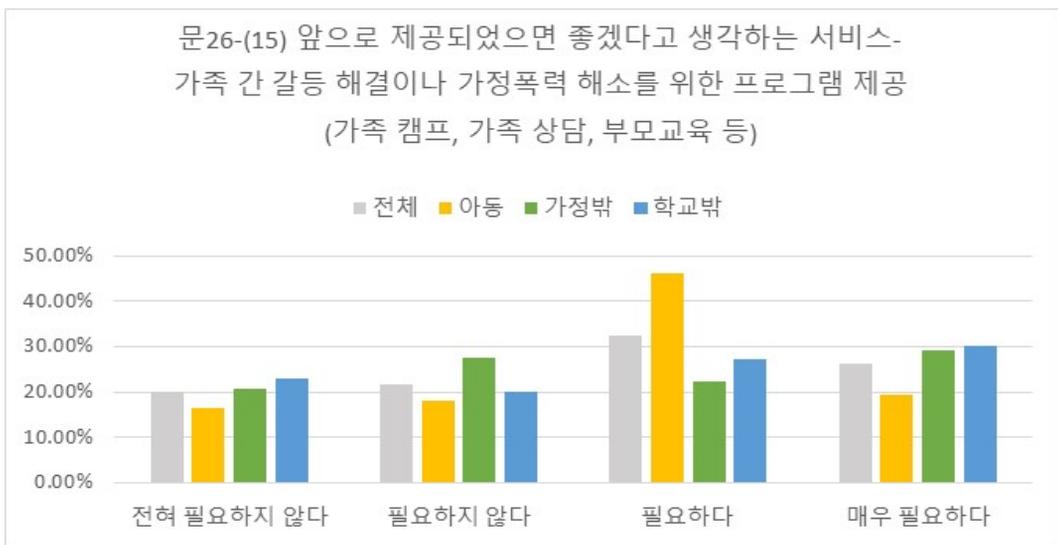
심리·정서치료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47명(70.2%)이었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40명(68.9%)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47명(67.2%)으로 대상 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1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가족 간 갈등 해결 또는 가정 폭력 해소 프로그램 제공

[그림 3-7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가족 간 갈등 해결 또는 가정 폭력 해소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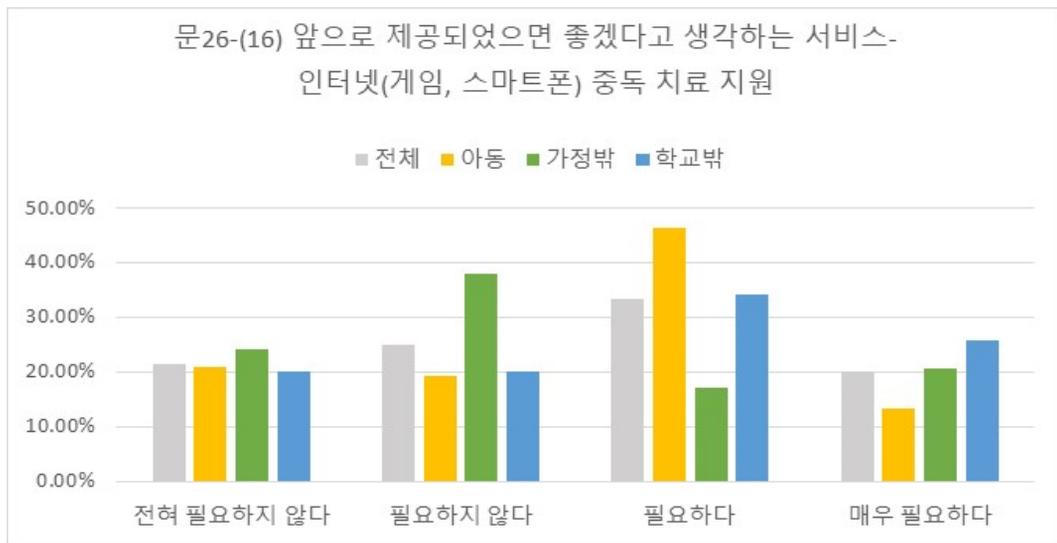
〈표 3-1-13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가족 간 갈등 해결 또는 가정 폭력 해소 프로그램 제공

문26-(1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족 간 갈등 해결이나 가정폭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족 캠프,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9	20.0%	42	21.5%	63	32.3%	51	26.2%	195
아동	11	16.4%	12	17.9%	31	46.3%	13	19.4%	67
가정밖	12	20.7%	16	27.6%	13	22.4%	17	29.3%	58
학교밖	16	22.9%	14	20.0%	19	27.1%	21	30.0%	70

가족 간 갈등 해결이나 가정폭력 해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44명(65.7%)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40명(57.1%)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0명(51.7%)이었다.

1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인터넷중독 치료 지원

[그림 3-80]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인터넷중독 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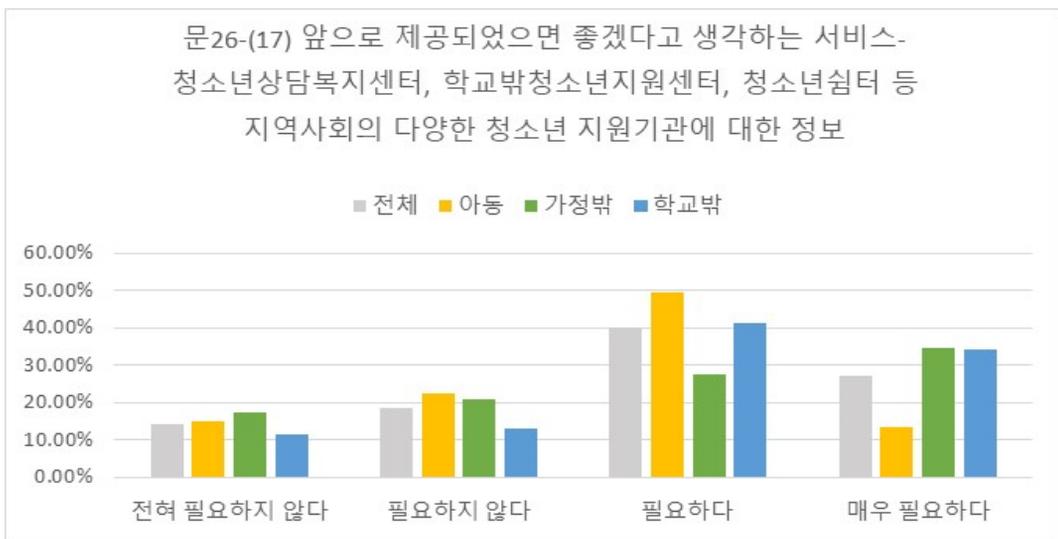
〈표 3-1-133〉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인터넷중독 치료 지원

문26-(16)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42	21.5%	49	25.1%	65	33.3%	39	20.0%	195
아동	14	20.9%	13	19.4%	31	46.3%	9	13.4%	67
가정밖	14	24.1%	22	37.9%	10	17.2%	12	20.7%	58
학교밖	14	20.0%	14	20.0%	24	34.3%	18	25.7%	70

게임과 스마트폰 과몰입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42명(60%)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근소한 차이로 아동의 경우 40명(59.7%)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22명(37.9%)에 불과했다.

1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지역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림 3-81]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지역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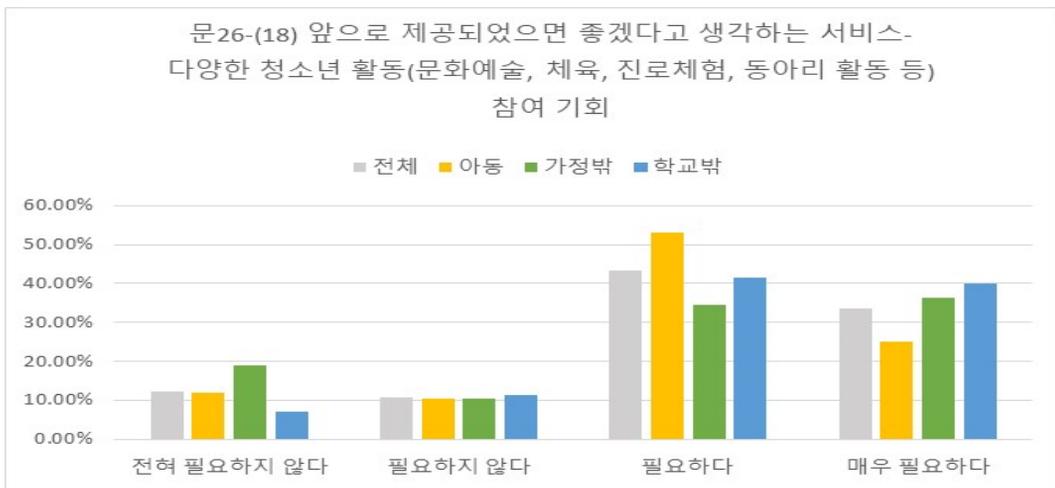
〈표 3-1-134〉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지역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문26-(17)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8	14.4%	36	18.5%	78	40.0%	53	27.2%	195
아동	10	14.9%	15	22.4%	33	49.3%	9	13.4%	67
가정밖	10	17.2%	12	20.7%	16	27.6%	20	34.5%	58
학교밖	8	11.4%	9	12.9%	29	41.4%	24	34.3%	70

청소년 시설·기관의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53명(75.7%)으로 요구 수준이 높았고, 아동의 경우 42명(62.7%)과,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36명(62.1%)은 비슷했다.

1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그림 3-82]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표 3-1-135〉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문26-(18)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4	12.2%	21	10.7%	85	43.4%	66	33.7%	196
아동	8	11.8%	7	10.3%	36	52.9%	17	25.0%	68
가정밖	11	19.0%	6	10.3%	20	34.5%	21	36.2%	58
학교밖	5	7.1%	8	11.4%	29	41.4%	28	40.0%	70

앞으로 제공되면 좋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57명(81.4%)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보였고, 아동의 경우 53명(77.9%)이었으며,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41명(70.7%)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 20) 기타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표 3-1-136〉 기타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문26-(19)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이외에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빈도	내용		
전체	8			
아동	1	학습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수학, 영어)		
가정밖	4	로봇조립체험프로그램을하고 싶다	쉼터퇴소자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용돈, 자취 자취, 돈
학교밖	3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프로그램 (퍼스널컬러,MBTI, 유형검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보	자해자살예방프로그램

응답자는 많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경우, 학습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체험프로그램과 자립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용돈과 자취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보,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게 제일 많이 나타났던 자해, 자살 증상과 관련해 자해, 자살 예방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

다.

## 제2절 설문 분석 종합

### 1. 설문 분석

#### ■ 일반적 특성

유효 표본 총 195명 중 성별은 여자가 108명(55%)이고 남자가 87명(45%)였으며, 아동이 68명(34.9%), 가정밖 청소년이 57명(29.2%), 학교밖 청소년이 70명(35.9%)이었다.

평균 연령은 아동이 15.6세, 가정밖 청소년이 17.2세, 학교밖 청소년이 16.9세로 연령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다.

재학 여부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102명(52%)으로 그 중 아동이 64.7%, 가정밖 청소년이 32.3%, 학교밖 청소년이 2.9%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92명(47%)로 아동이 1%, 가정밖 청소년이 26%, 학교밖 청소년이 72.8%였다.

학업 중단 이유 중 가장 많이 택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하거나 특화교육을 받고 싶어서가 22.8%이고, 두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의 이유와 기타가 나란히 17.4%이며, 세 번째가 친구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10.9%)였다.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응답자 중 진학이 41%로 가장 많았고, 두번째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27.7%였으며, 세번째로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17.9%였는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37%나 되므로 결정하지 못한 요인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중 최근 3년간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가 148명(75%)이고, 받지 않은 경우도 45명(23.1%)인데, 받지 않은 청소년들의 원인을 파악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 ■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들을 보면, 우선 자존감,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오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순서는 아동 > 가정밖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의 순이지만,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는 근소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또 충동성과 성급함, 자기중심적 성향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정밖 청소년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생활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속한 집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가정밖 청소년이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10~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조사 대상자 중 학대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많다는 점에서 2차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 활동 없이 며칠 동안 칩거만 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이 55%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으며, 우울감에 대해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40%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타 아동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오는데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친구를 제일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 세 번째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들었다. 이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은 50% 이상이 부모 또는 보호자를 먼저 들었고, 다음으로 친구,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 자매를 들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이 부모 및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빈도 수가 높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아동 4%, 가정밖 청소년 6%, 학교밖 청소년도 7%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볼 때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로 인한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경우는 자존감과 자긍심,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편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양호한 편이라고 답하고 있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성급함, 그리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단에 속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장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부류의 경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외에는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에 대해 의지를 많이 하는 편으로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 상대적으로 많고, 집 안에서 며칠씩 칩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어 부모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으로 보인다.

#### ■ 가정 내 생활 경험

가정 내 생활 경험을 살펴보면 부모의 보호와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동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가정밖 청소년은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부모로부터의 소외감 또는 박탈감을 표현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가출 문제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을 아동과 청소년은 4%대 이하라고 답하였지만 가정밖 청소년은 3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온다. 또 부모로부터의 폭행과 학대에 대한 경험은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각기 7%와 10%대 이하이지만 가정밖 청소년은 평균 20% 이상의 격차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성적 학대 및 방임, 방치의 경우도 학교밖 청소년은 1%대이거나 아예 없고, 아동은 평균 5%대이지만, 가정밖 청소년은 19% 이상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가출 경험

가출 경험을 보면 아동의 경우 8세에 처음 가출한 사례도 있지만, 아동·청소년 모두 12세부터 본격화하여 15세 정도 되면 대개 가출을 그만하게 되지만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후 19세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출 빈도를 보면 아동은 1회 가출만 7% 정도이고, 학교밖 청소년은 10회까지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많아야 3% 이내인데 반해 가정밖 청소년은 1회 가출만 33.3%이고 10회 가출도 7%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가정밖 청소년은 한번 가출하면 장기적으로 가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출한 이유는 1위가 아동 청소년 모두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갈등을 들었고 다음으로 가족의 폭력과 자유롭게 살고싶어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했다는 답변이 학교밖 청소년은 1명도 없었고,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에게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경우의 가정밖 청소년은 또한 학교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집을 나와 지낸 곳 중 가장 많은 곳은 친구네 집이었고, 다음이 청소년쉼터였으며, 노숙하는 경우도 3번째로 많았다.

### ■ 아르바이트, 근로 경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 했었던 경험은 가정밖 청소년이 27.3%로 제일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생계문제 해결과 용돈 보충의 순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경험과 다음으로 용돈 보충과 생계 해결을 들었으며, 아동의 경우는 용돈 보충을 주 이유로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가장 오래했던 곳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음식점·레스토랑이었고,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다음으로 들은 것이 배달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카페·빵집·아이스크림 판매점이었다.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가정밖 청소년의 7%, 학교밖 청소년의 4.5%가 있다고 대

답하였으며, 그렇게 일한 이유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곳보다 돈을 많이 주어서 또는 근무 시간이나 조건이 잘 맞아서 등을 들었다.

#### ■ 술·담배·약물 이용 경험

담배를 피는 비율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36% 정도로 비슷했으나 가정밖 청소년은 66%로 2배 정도 되었으며, 권련과 전자담배를 반 씩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담배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험이 13.8%이며, 대리 구매를 한 경험도 31%에 달한다.

술을 마셔본 경험도 아동이 14.7%이고, 학교밖 청소년은 31.4%, 가정밖 청소년은 48.3%로 차이가 큰 편이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술 구매를 위하여 신분증을 위변조 해본 경험이 12.1%이고, 대리 구매 경험도 20.7%에 달하며, 술로 인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의 비행을 저지를 경우가 6.9%이다. 다만 음주 운전 경험은 학교밖 청소년이 4.3%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경험은 아동 1.5%, 학교밖 청소년이 5.7%이고 가정밖 청소년은 그 중 많은 6.9%이다.

#### ■ 성관계 경험

성관계 경험의 경우 가정밖 청소년(48.3%), 학교밖 청소년(19.1%), 아동(9.4%)의 순인데, 최초 경험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때는 중 2이다. 성 관계 시 항상 피임을 한다가 31.9%, 대부분 피임을 한다가 27.7%이며, 전혀 피임을 하지 않는다도 14.9에 달한다.

#### ■ 돈내기 및 그로 인한 재산 피해 경험

돈내기 게임 경험의 빈도수는 높지는 않으나 전체 아동·청소년 중 12.7%이며,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의 빈도가 비슷한데 둘 다 5%대이다. 돈내기 게임은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된 경우가 많고,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달에 1~2회 정도를 하는 경우가 50%이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는 경우도 20%이다. 특히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돈내기 게임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경우도 33.3%에 달하고 있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가정밖 청소년은 500만원까지, 학교밖 청소년은 300만원까지 빌린 경우가 있어 변제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전체적으로 빈도수는 높지는 않지만 온라인 관련 피해는 성적인 문제와 신상정보 노출, 스리고 사기가 많았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몸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거나 내 얼굴과 합성된 것을 본적이 있고, 신체 일부의 촬영 요구와 촬영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신상정보 노출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미끼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나도 모르는 새 온라인 상에서 내 정보가 노출된 것을 본 경우도 있다고 답하였다. 아동 보다는 청소년의 피해가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이지만 음란 영상물 전송과 신체 일부 촬영 요구, 그리고 성매매 제안 등은 가정밖 청소년 보다는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가 많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은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가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밖 청소년보다 많았으며, 그 외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가정밖 청소년이 더 많았다. 가정밖 청소년들은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또는 기프트콘 거래 시, 명의대여로 돈을 받고 휴대폰 개통 시, 휴대 전화로 소액 결제 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 SNS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 ■ 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도 가정밖 청소년이 가장 많은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음(29.3%), 신체나 물건으로 맞음(8.6%),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5.2%),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19%), 왕따를 당함(12.1%), 온라인에서의 괴롭힘(3.4%) 등이 있다. 이러한 폭력 행위들에 대한 피해가 아동은 없거나 빈도가 1, 2명에 그친 경우가 많아 경미한 편이다.

####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 역시 가정밖 청소년이 가장 많은데, 스토킹(1.7%), 말이나 눈짓 등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10.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1.7%), 강제적인 성추행(3.4%) 등이 있다.

#### ■ 조건 만남 경험

조건만남 경험과 관련해 조건만남 유인이나 제안의 경우에만 학교밖 청소년이 11.4%로 8.6%인 가정밖 청소년에 비해 많고, 그 외에는 가정밖 청소년의 경험이 7.3%로 많은 편이다. 조건 만남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가정밖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경우가 있으며, 아동은 중 2 때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건 만남을 주선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조건만남의 상대방이나 친구, 헬퍼 등이었으며, 조건 만남을 하게 된 방

법으로는 채팅사이트나 랜덤 채팅앱, 그리고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폭력 가해 경험

각각의 빈도수나 비중은 다르지만, 폭력 피해경험이 가정밖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처럼 폭력 가해 경험 역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의 경우에만 아동이 7.2%로 제일 많은 것 외에는 가정밖 청소년 가장 많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7.2%), 다른 사람 왕따 시키기(10.3%), 패싸움(8.6%),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12.1%), 다른 사람 협박하기(8.6%), 심한 욕설과 폭언하기(20.7%), 온라인 상에서 욕이나 험한 말하기(32.8%),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13.8%), 그밖에 온라인상에서 스토킹하기,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진, 엽기사진, 동영상등을 보내기,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기,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등등이 있다. 특히 아동이나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가정밖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가해 경험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6.9%), 성폭행이나 성희롱(3.4%), 온라인에서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뺏기(5.2%), 온라인 상에서 와이파이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 시키기(3.4%),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반복적으로 초대하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동영상 보내기 등이 있다.

### ■ 자해, 자살 관련 경험

평생에 1번이라도 자해를 해본 경험은 아동이 24.6%이고, 학교밖 청소년이 47.8%이며, 가정밖 청소년은 50%에 달한다. 최근 1달에 1~2번 이상 자해하는 경우도 아동은 8.6%이고, 가정밖 청소년 20.6%이며, 학교밖 청소년은 27.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자해를 생각하거나 시도를 하는 이유로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 전체를 합쳐 빈도수가 50이며, 다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과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서 인데 빈도수는 35로 같다.

자살을 생각해 본 경우도 아동이 26.9%이고, 가정밖 청소년이 42.1%이며, 학교밖 청소년은 48.6%로 학교밖 청소년 중 절반에 가깝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는 가정밖 청소년은 1.8%밖에 안되는데 반해 아동은 4.5%, 학교밖 청소년은 5.7%이며, 자살을 생각하게 된 가장 많은 이유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고 다음이 가족 간의 갈등을 들었다.

### ■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방안

아동, 청소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다음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이며, 세번째가 가족과의 갈등이며, 네번째가 돈 문제를 포함한 생활의 불안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또는 정보 제공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은 생활비 지원, 임대주택 제공, 건강검진 제공,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성교육, 심리·정서적 치료나 치유, 가족 간 갈등 해결과 가정폭력 해소 프로그램 등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습 멘토, 진학 정보,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노동인권 교육, 자산관리 관련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 치료 지원, 지역사회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문화예술·체육·동아리 활동 등 참여, 자해·자살 예방 프로그램,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가정밖 청소년들은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쉼터 퇴소 및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용돈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2. 소 결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공통된 관심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한 자립지원과 현실의 안정적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 등 심리상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현실에 맞게 실용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자립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비, 주거 지원, 건강 검진 및 질병 치료에 관심이 높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아왔던 가족 갈등과 가정폭력 해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는 대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를 많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조사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진로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 미래지향적인 면이 잘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제일 많으며, 자해·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진로, 직업교육, 일자리,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높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산관리, 인터넷 중독 치료,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

보 등을 원했으며, 특히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던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가정밖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을 들었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부모로부터의 방임, 방치나 성학대 경험, 폭력 가·피해 경험, 지위 비행, 조건 만남, 온라인상에서의 가해 경험 등이 아동이나 학교밖 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장점도 있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집단 내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는 편이다. 가정밖 청소년이 주로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현실적으로 쓸 용돈, 그리고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고 싶어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대상에 따라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나는데, 아동은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학교밖 청소년은 자해·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많았고, 가정밖 청소년들은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족의 보호를 받는가에 따라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가족과의 갈등으로 겪는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다만 아동은 가족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정밖 청소년은 갈등 극복보다는 자립 지원과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충 상담을 더 많이 원하였다. 그리고 가정밖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인해 한편으로는 아동이나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지위비행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 가·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등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편이며, 집단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비해 장기적인 진로나 전망에 대한 고민은 약하지만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립에 대한 바람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장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전문가 집담회 결과

- ◆ 일 시 : 2023년 11월 9일(목), 14:00~16:00
- ◆ 장 소 : 커먼즈 필드 대전 (대전시사회혁신센터)
- ◆ 참가자

- ※ 전문가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소영 교수
-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                      이형렬 교수
-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김환재 관장
-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
- 아동양육시설 천양원                      이재훈 원장
-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                      전국진 관장
-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경희 소장
-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김균섭 소장
- 대전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선아 센터장
- 대전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성현 센터장
- ※ 연구원 : (전)대전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이계석 소장
- 기쁜우리아동쉼터                      유희석 원장
- 대전좋은이웃쉼터                      최선미 원장
-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만식 센터장
-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해수 팀장
- 대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오재진 소장
-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이순복 소장

## 1. 각 대상의 실태와 특성

○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과거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특징은 과거(대략 2000년 초중반까지) 아동·청소년에 비해 현재는 심리·정서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요보호 아동들이 생 활하는 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도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늦었지만 정부가 아동·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심리상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거 지원이 없었을 때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부담해야 했으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상담 및 치료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변화된 정책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학대아동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구청,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이 전국 1위이다. 청소년의 자해, 자살 문제는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 없고 수정 보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 아동 청소년 가운데 지적, 경계선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예도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 중 적을 때는 30%에서 많을 때는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약을 먹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적, 경계선 장애를 치료할 수 있도록 임상 심리사 등의 치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현장 배치와 디딤센터의 광역단위 별 설치가 필요하다.

## 2.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

○ 최근 가장 두드러진 복지는 지역복지라고 생각한다. 복지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노약자, 장애인등)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행복네트워크 등의 기구를 통

해서 읍면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 복지 전달체계는 다르지만 복지대상자가 사실상 같아질 경우 지원의 중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단위에서 체계를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정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 정부 조직도 바뀌어야 할 수 있고, 이미 오랜 시간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단위에서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대전형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전의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은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학교밖 청소년 수당지급은 대전형 복지정책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런 대전형 복지정책의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정부의 보호, 상담, 교육, 자립과 관련된 지원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 다고 본다. 특히, 자립과 관련된 지원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소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수중에 많은 지원금이 주어지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미 아동복지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구 등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교육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대상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체계를 바꿔 일시 지원보다는 시기별로 지원금액을 차이를 두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고 오사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는 현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자적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복지시설과는 무관한 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꿈드림센터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꿈드림센터 등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 청소년들의 상황은 다른지만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

### 3. 각 복지 지원 정책 비교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와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연장보호정책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 각종 학교 연장보호 등)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복정책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이점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각 시설 별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발굴, 보호,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 대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비슷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 대상의 연령대가 다른 점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유형 별로 양육시설의 경우 대학생까지 데리고 있고 일부 유형의 시설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 등 유형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18세 이하를, 청소년 복지시설은 보통 9세에서 14세 이하의 청소년 보다는 15세 이상에서 24세의 청소년을 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에 아동복지법(16조의 3)이 개정되어 아동 복지시설 출신 청소년들도 2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의 연령이 사실상 같아짐으로 인해 양 복지체계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해진 부분이 있다.

○ 만약 대상의 연령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같아진다고 할 때, 그럼에도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는 별개로 되어 있으므로 각 지원체계의 격차나 접근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 현실적으로도 이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상호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4. 대전지역의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보완점

○ 아동·청소년 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 복지체계에서 온라인 중심 복지체계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빠르고 가독성이 좋아, 현실 공간에서의 대면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좋아할 것이다.

○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들의 연대 협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만나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 시·구의 아동 청소년 복지 담당자들과 현장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청소년 복지 대상자 중 중 가족복지 단위로 묶여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의 청소년들, 그리고 성 소수자 청소년들의 청소년 복지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청소년 1 인당 평균 교육비가 2022년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인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그 정도가 투여되어야 한다.
- 모든 정책은 객관적 수치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 제5장 결론

세계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 위협, 정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전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미래세대가 아니라 다음시대의 주역이자, 앞으로 성인 및 노인인구의 부양 등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지게 될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히 기성세대 또는 사회가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대상으로 한정지어 쳐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점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있어 생애주기적 접근을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그동안의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sup>48)</sup>

그런 면에서 먼저 아동과 청소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나눠서 살펴보면 기존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를 설명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5-1〉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sup>49)</sup>

구 분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원	보호	보호와 참여
서비스 주체의 활동	적응	자립
복지역량적 관점	보호적 관점	발달과업 이수 및 개발

보통 아동의 특성을 미성숙한 상태, 보호받아야 할 대상,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할 존재이며,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화되어가는 시기이자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은 성인으로의 육체적 성숙, 지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독립적 의존의 갈등, 자아정체감의 확립, 저항과 비판의식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sup>50)</sup>

48) 김선애(2011), 앞의 책, p. 119.

49) 김선애(2010), 청소년복지의 실천적 정립을 위한 고찰 -아동복지실천과의 비교를 통한 청소년의 개발적 복지 접근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 12, No. 4, p.284.

50) 김선애(2011), 앞의 책, p. 283.

이에 따라 복지정책도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추구에서 전체 아동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하였고, 반면에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복지환경(건강한 활동여건) 조성에서 청소년의 복지권과 참여 및 자립 등의 복지지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이는 연령대를 구분해 상정한 사회통념상의 구분<sup>51)</sup>일 뿐 실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이러한 경계를 쉽게 허물어뜨리고는 한다. 실 예로 본 논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이 위기 아동과 청소년임을 감안해도 아동과 청소년의 지위 비행이나 성경험 등을 보면 빠른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을 막론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따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상적인 방향으로만 정책대상 설정과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 추진체계가 서로 다른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아동과 청소년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고 시급한 일이다.<sup>52)</sup> 다만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논거들을 개발해가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기존의 아동과 청소년을 분절적으로 나누고 법과 제도를 통한 조작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각각 개별화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적 시각<sup>53)</sup> 시각을 가지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생애주기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이미 현장에서는 일정하게 연계, 순환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51) 사회통념상 아동은 초등학교 때까지, 청소년은 중고생 나이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2) 김선애, 앞의 책, p. 284.

53) 그렇다고 본 연구진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선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대전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려면 우선 세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대전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전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생애주기적 관점인데 이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상호 연계 확대를 통한 안전망 강화와 성장 후의 사회적 역할까지 고려한 자립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역복지의 객관적인 현황 및 특수성을 고려한 대전형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보다 전향적인 조사 연구 - 정책 개발 및 수립 - 시행 및 보완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전달체계는 달리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상호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대전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지역 중심의 관점에서 대전형 아동·청소년 통합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복지는 앞으로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적인 면뿐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면까지 포함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들의 삶과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도 이에 맞춰 ‘마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문제 역시 지역 공동의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대전형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 간의 복지정책과 지원 내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 지역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비했던 복지 담당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로 기존에 나누어져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연계성을 높여나가려면 우선 각 복지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각 복지전달체계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각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적인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 또한 장기적으로 대전형 복지체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 담당자와 과 현장,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대전의 학교밖 청소년 수당을 위기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 아동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매월 40만원씩 5년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데 비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2년간 거주 후 자립을 하는 경우는 월 4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는다.

○ 또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 수당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2년을 보호시설에서 채워야 한다. 그런데 아동시설과 청소년 시설 간의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머물던 청소년이 자립지원 수당을 받고 청년 전세 임대를 신청하려면 2년간 시설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1달을 만으로 꼭 채워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2년 동안의 보호기간을 채워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보호 소년은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의 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 의료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필요할 때 외부 진료를 받기 어렵다.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투여되는 교육 재정이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투여되어야 한다. 가정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에 적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장차 사회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내에서의 역할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안 청소년에게 투여되는 재정이 똑같이 투여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지역단위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상호 보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관련 학계와 현장의 협업으로 통합적 논의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서비스 규모와 인력수요 산출 및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기반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들을 생산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광역단위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에만 광역단위 지원센터가 갖춰져 있는데, 이마저도 구 단위 센터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 구 단위 센터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느라 광역단위 지원체계로서의 본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대전시의 위기 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의 복지 전달체계에는 이마저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대전시만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기관을 세움으로써 통합기능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공성 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관리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역 복지정책 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 훈련, 고용 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네트워킹과 재정지원 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경계선 장애를 포함한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도 깊은 개입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밝혀졌고 전문가 집담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지역에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또 계속 높아져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실제로 청소년쉼터의 경우에 입소청소년 중 최소 30~50%의 청소년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가 심각한 청소년의 경우 이를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인력이 없어 복지시설에서 돌려막기를 하며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대전 시내 정신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알콜 중독증 환자를 많이 받고 있으며, 청소년 환자의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배치하기 어렵다고 받지 않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정신적 장애 아동 청소년의 진단 및 초기 치료를 위한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대전에도 전문치료기관인 디딤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일곱째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현장 담당자들 간의 교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서로의 내용과 상황을 모르면 상호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가 촉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비용, 시간, 에너지, 노력을 투여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부차적인 업무라고 소홀히 하기 쉽지만,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지역복지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조사, 협약, 계약, 협력 담당자 배치 등의 협력관리 방법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적극 투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을 상담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긴급 구조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4차 산업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은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지 환경을 크게 바꿔놓게 될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들은 멀지 않아 모든 지식 정보를 AI를 통해 얻을 것이고, 직업체험이나 놀이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청소년 분야에서도 수련과 활동 쪽은 메타버스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 쪽도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에서 강조하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특성을 탐색하여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 이를 위해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갖춰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는 바,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및 자치구에 정책 대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실천적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대전형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망을 올바르게 세우고,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희망을 키워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참고자료

###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통합

김선애(2022),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 구분을 통한 사회권 담론과 복지적 개입 고찰」, 『청소년시설환경』 Vol. 20, No. 1.

----- (2019),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의 이중구조유형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 26, No. 3.

----- (2011),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의 연계 방향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 13, No. 3.

김형수(2011),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재편 방안」, 『광신논단』 Vol. 20.

남미애(2004),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현재와 미래」, 『지역학 연구』 Vol. 3, No. 1,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우정자(2008),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조직의 조직영역별 협력관리활동이 조직간 협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19,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

### ○ 위기 아동 분야

곽지현(2023),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슬이(2023)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 입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솔지(2021) 「아동학대의 행위 분류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영(2022).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가해 간 관계」, 서

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소영(2021) 「불안정한 애착과 학대경험에 따른 위축과 정서불안을 가진 아동의 치료 사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병일(2018). 『아동권리와 복지, 지식공동체』.

박은희(2020),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정아(2023).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조절된 우울의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영(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병일, 유호석 외(2022). 「사회복지현장의 살맛나는 세상」,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연구회.

우희경(2012). 「시설보호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호석(2018). 「시설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수경(2020) 「가정의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봉주 외(2020). 「아동보호서비스 특성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임세영(2022).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 부적응도식과 학교생활부적응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학교밖 청소년 분야

강진령, 노기호, 김범구, 윤소민(2013).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구자경(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3).
- 김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 김민(2014). 「학교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 포럼 결과 발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민정, 김혜영(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청소년복지 연구』 9(1). 3-22
- 김보기(2014).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기업의 사회공헌」. 『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결과 발표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성기(201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김은영, 이윤희(2019).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발전 방향 및 과제: 미취학 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정책포럼』 통권 308호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9(3), 213-24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 류성창(201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방안」. 학교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백혜정, 임희진(2014). 『학교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 신정란(2020).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 활동』

연구』 03.

여성가족부(2012). 『가출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오혜영(2012).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의 통합적 지원 모형」.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와 지원 대책 세미나.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2013). 『학업중단 학생 중단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4).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2019). 「학교밖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력은 인정받는 체제가 왜 우리에게만 몽상일까?」. 『교육정책 포럼』 통권 308호

이준형(2008).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위험 행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제영(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정규석(2014). 「학교밖 청소년 정책 및 대응방안」,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동우(2014).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 포럼 결과발표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허민숙(2020).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 151호

황순길, 조규필, 박현진, 김범구, 황수진, 신정란, 윤재희(201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순길, 조규필, 김명찬, 이민영, 황수진, 신정란, 안은민(2014). 『학교밖 청소년 건강 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가정밖 청소년 분야

김균섭; 이순복, 『SKILLS FOR LIFE 생활기술』,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1.

김지연(2021),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은정 외(2019),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 지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2(4), 195-240.

김은정 외(2019), 「가정밖청소년들의 자립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Vol.30 No.2.

김희진 외(2018), 『가정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민소영 외(2021), 『자립지원사업 운영체계 및 사례관리 매뉴얼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주미 외(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외(2018), 『가정밖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3.

오재진(2023), 『대전형청소년자립 실태조사 현황과 과제』, 대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육혜련(201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1).

이상정 외(2020), 『보호 종료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혜원(2014),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2).

황진구; 김지연(2020), 『가출 청소년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재구조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부록 1.

ID	
----	--

#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안녕하세요.

2023년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여러분이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이용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동·청소년들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내용은 옳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조사에서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문의 : 이계석 책임연구원 (010-5454-4413)

### [진행 전 안내사항]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잘못된표시는 편하게(✕) 수정 후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I 여러분의 최근 기분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심리적 특성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소중한 존재다	①	②	③	④
3)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9) 무슨 일이든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1)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3)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들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속한 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6)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7) 열심히 일하면 항상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18)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9)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그 렇 다	아 니 다
1)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자가 격리를 위해 집에 머물거나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은 제외하고 답해주세요.)	①	②
2)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3**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없다
- ② 부모님(또는 보호자)
- ③ 형제/자매
- ④ 이웃/친척
- ⑤ 친구
- ⑥ 선후배
- ⑦ 학교 선생님
- ⑧ 아동,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상담복지센터, 1388 포함)
- ⑨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II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내 경험

4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3)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4)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일주일 1-2번	1달에 1-2번	1년에 1-2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음	
1)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를 위협하거나 욕과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성학대 및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방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밖에서 지낸 경험

**6**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출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항	해본 적없다.					
		한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1) 최근 1년 동안	①	②	③	④	⑤	⑥
2) 지금까지 평생	①	②	③	④	⑤	⑥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6-1 로, 둘 다 “해본 적 없다” 이면 7 으로 이동하세요.

**6-1** 처음 가출했을 때 만으로 몇 살이었나요?

만   살

**6-2**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 ②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경제적 어려움)
- ④ 선생님과의 갈등과 학교 규칙 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 ⑤ 왕따 등 학교 폭력 때문에
- ⑥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공부하기 싫어서)
- ⑦ 친구가 집을 나오라고 해서
- ⑧ 선후배가 집을 나오라고 해서
- ⑨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6-3 집을 나와서 어디에서 지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청소년쉼터                      ② 친구 집                      ③ 선후배 집
- ④ 여관/모텔/달방/월세방   ⑤ 찜질방/고시원/PC방
- ⑥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건물 안 계단/지하철역/길거리/놀이터/공원 등)
- ⑦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헬퍼)의 집
- ⑧ 가출팜                                      ⑨ 친척집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둘다 “없다” 로 응답한 경우만 7 로 이동하세요

**6-4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헬퍼 : 도움을 주는 척하며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

문항	경험한 적이 없다	
	있다	없다
1)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 부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줄 사람(헬퍼)을 찾아본 적이 있다	①	②

**6-5**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헬퍼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6-5-1 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없다 → 7 번 문항으로

**6-5-1 헬퍼와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①	②
3) 대출사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①	②

**7**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인터넷, SNS, 채팅앱 등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7) 불법 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 공개된 적이 있다	①	②
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스팸 제외)	①	②
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III**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근로경험**

**8**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3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 ① 현재 하고 있다 → 8-1 로 가세요
- ②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3년) 한 적이 있다 → 8-1 로 가세요
- ③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3년) 한 적이 없다 → 9 으로 가세요

**8-1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 ③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어서
- ④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 ⑤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 ⑥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하자고 해서
- ⑦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2 올해(2023년)한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 아래 보기 중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1개만 선택해주세요.**

구분	아르바이트종류
매장관리	① 편의점/소형마트 ② PC 방/DVD 방/노래방/만화방 ③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④ 기타(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용품 등)
서빙·주방	⑤ 음식점·식당·레스토랑 ⑥ 뷔페/웨딩홀/연회장 ⑦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햄버거) ⑧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기타	⑨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⑩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 ⑪ 물류창고 관리/택배 상하차 ⑫ 행사도우미(이벤트/지역축제/놀이공원 등) ⑬ 공장(제조·가공/포장·조립 등) ⑭ 주차안내 및 관리 ⑮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3 그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1일~일주일 미만                      ② 일주일 이상~1개월 미만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1년 미만                      ⑥ 1년 이상

**9**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만화방, PC 방, 노래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소주방/호프집 등 술집,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

① 있다 → **9-1** 로 가세요

② 없다 → **10** 로 가세요

**9-1**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
- ②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③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 ④ 다른 곳에서는 부모님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 ⑤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술·담배·약물 이용경험**

**10**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워본 담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
- ② 일반담배(꺄련)
- ③ 액상형 전자담배(졸, 몬스터엑스팟, 비엔토 액상 카트리지 등)
- ④ 꺄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1** 최근 1개월 동안, 한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 ① 있다
- ② 없다



 성관계 경험

14 지금까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14-1 로 가세요                      ② 없다 → 15 로 가세요

14-1 성관계를 처음 해본 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① 초등학교 졸업 전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14-2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나요?

•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돔 등 피임도구 이용,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① 항상 피임을 했다                      ② 대부분 피임을 했다

③ 가끔 피임을 했다                      ④ 전혀 하지 않았다

 돈내기 게임 및 재산피해 경험

15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 돈내기 게임이란?  
카드나 화투, (인형 등) 뽑기, 스포츠 경기 내기, 복권/토토 등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돈 또는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서 승자일 경우 그 건 돈(물건)을 가져가고, 패자일 경우에는 잃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 각종 내기 성격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 ① 지난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 → 15-1 로 가세요
- ② 지난 6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있다 → 16 로 가세요
- ③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 17 로 가세요

**15-1 위에서 응답한 돈내기 게임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개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친구 소개
- ② 선후배 소개
- ③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 ④ TV, 영화, 만화 등을 보고
- ⑤ 전단지, 인쇄광고물 등을 보고
- ⑥ 대회/축제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 ⑦ 온라인 게임/카페 등의 회원 게시글/댓글 등을 보고
- ⑧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팝업광고 등을 보고
- ⑨ 이메일로 온 광고 메일/쪽지 등을 보고
- ⑩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 등을 보고
-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15-2 최근 6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 ① 지금까지 1~2회
- ② 한 달에 1~2회
- ③ 일주일에 1~2회
- ④ 거의 매일

**15-3 최근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친구 소개
- ② 선후배 소개
- ③ 호기심 또는 일시적인 재미로
- ④ 고민이나 스트레스, 나쁜 기분(우울-불안-분노-짜증 등)을 잊기 위해서
- 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 ⑥ 친구나 선후배가 하라고 시켜서
- ⑦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⑧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16** 다음 중 돈내기 게임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팔았던 적이 있다 (중고물품 거래, 아이템 거래 등)	①	②
2) 돈내기 게임 때문에 사기를 친 적이 있다(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거래 사기 등)	①	②
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6)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16-1** 돈내기 게임을 위해 지금까지 빌린 돈은 전부 얼마 정도인가요?

\*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0만원이라고 적어주세요

				만
				원

**17** 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기프트콘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 를 빌려준 적이 있다	①	②
4)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을 통해 빚이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5)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6)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아 빚을 진 적이 있다	①	②



20-1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당시 시기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전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20-2 조건만남을 주선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친구                      ② 선후배                      ③ 헬퍼  
 ④ 조건만남 상대방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20-3 조건만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서  
 ②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지 등)을 통해서  
 ③ SNS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④ 친구/선후배/애인 같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⑤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폭력가해 경험**

21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이루번
1)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패싸움	①	②	③	④	⑤	⑥
4)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성폭행이나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9) 심한 욕설과 폭언	①	②	③	④	⑤	⑥

22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쓴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스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당사가 원치 않는 사진 영자신 이미지 동영상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이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와이파이를 사거나 핫스팟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서 쓰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일부러 사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취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24-1 로 이동하세요

**24-1** 죽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V**

다음은 희망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족과의 갈등
- ②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 ③ 생활이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 ④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 ⑤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 ⑥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 ⑦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 ⑧ 일을 구하기 어려움
- ⑨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 ⑩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 ⑪ 건강이 안 좋음
- 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 ⑬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⑭ 어려움이 없음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의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b>■진로 준비</b>				
1)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①	②	③	④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4)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b>■일자리 및 자립 지원</b>				
5)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6)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①	②	③	④
7)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8)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9)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b>■건강 관리</b>				
10) 건강검진 제공	①	②	③	④
11)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①	②	③	④
12) 성교육 제공	①	②	③	④
<b>■상담 서비스</b>				
13)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14)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①	②	③	④
15) 가족 간 갈등해결이나 가정폭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16)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b>■활동/생활 지원</b>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18)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이외에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내용을 써주세요 :				



배문

4 여러분은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시 학교를 다닐 것이다(복학,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 ② 취업할 것이다(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우며 돈을 받는 것 포함)
- ③ 창업할 것이다(사업, 자영업 등)
- ④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 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 ⑥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배문

5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받았다
- ② 받지 않았다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 및 개선안 (2023)<sup>54)</sup>

### 1. 시설보호현황(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중심으로

《표5-1》 시설보호현황(아동): 2023.08 기준

(단위:개소)

현황	계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	보호치료	자립지원
전국	392	231	135	8	10	8
*대전	19	11	6	<u>개소준비중</u>	1	1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시설이며 비공개시설이다. 쉼터의 현황은 23년 8월 기준, 전국 135개소가 있으며 대전은 현재 6개소(남아3, 여아3)가 운영중에 있다.

#### 1. 시설보호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법 제53조2)

① **아동양육시설**: 요보호 대상아동을 양육, 보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와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보호시설.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대상아동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여건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자립지원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가정형 장기보호시설.

③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의 긴급분리조치시에 응급보호 및 일시보호, 임시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사전심리검사를 통한 심리치유를 주목적으로 제공하는 단기보호시설.

④ **아동일시보호시설**: 긴급 요보호아동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기전에 임시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

⑤ **아동보호치료시설**: 문제행동을 할 우려가 있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청소년,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청소년, 학대피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된 후 심리치료가 필요한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와 치료를 서비스하는 시설.

⑥ **자립지원시설**: 시설보호후의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취업준비 또는 취업 후에도 일정기간

54)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만들어지지 오래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록으로나마 소개하게 되었다. 이 원고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자 학대피해아동쉼터인 기본우리아동쉼터의 원장인 유희석 박사가 집필하였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표5-2》 주요 시설보호유형(아동) 차이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보호기간 (방법)	장기보호 (자립전까지)	장기보호 (자립전까지)	*단기보호: 1)응급보호(72시간) 2)일시보호(3개월) 3)임시보호(1년이내)	일시보호 3개월 (1회연장가능)
보호대상	결손·해체가정 위기의 요보호아동	결손·해체가정 위기의 요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	결손·해체가정 위기의 요보호아동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2조
목적	결손·해체가정의 요보호아 동을 보호·양육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움	결손·해체가정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과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을 도움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및 회복	위기 요보호아동 적절한곳 배치전에 <b>일시보호</b>
아동정원 (규모)	대형시설 (아동복지법기준)	7명 (소규모)	7명 (소규모)	남아 12명, 여아 12명 등 총24명 <u>(*대전개소준비중)</u>
운영형태	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종사자수	*아동복지법 종사자배치 기준적용	3명	*6~7명	*아동복지법 종사자배치 기준적용

《표5-3》 아동학대사례 판단건 수 (최근5년): 전국

(단위: 건, %)

구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건)	36,417	41,389	42,251	53,932	44,531
판단(건)	24,604	30,045	30,905	37,605	27,971
증가율(%)	10	22	2.9	27.6	-25.6

\*출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최근 5년의 아동학대사례의 신고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2년에는 학대피해 접수는 물론 학대피해로 판단된 건 《표2-3》 수가 25.6%나 감소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21년 3월이후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실시와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였던 업무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변경에 따른 영향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최근 5년동안의 대전지역의 아동학대 의심건수 《표2-4》가 꾸준히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면 22년의 전국 학대피해 판단건수의 감소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표5-4〉 아동학대 의심신고건 수 (최근5년): 대전지역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학대(건)	640	893	1,336	1,148	1,254
증가율(%)	21.9	39.5	49.6	-14.0	9.2

\*출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현재 진행되는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체계를 보면, 학대신고 접수 후, 긴급분리조치 결정이 되었을 때, 학대전담공무원의 긴급입소 연락을 받은“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신속하고 긴밀하게 긴급보호를 하게 되며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이전에는 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입소를 한 후, 일정기간 시설보호 후에 장기보호나 원가정복귀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다보니 어려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긴급 위기아동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개소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는 물론 사전심리검사를 통한 심리치료가 대상자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표5-5〉 아동학대 사망건수 (최근5년)-전국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아동 수	28	42	43	40	50

\*출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2년 아동학대피해로 사망한 아동수는 50명이며 최근 5년의 수치를 보더라도 학대피해로 사망한 아동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세이하의 영아사망이 전체사망의 52%(26명)에 이르고 있다.

〈표5-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아동의 거주기간(2022년): 전국

(단위 : 명, %)

거주 기간	인원수(명)	비율(%)
1개월 미만	98	23.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06	25.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82	19.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95	22.5
1년 이상	41	9.7
계	422	100.0

\*출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022년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거주기간을 보면 1개월에서 3개월동안 거주한 아동들이 제일 많았으며 나머지는 고루 비슷하게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22년 한해동안 퇴소한 아동은 422명(45.1%)이고 22년에 이후에도 계속보호중인 아동은 513명(54.9%)이었으며 쉼터에서 22년 한해동안 총보호한 아동은 935명이었다.

《표5-7》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현황 (최근 5년): 대전지역 (단위: 명) \*22년 연인원

쉼터(명)/연인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입소	퇴소	연인원	입소	퇴소	연인원	입소	퇴소	연인원	입소	퇴소	연인원	입소	퇴소	연인원
기쁜우리아동쉼터(남)	16	11	1,808	16	10	1,853	21	12	2,547	29	24	2,527	23	23	1,322
좋은이웃쉼터(여)	31	24	2,574	25	19	2,309	18	11	2,488	25	18	2,300	30	24	1,993
민들레쉼터(남)	9	11	2,368	16	15	2,161	17	10	2,258	25	19	2,067	19	17	1,039
민들레플러스쉼터(여)	*2019.11 개소			2	0	40	18	13	2,260	30	29	2,280	23	18	1,543
대전희망쉼터(남)	*2022.05 개소											11	7	870	
푸르니쉼터(여)	*2022.12 개소											2	1	29	
누계	56	46	6,750	59	44	6,363	62	46	9,553	92	90	9,174	108	90	6,796

21년대비 2,378명 감소(최근 일시보호100%) \*출처: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2023

최근5년동안 대전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퇴소현황 《표2-7》을 보면 22년까지에도 쉼터의 입퇴소의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나 22년의 쉼터의 연보호인원수는 2,378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은 21년도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주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쉼터의 보호방법이 대부분 일시보호로 진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은 아니다. 대전지역에 일시보호시설이 없으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역할을 할뿐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본연의 목적은 학대피해를 입은 긴급아동이 쉼터입소와 함께 사전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있는 대전지역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일시보호조치는 과도기 현상으로 보이며 대전지역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며 현재 보호체계의 중심에 있는 각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들도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신중히 들으면서 보호체계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표5-8》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실적(※1일평균보호아동수): 대전지역

(단위:건, 명)

쉼터 / 년도 (※1일평균보호아동수)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인원	※1일 평균	연인원	※1일 평균	연인원	※1일 평균	연인원	※1일 평균	연인원	※1일 평균
기쁜우리아동쉼터(남)	1,808	5	1,853	5.1	2,547	7.0	2,527	6.9	1,322	3.6
좋은이웃쉼터(여)	2,574	7.1	2,309	6.3	2,488	6.8	2,300	6.3	1,993	5.5
민들레쉼터(남)	2,368	6.5	2,161	5.9	2,258	6.2	2,067	5.7	1,039	2.9
민들레플러스쉼터(여)	*2019.11개소		40	0.7	2,260	6.2	2,280	6.3	1,543	4.2
대전희망쉼터(남)	*2022.05 개소								870	3.7
푸르니쉼터(여)	*2022.12 개소								29	1
계(평균)	6,750	6.2	6,363	5.7	9,553	6.6	9,174	6.3	6,796	3.9

\*출처: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2023

최근 4년(18년~21년)동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1일평균보호아동수는 평균 6.2명이었는데 22년의 1일평균보호아동수는 3.9명으로 내려갔음을 《표2-8》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보호체계의 변경과 보호방법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이며 과도기현상인 것으로 추측되며 곧 제자리를 찾아 역할에 맞는 소임을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5-9》 “아동학대보호체계”주요업무 및 역할(기관별)

주체	주요 업무 및 역할	현황
광역시(아동학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li> <li>·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운영 관리·감독</li> <li>·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li> </ul>	
자치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조치 결정</li> <li>·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li> <li>·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성적 등)</li> <li>·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와 연계</li> <li>·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결정</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례관리 등 운영 지도·감독</li> <li>·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에방사업에 관한 정보 처리</li> <li>·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직무교육</li> </ul>	전국 229개 시군구 747배치

<p><b>아동보호 전문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사례관리</li> <li>·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교육</li> <li>·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li> <li>·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li> <li>·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li> <li>·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 절차 실시, 사후관리</li> <li>·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li> <li>·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 아동권리, 아동성학대예방, 부모교육 등)</li> <li>·아동학대예방 홍보(정책제언, 유관기관연대활동, 아동학대예방캠페인)</li> <li>·아동권리옹호사업</li> <li>·위기가정지원사업</li> <li>·거점심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서비스지원)</li> </ul>	<p>전국 88개소 (23.03 기준)</p>
<p><b>*학대피해 아동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 긴급(응급)보호 및 일시보호, 임시보호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후유증 치료</li> <li>·피해아동 사전심리검사 및 심리치료</li> <li>·아동학대 사건 진술조력 및 수사협조</li> <li>·사후조치(원가정복귀,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를 위한 사례관리</li> <li>·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 및 개별학습 지원</li> <li>·입소아동 의무교육, 기본소양교육, 자존감향상PG 등 실시</li> <li>·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직무교육실시</li> <li>·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li> <li>·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li> </ul>	<p>전국 135개소 (23.08 기준)</p>
<p><b>시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li> <li>·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및 현장조사</li> <li>·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연계</li> <li>·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li> <li>·유관기관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ul>	<p>학대 예방경찰관 (APO) 전국 약 737명 배치(23.02기준)</p>

## II. 주요 시사점

### 첫째, 아동학대대응 주체의 역할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전국 광역단위의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최소 시도단위에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예방경찰관(APO),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유관기관의 역할 조정, 협업구축, 심각한 사례에 대한 지원 역할수행 및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단위에 아동학대대응 보호체계의 조사, 판단, 조치에 대한 전문수퍼비전 제공할 팀장급 수퍼바이저 배치가 시급하다.

### **둘째, 학대전담공무원 및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되어야 한다.**

최초, 아동학대신고 접수시에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게되는데 이때 현장조사와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불필요한 개입이 되며, 실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놓치게 된다. 또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재학대와 재신고의 악순환이 되며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 이렇듯 초기대응인력(학대전담공무원,경찰)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대응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의 효율성,투명성,적절성 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제일 큰문제는 초기대응인력에 대한 슈퍼바이저가 없다는 점이다. 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치, 학대판단, 조사내용, 방법에 대한 슈퍼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단기간의 교육시간으로 확보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선발자체가 사회복지전담인력이다. 아동학대보호체계를 위해 전문성향상 교육을 받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사이동시, 아동학대보호체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사이동도 동일하다고 할 수있다.

### **셋째,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 발생시에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최선의 서비스가 될 수있어야 한다. 긴급분리조치후 최초‘학대피해 조사시’,아동의 중복진술 등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 아동학대전담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간 피해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하며 장애아동은 장애인인권단체 및 아동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당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들의 피해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렇듯 학대유형에 따른 증상도 다양하고 아동 개인의 특성도 다르므로 이들의 치료방법 또한 개별화되고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개별특성을 적극 반영한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전에도 전문적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설치되어야한다.

### **넷째, 학대피해아동 보호주체인 쉼터의 역할 중요하다.**

2021년 즉각분리제도 시행(03.30)이후, 거의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이 현재 일시보호로 긴급입소(21년이전-일시보호 5%→현재, 일시보호100%)로 보호되고 있다. 현재의 입소현황은 대전지역이 이례적으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주소이전없이 가해자의

영향 속에 있으며, 기존학교로의 등하교 인솔 등)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1)학교에 수시로 전화(접근금지중), 2)학교불시친척방문(이모 등), 3)학교홈피사진-아동표정이 안좋다, 확인해달라 등)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개입시에 분리조치와 함께 학대전담공무원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놓음으로써 향후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크다보니 판단을 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시보호(100%)가 현재 과도하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한 각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피해아동쉼터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뿐아니라 긴급분리조치 시에 강력한 민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쉼터입소 시, 주소이전으로 인한 사례관리 지자체담당 변경 등의 예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속히 각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하며 특히 긴급분리조치시에도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개입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보호 후에는 향후 양육방향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하는데 이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도 당연히 사례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그동안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안정과 치유를 위해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여왔다. 학대피해의 주체인 피해아동을 직접 보호하는 곳이니만큼 향후 쉼터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

## **다섯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관련예산의 재원 및 예산부족**

아동학대예방 관련 예산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그동안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관련 예산은 매년 기획재정부의 반대속에 논의조차 되지않았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치솟는 데도 아동학대예방 관련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매년 그럴듯한 대책만 무성할 뿐 정부가 약속했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관련종사자들의 처우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 **여섯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처우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긴급보호아동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는 24시간 대기를 해야하며 야간에 응급입소 할 경우 아동의 건강상태, 청결관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위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입소아동의 특성 중 학대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적인 질병

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아 근무자들은 긴장을 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를 인정해야하며 하루속히 야간근로수당을 해당업무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높으나 인건비는 낮은 최저 수준이므로 쉼터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양육시설과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

### Ⅲ. 개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소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며 긴급보호시설이고 비공개시설이다.

최근 시설보호로 입소되는 아동의 대부분은 학대의 피해로 상처가 깊은 위기의 아동들이다. 또한 그동안 시설보호를 받아온 아동의 대부분은 상처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기가 싫지않았다. 이에 최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지못했던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가 적극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를 입은 긴급보호아동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보호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외관상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있다.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계가 점 점 나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하지않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있는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힘든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쉼터를 지켜온 쉼터종사자들의 아픔과 희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시설이므로 공과에 대해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않는다. 쉼터종사자들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상처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학대피해아동들의 상처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기할 시기도 되었다. 위기의 아동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사하여 최선을 다해 근무했지만 몇 개월을 못버티고 회의를 느끼며 쉼터를 떠나는 종사자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들은 근무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으면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싶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3-2]

---

**대전지역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실태 및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

---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김 인 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8901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

ISBN 979-11-92238-31-9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